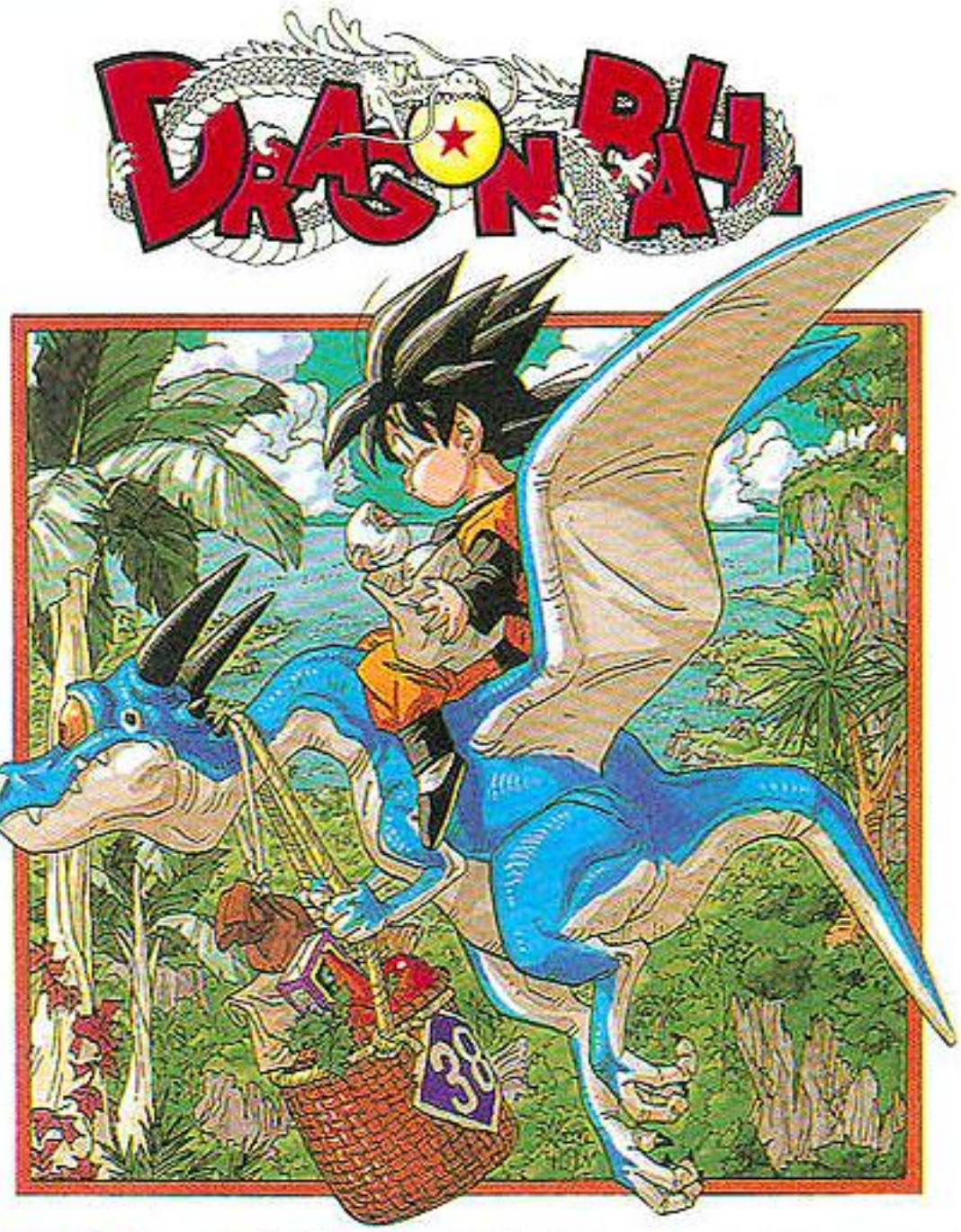
IQ JUMP COMICS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9 788953 218666 47830
ISBN 89-532-1866-7
ISBN 89-532-0133-0(세트)

© 이 작품은 일본 집영사(集英社)와 독점 계약한 작품이므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복제와
복사는 저작권 침해로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Korean edition,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Republic of Korea only.
*한국 내에서만 배본과 판매가 가능한 한국어판.

(주)서울문화사 값3,000원

AKIRA TORIYAMA

서울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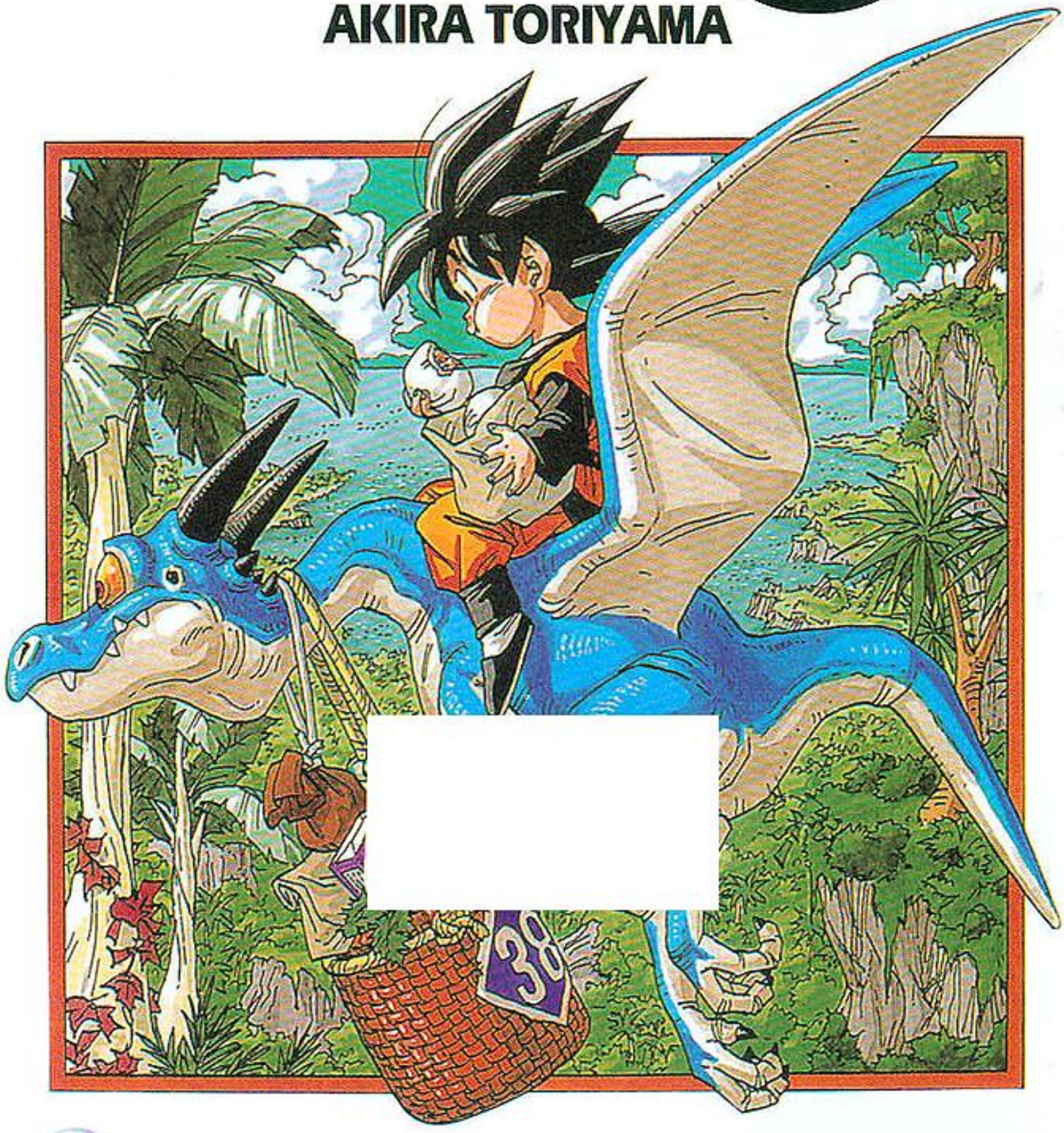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38 숙명의 대결 손오공 대 베지터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주)서울문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올해 들어와서부터, 어쩐지 더욱 바쁘게 지내는 것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느낌이 든다. 연재중인 D. B.(드래곤 볼)에 더하여, 게임쪽 일, <V점프> 일, 친구랑 같이 하고 있는 프라모델 일,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나의 회사인 B. S.(BIRD STUDIO)의 건축 플랜을 몇 장씩 바꿔 생각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애견이 병에 걸려버려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개는 건강해졌습니다) 놀 시간 좀 다오~!!

오리지널판 <드래곤 볼> 완간기념 특별선물!!

-열혈독자 2,500분께 칠성구 세트를 드립니다!!-

(응모요령은 본책 193쪽과 〈주간 아이큐점프〉에)

<드래곤 볼> 칠성구 응모권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38편 숙명의 대결 손오공 대 베지터

AKIRA TORIYAMA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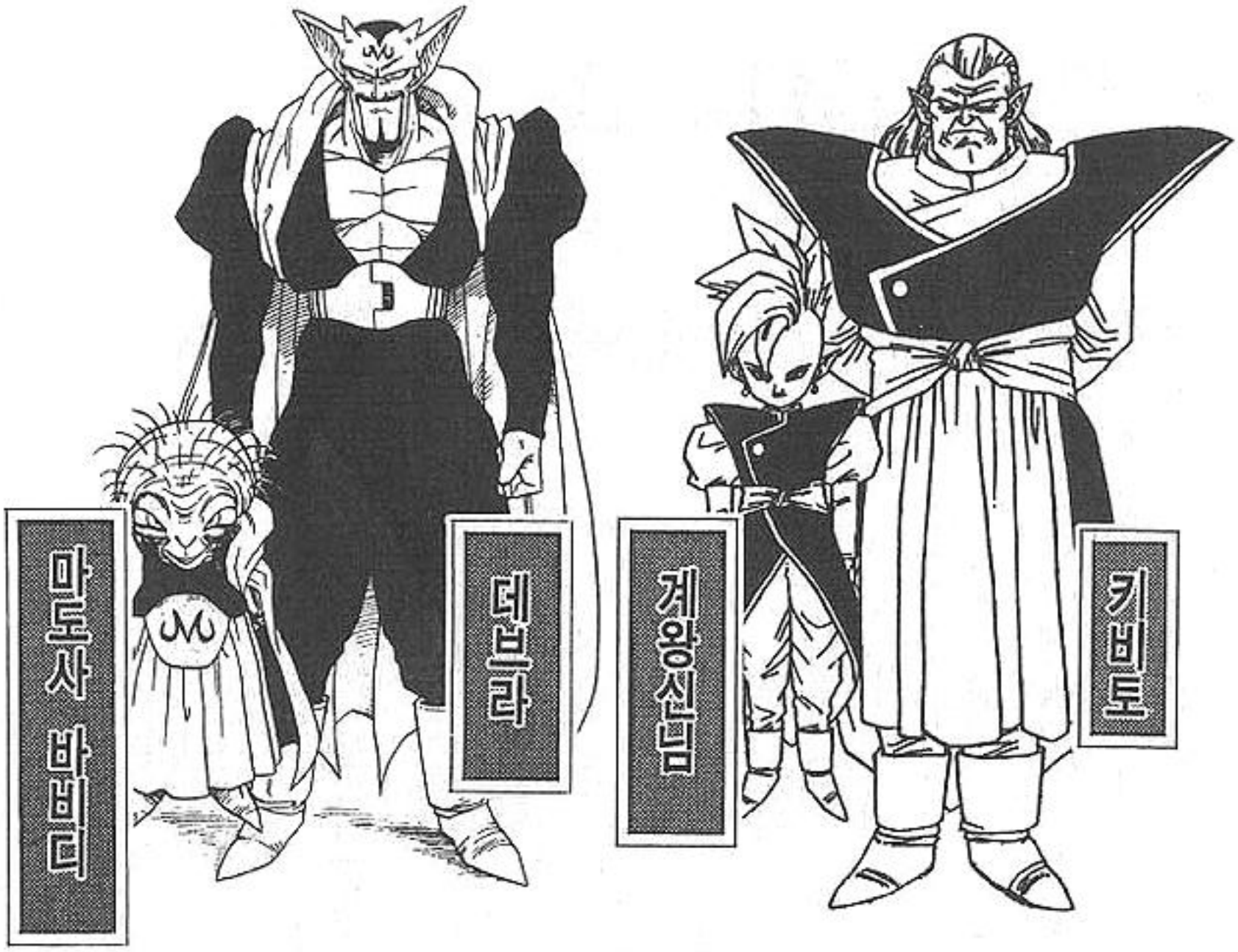
드래곤 볼

제38편 숙명의 대결 손오공 대 베지터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한 손오공과 친구들. 시합은 순조롭게 진행되어갔지만, 오반이 경기장에서 2인조에게 습격을 당하여 에너지를 빼앗겨 버린다.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계왕신으로부터 상황을 듣고서 뒤를 쫓는 오공들. 이제 계왕신도 두려워하는 마인 부우가, 마도사 바비디의 손에 의해 부활하려고 한다…!?

DRAGON BALL 38

숙명의 대결 손오공 대 베지터



제446화 마도사 바비디 ····· 7
제447화 예측했던 바비디 ····· 21
제448화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 34
제449화 게임 ····· 46
제450화 스테이지 2(투)의 야콩 ····· 61
제451화 마수 야콩의 식사 ····· 74
제452화 데브라 등장!! ····· 86
제453화 결승전의 결과 ····· 98
제454화 우승자 결정!!! ····· 113
제455화 발견된 사악한 마음 ····· 127
제456화 숙명의 대결 손오공 대 베지터 ····· 140
제457화 베지터의 자존심 ····· 152
제458화 두 초사이어인의 사투 ····· 165
제459화 카운트다운 ····· 179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446화
마도사 바비디



말하자면 …

그 마인 부우란 녀석을 부활시키지 못하게 막으면 되겠군.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도사 바비디를 쓰러뜨려야 되죠….

바비디란 놈은 강해…?

귀찮게 마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힘 자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버지 비비디도 그랬으니까….

단, 마도사는 스포포비치나 야무의 경우처럼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 파고들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답니다….

상대하기 힘든 강한 인간을 이용하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또 녀석들은 내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그… 그럼 스포포비치와 아무는 뭣 때문에 무술대회에 왔죠…?

바비디는 그런 에너지를 실수 없이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무술대회를 노리고 저 두 녀석을 보낸 거야. 초사이어인이 된 너의 에너지는 최고로 좋은 목표가 된 거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마인 부우를 부활시키기 위해선 오염되지 않은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린 저 두 놈을 추격해서 바비디가 있는 곳을 알아내려 하는 거지.

그건 바비디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싶었기 때문이지. 옛날 장소엔 마인 부우의 구슬이 없었다. 어딘가로 이동시킨 거였어.

우리도 바비디가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걸 알고 무술대회에 잠입했던 거고….

……

그런 무시무시한
마인이라면, 왜 옛날에
바비디의 아버지를
없앴을 때 그냥
내버려둔 거지?

그리고 당시엔
막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인간들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장소에
마인 부우의 구슬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고….

어쩔 수 없었어요….
함부로 구슬에
자극을 줬다가
봉인이 풀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스피드를
올리자.

이 속도론
따라잡기
어려워.

너무 빨라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돈데….

난
더 이상은
무리야…!

좀 아쉽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는걸…. 아무리 봐도 난 걸리적거리기만 할 테니까….

예상보다 너무 위험해.

역시 넌 돌아가는 게 좋겠어.

알았어…! 그런데, 역시 금발의 전사는 너였구나.

만약 무술대회장에 돌아가서 오천이랑 우리 엄말 만나면 지금 얘길 자세하게 전해줘….

고마워….

그때 함께 있던 어린애가 오반, 너였고…?

7년 전…, 셀과 싸울 때 나타난 사람들도 너희들이었지?

으….

거짓말해서 미안해…. 남한테 알려지고 싶질 않았거든….

너희들 이겠지?

아마 셀을 해치운 것도 우리 아빠가 아니고….

으….

……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이제 확실해졌어!

역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괜찮아…!

그… 그건….

응!!

마도사 바비디란 놈을 해치우고 인류를 구해줘!!

잘 싸워, 오반!

이제 끝났니? 그럼 계왕신님들을 따라잡자.

죄송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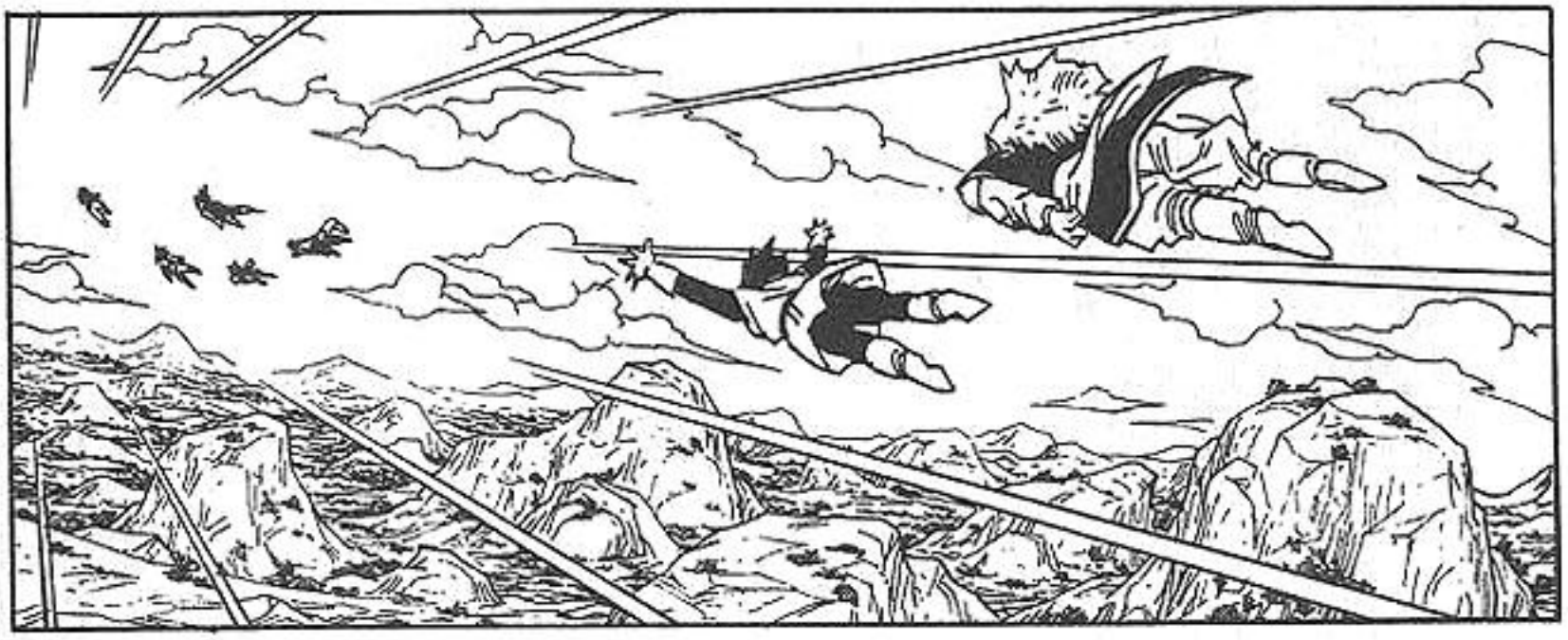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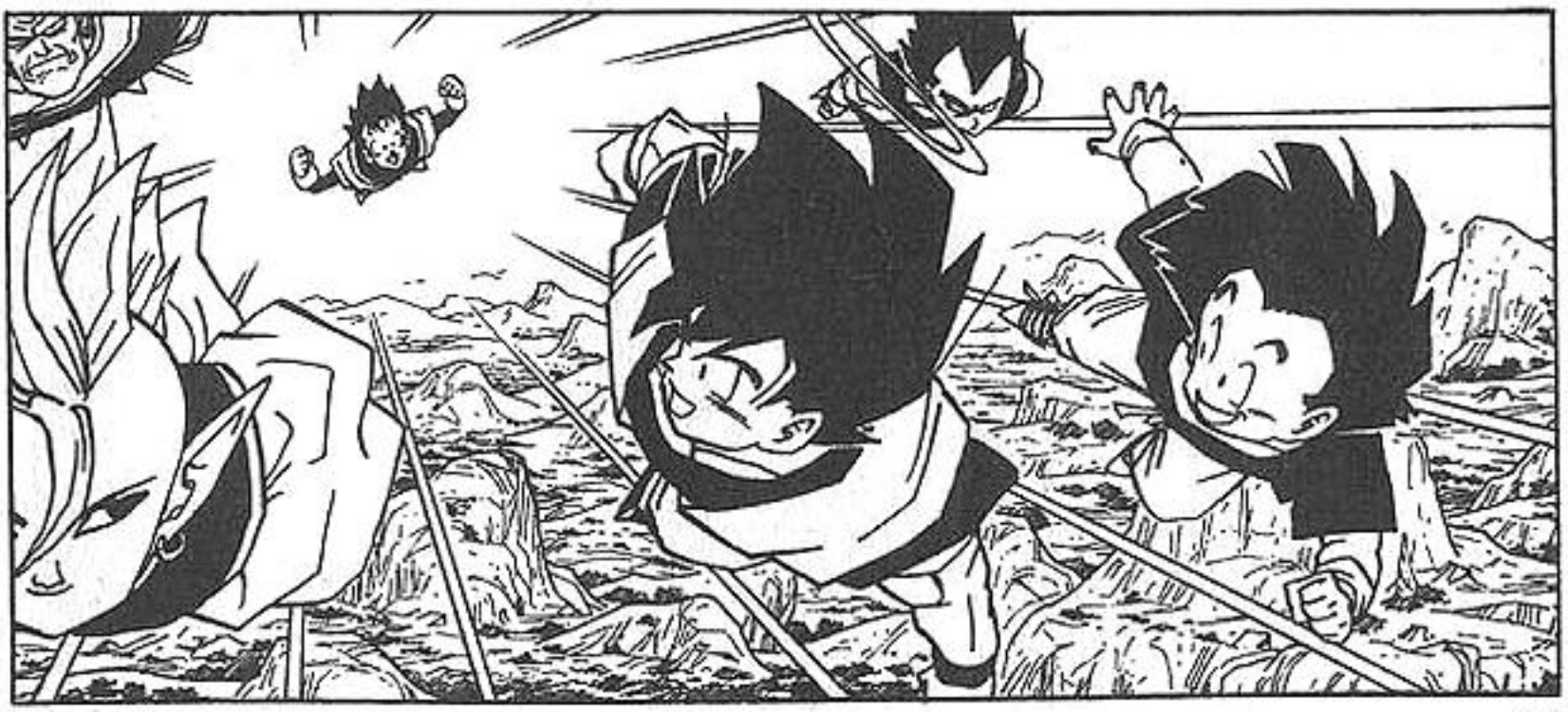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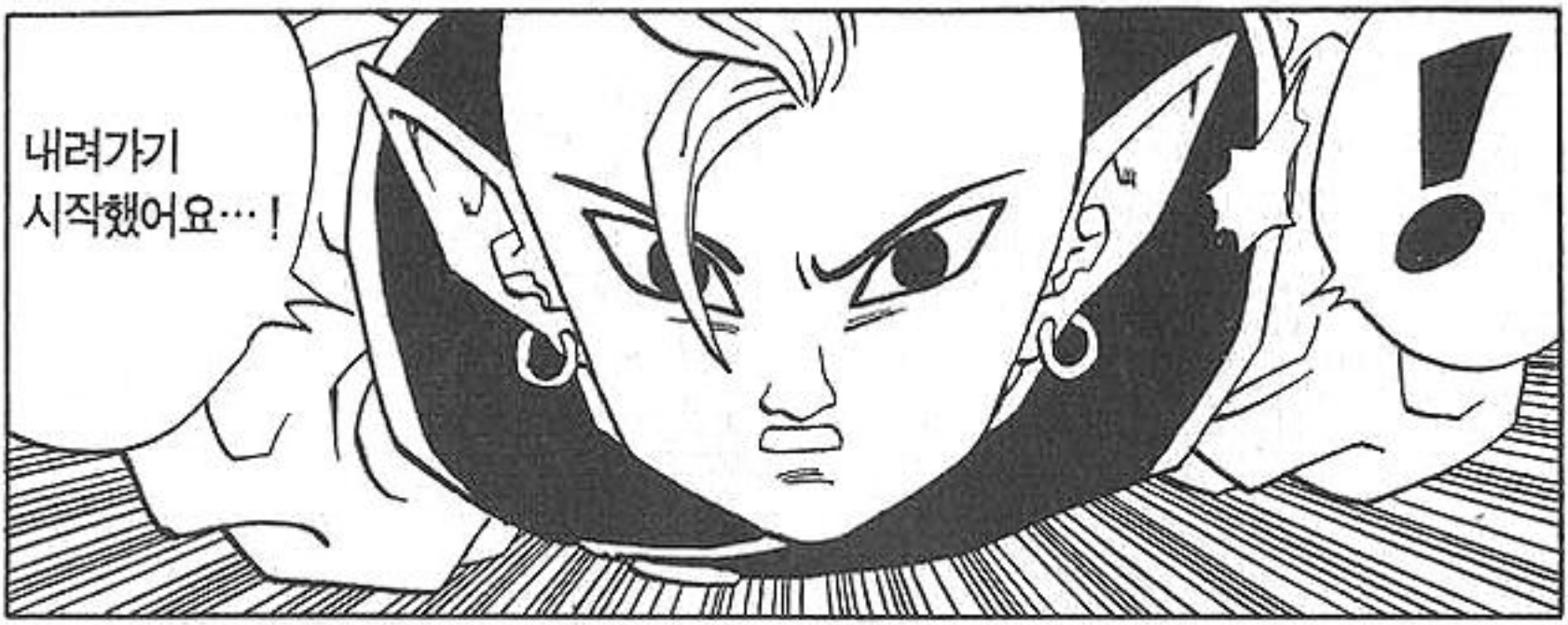
무술 대회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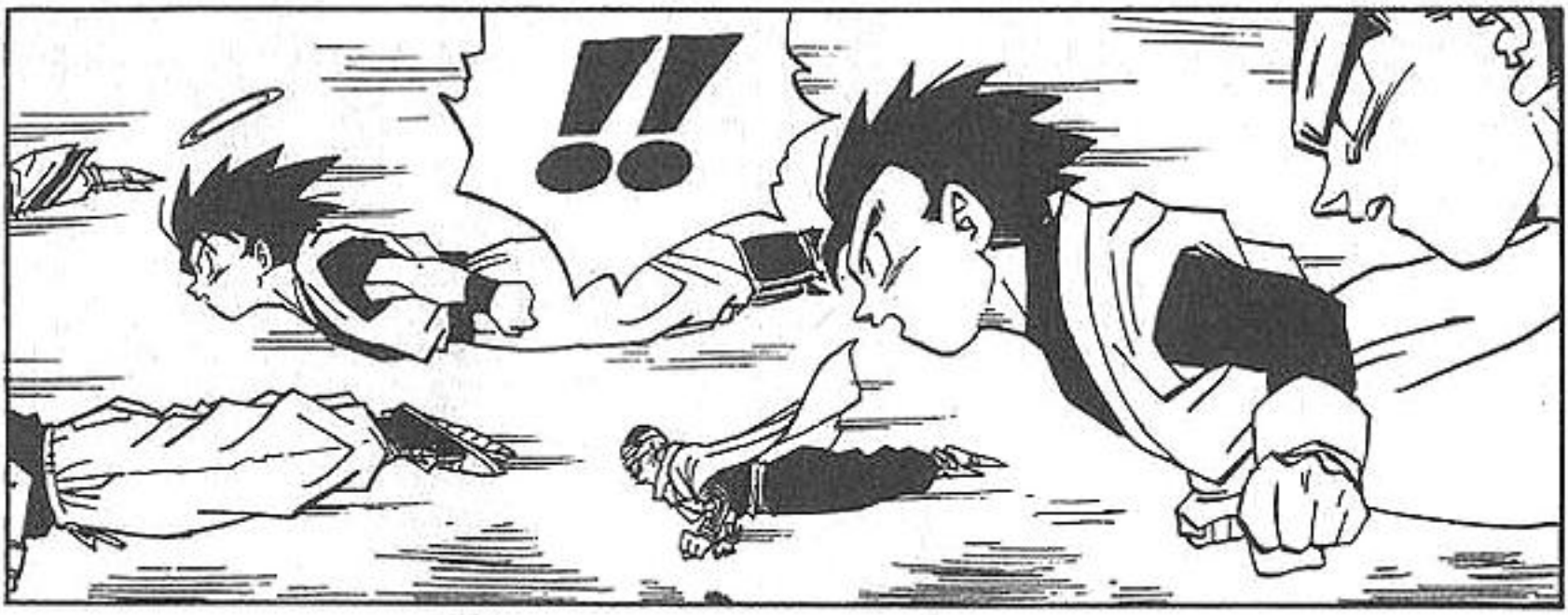

죽으면 안 돼, 오반….
무사히 돌아와야 나랑 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
휘----잉
세상에…! 저렇게 빠른 스피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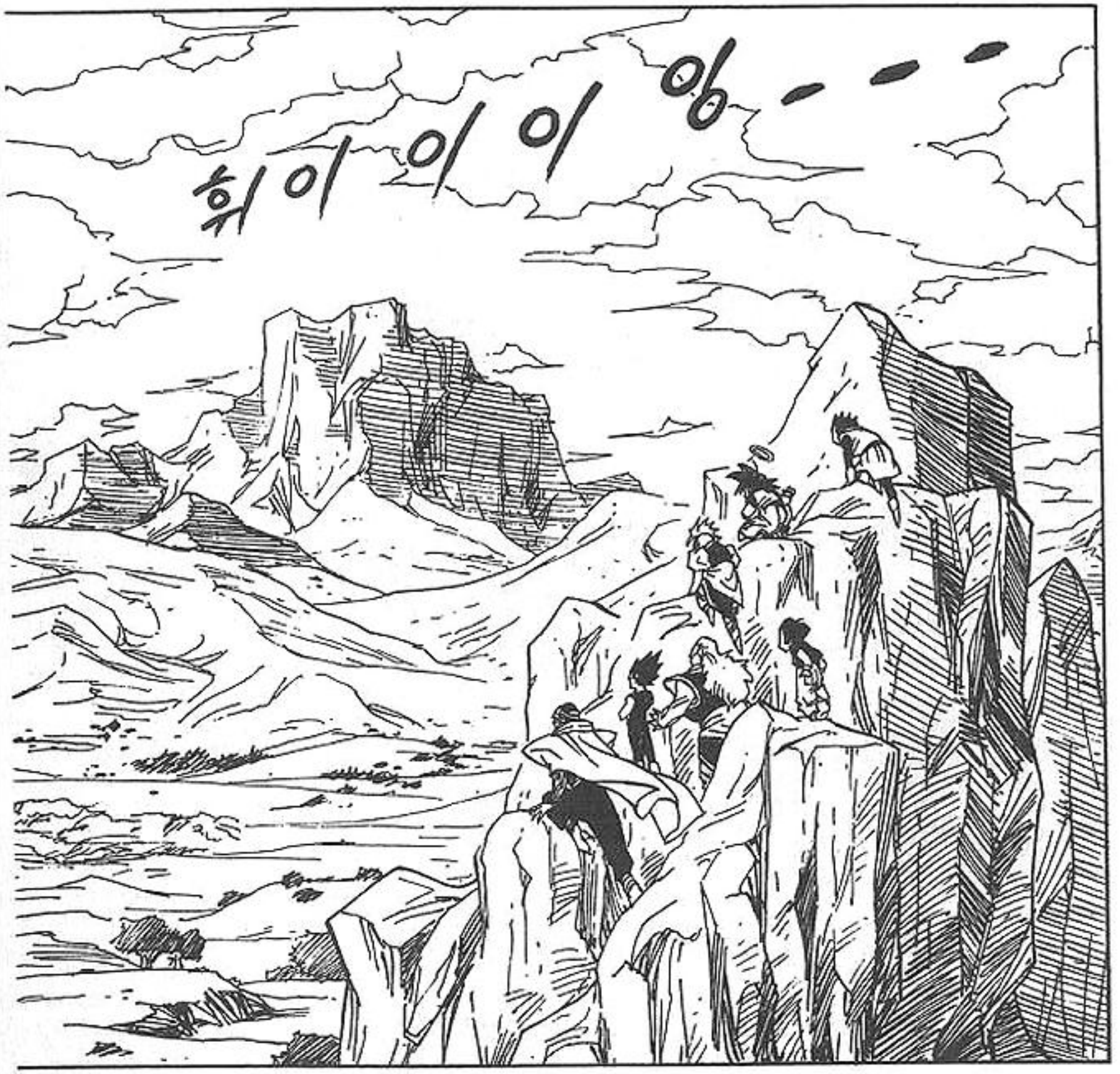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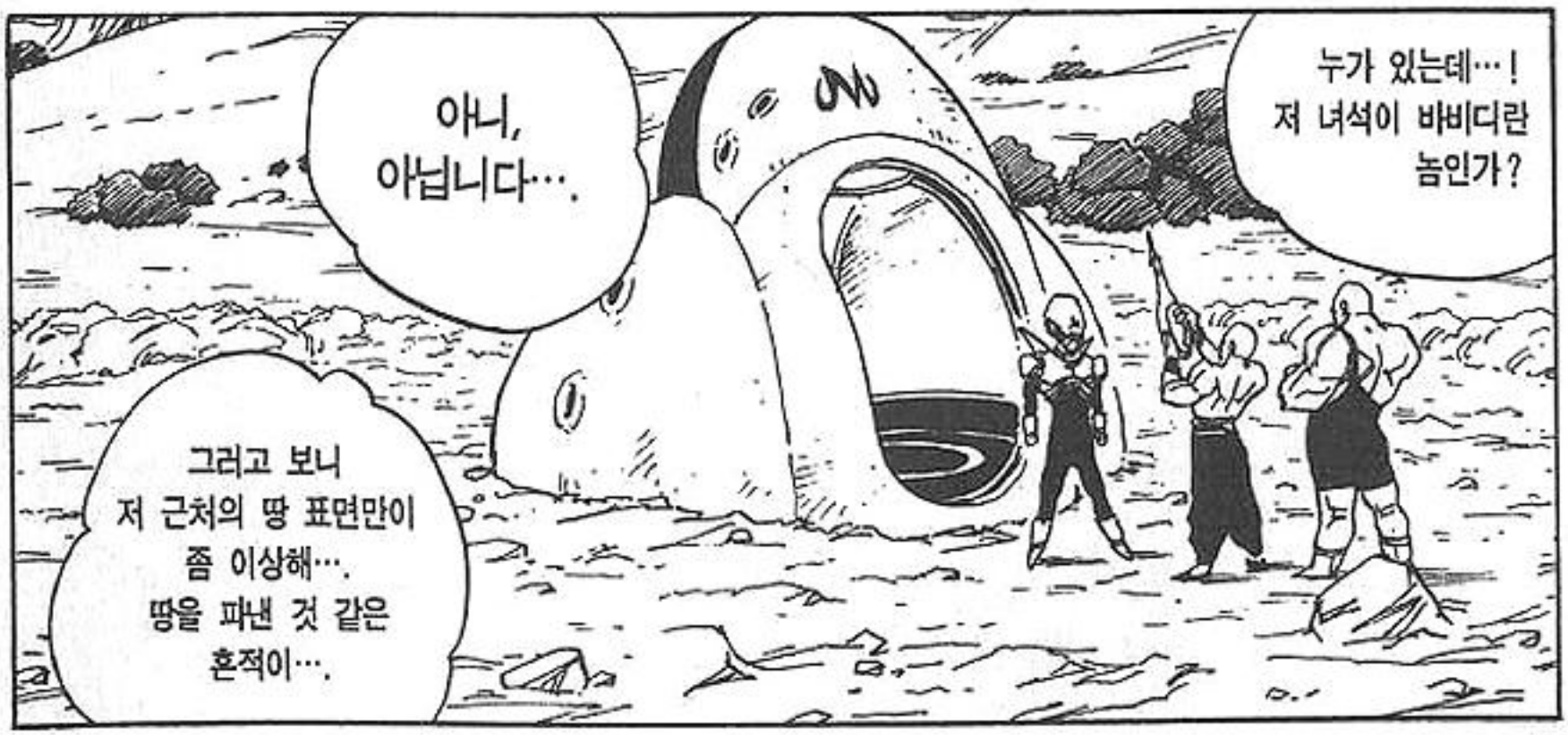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


!!


모두들
기를 죽이고
조용히 있어요.
알겠지?


이상한걸…?
이 근처는 이미
조사해본
곳인데….





휘이 이이 앙---

누가 있는데…! 저 녀석이 바비디란 놈인가?

아니,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저 근처의 땅 표면만이 좀 이상해…. 땅을 파낸 것 같은 흔적이….

오반한테서 뺏은 에너지로 마인 부우를 부활시키기 전에 빨리 공격을 시작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숨지 않아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에 쫓아온 걸 바비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찾아내질 못했던 거구…!

그렇구나…! 바비디 자식은 우주선을 땅 속에 숨기고 있었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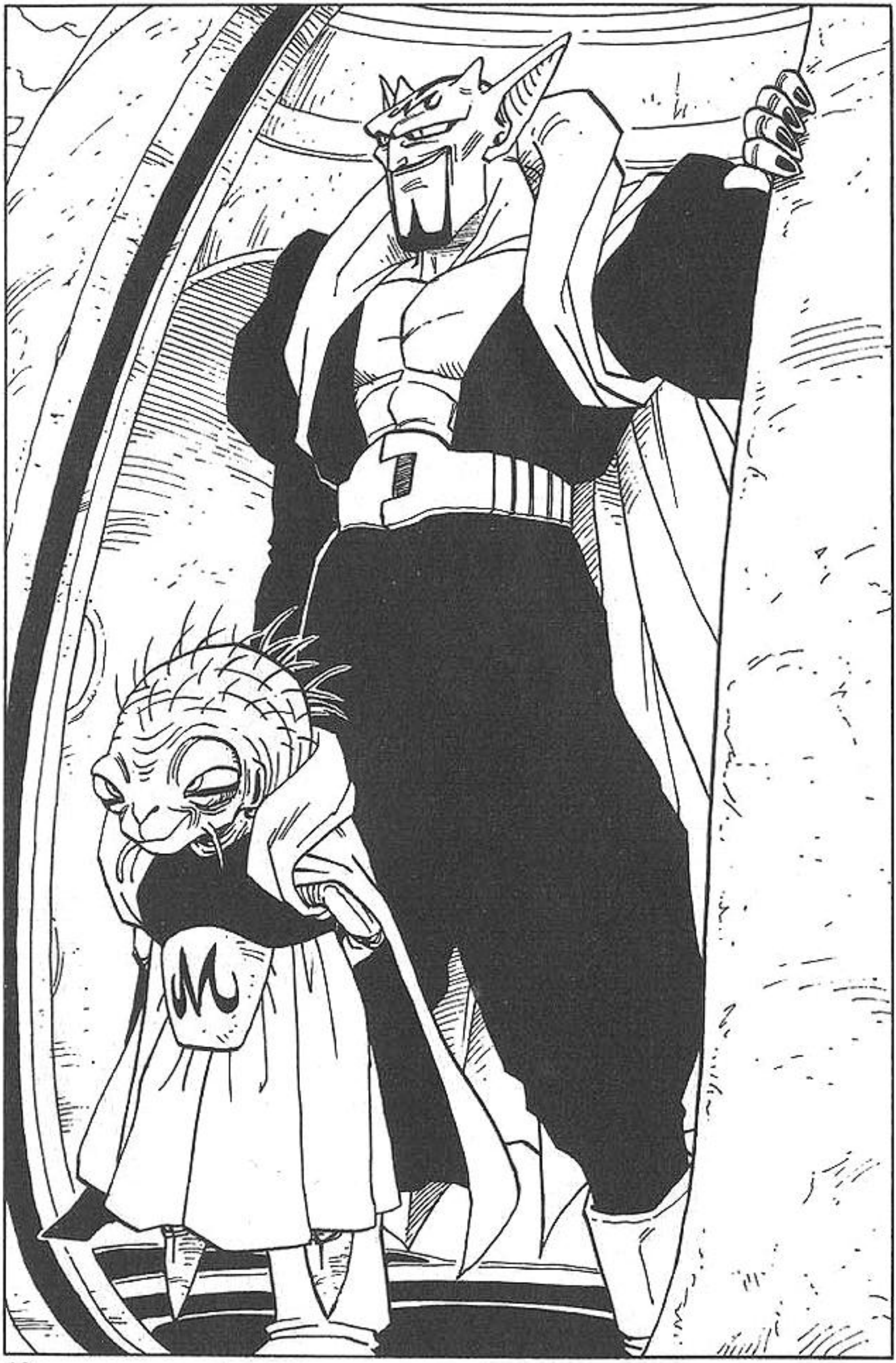
괜찮아요. 마인 부우를 부활시킬 때는 우주선이 부서지지 않도록 밖에서 실행할 겁니다…!

좀 더 상황을 살핀 다음 그 기회를 노립시다….

……

와이이!!

누가 나온다!!





제447화

예측했던 바비디







아니, 데브라가!?
바비디 자식이
마계의 왕까지
자기 부하로
만들어버렸나…?

으윽!!

서…, 설마
데브라까지…!

저 녀석, 강한가…?

그래요….

뭐!? 데브라? 저 덩치 큰 녀석 말이야?

이 세계에서의 1인자는 당신들 중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마의 세계에선 데브라가 완전한 캡을 먹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어쨌든 암흑마계의 왕이니까….

서…, 설마 굉장히 위험한 상대는 아니겠지…!? 그… 그렇지…?

마… 마계의 왕이라니…. 그… 그런 세계도 있었나…?

…….

저… 저 조그만 쪽이 마도사 바비디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저 녀석인가…? 저… 저런 형편없는 놈이….

맞아요….

저 데브라란 놈까지 부하로 만들 정도의….

분명 힘은 전혀 없는 놈이지만, 무서운 마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선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데브라는 안성마춤인 상대지….

아니…, 아마 상대방 마음 속의 악이나 욕심 등을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지배해버리는 마술일 거야….

그…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녀석까지 굴복시킬 정도의 마술입니까?

따라서 우리나 너희들처럼 마음 속에 악을 가지지 않은 자만이 녀석과 싸울 수 있지….

사실 바비디의 가장 무서운 마술은 그거야…. 아무나 스포포비치, 그밖의 부하들도 모두 그 마술에 지배를 받고 있어….

하지만, 데브라가 부하가 되었다는 건 정말 뜻밖입니다….

바비디와 데브라의 콤비라면 좀….

……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다는 건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걸…. 난 저런 녀석들한테 안 지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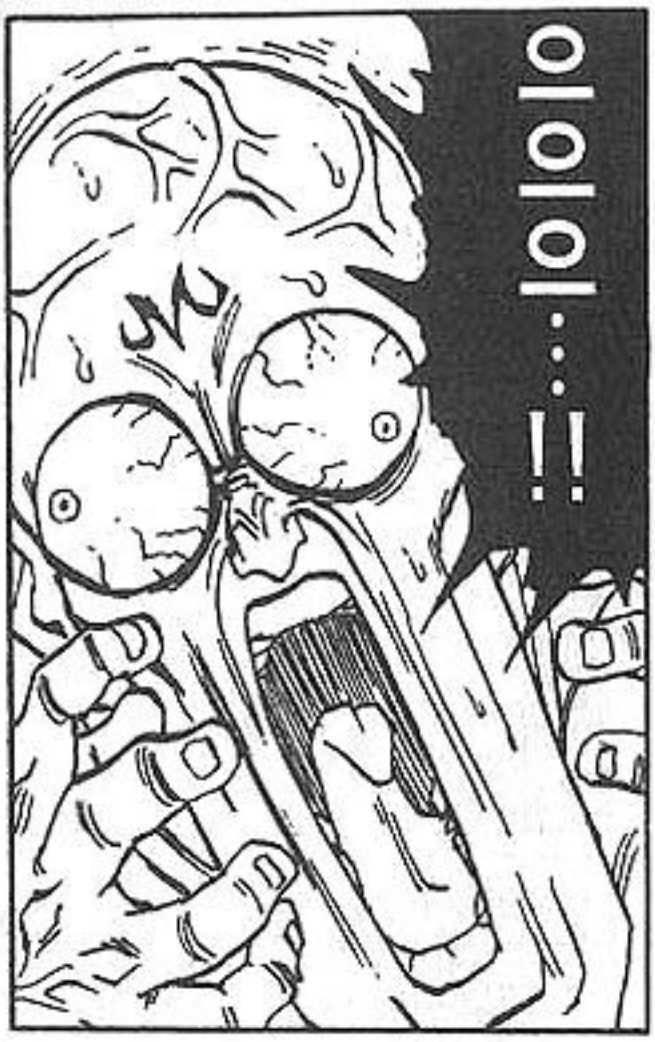
흥…. 마인 부우란 녀석이 부활하면 이 세상은 끝장이라고…?

여긴 내가 나설 무대가 아닌 것 같구나….

그… 그럼 그럴까….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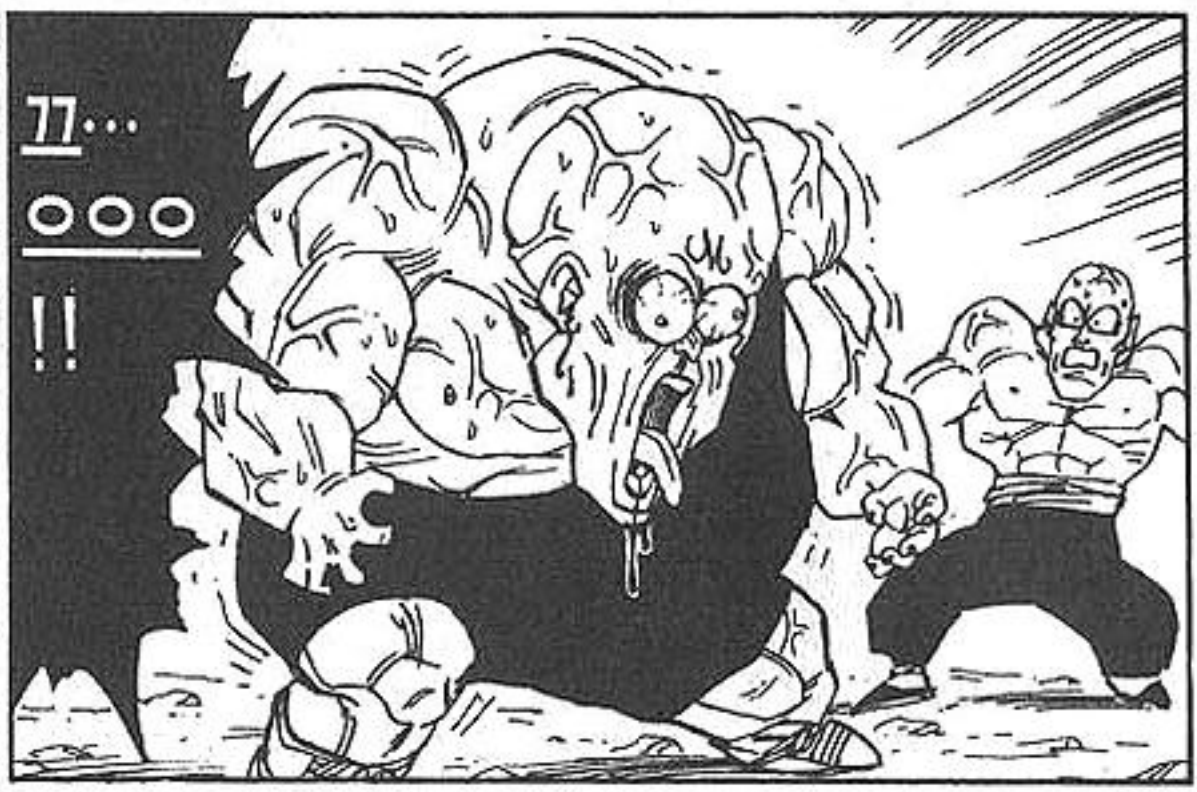
크리링, 넌 돌아가는 게 좋겠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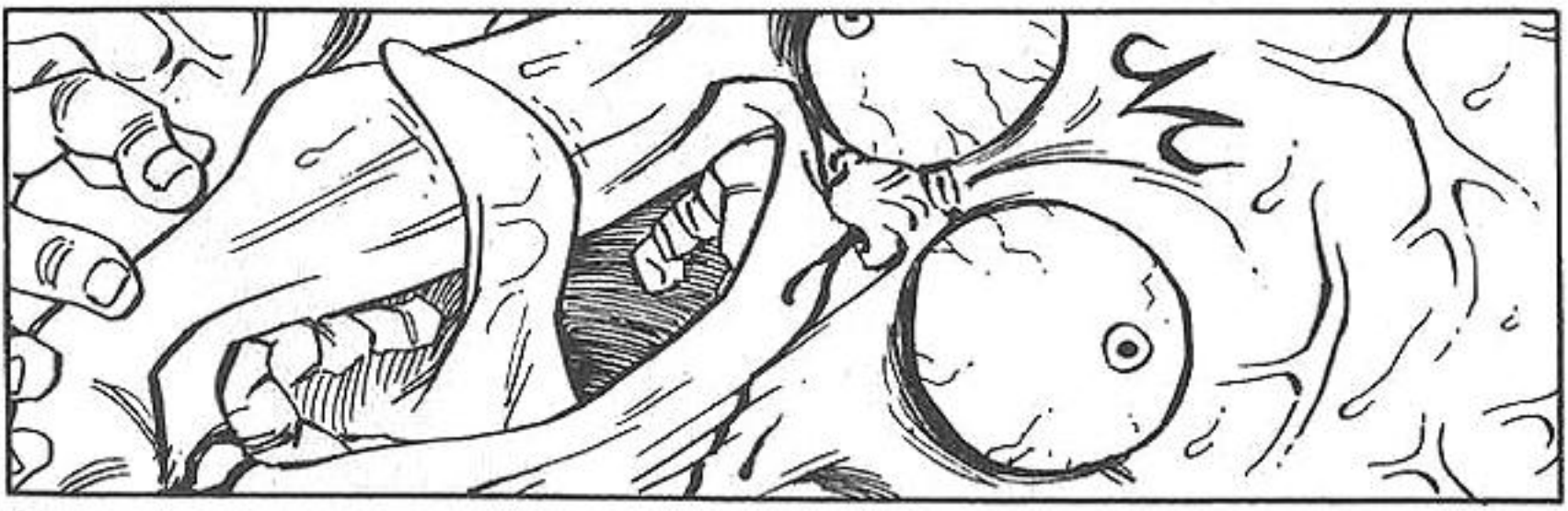

호호! 여기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왔군. 잘했다, 이제 마인 부우의 부활은 눈 앞에 온 거야.
예, 예!
뭘요, 우리에겐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씨익…
이제 너희들한테 볼일 다 봤다.
예!?
번쩍


으아아아…!!


으아악…!!




끄…
ㅇㅇ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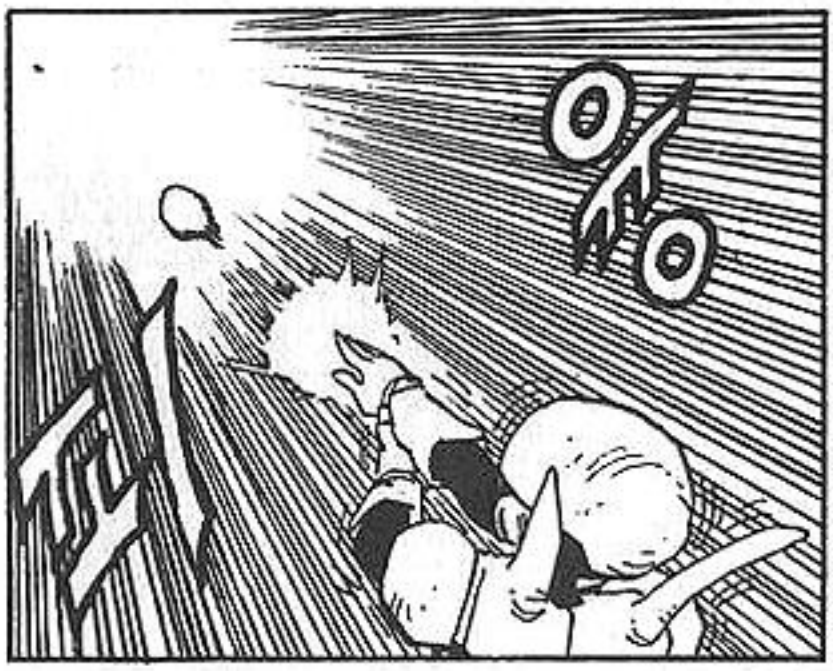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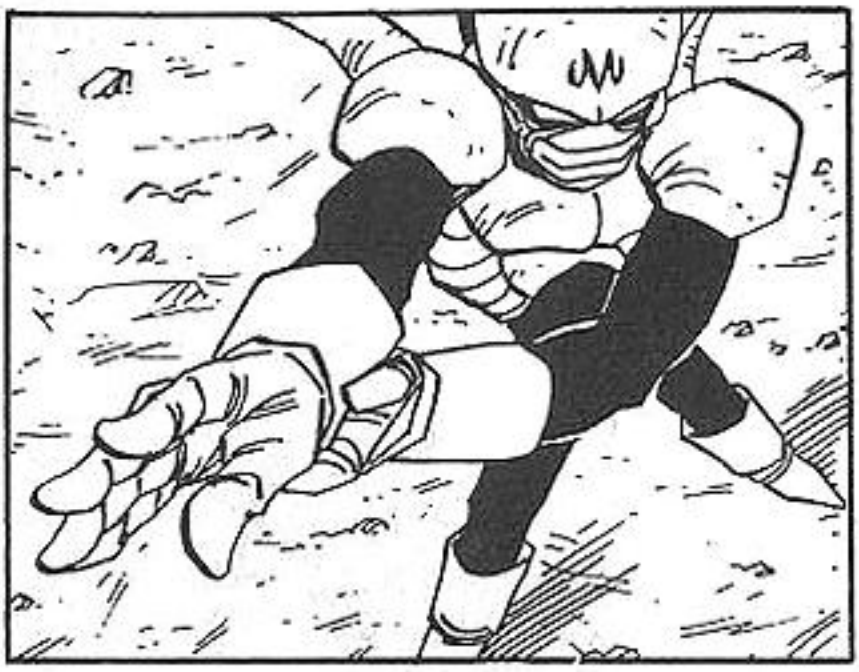


뻐엉
앗…!!
끄…ㅇㅇㅇ!!
'뻐엉'…이란 소린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야.
아악!!


처억


뿌이뿌이,
너도 한 번
해볼래?
예!!


퍽





나이스 플레이!

부… 부하를….

대단한 놈들이군…!

자, 데브라….

예!

역시 내 예상대로 야무 애들이 많은 사냥감들을 데려온 것 같다…. 먼 옛날, 내 아버지를 죽인 계왕신과 함께….

몰래 숨어있을
생각인 것 같은데….
모두 7마리입니다.
계왕신과 키비토의
에너지는 쓰지 못한다고 해도…,
3마리 정도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 3마리를 우주선 안으로
유인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하지만 계왕신이
가만 있지 않겠죠?

크히히….
마인 부우의 부활이
이렇게 빨리
가능해지다니….

그런 것 같군.
저 3마리만으로도
너무 충분할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왕신은
내가 나중에
천천히 죽여줄
거니까.

아참!
계왕신은
살려둬라.

과연!

저 3마리 이외의
쓰레기들은
모두 없애버려.
그리곤 곧장 우주선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3마리는 분명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널 쫓아
우주선 안으로 추격해
들어올 거다.

당신의
놀이감은
남겨놓죠….

알겠습니다,
바비디 님.

너도 안으로
들어와라,
제1스테이지를
시켜줄
테니까!

여긴 데브라
혼자서도
충분해.

바비디 님,
전….

그럼
잘 처리해!

예, 예!!

슬슬
시작해
볼까….

그럼….

예!









다음은, 제448화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키비토…!!
제길…!!
퐈
퐈

찰싹

!!

철썩

뭐야!?

조심해! 저 녀석 침에 닿으면…!!

뭐!?

으… 으아아아 …!!

으앗!!

큰일 났다!!

피콜로!
크,
크리링!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푸하하하
…!!

만지면
안 돼요!!

이… 이런
빌어
먹을…!!

만약
잘못 만져
부서져버리면
두 번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두 사람은
돌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 저 데브라가 죽지 않는 한은….

그… 그건….

그럼 두 사람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네!

부서지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런 간단한 방법이…!

그래? 방법이 있었네!

빨리 꺼져!!

바비디 님에겐 누구도 반항할 수 없다!!

뭐요!?

당근이지!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지!?

가자, 아버지!!

크리링 아저씨랑 피콜로 아저씨를 구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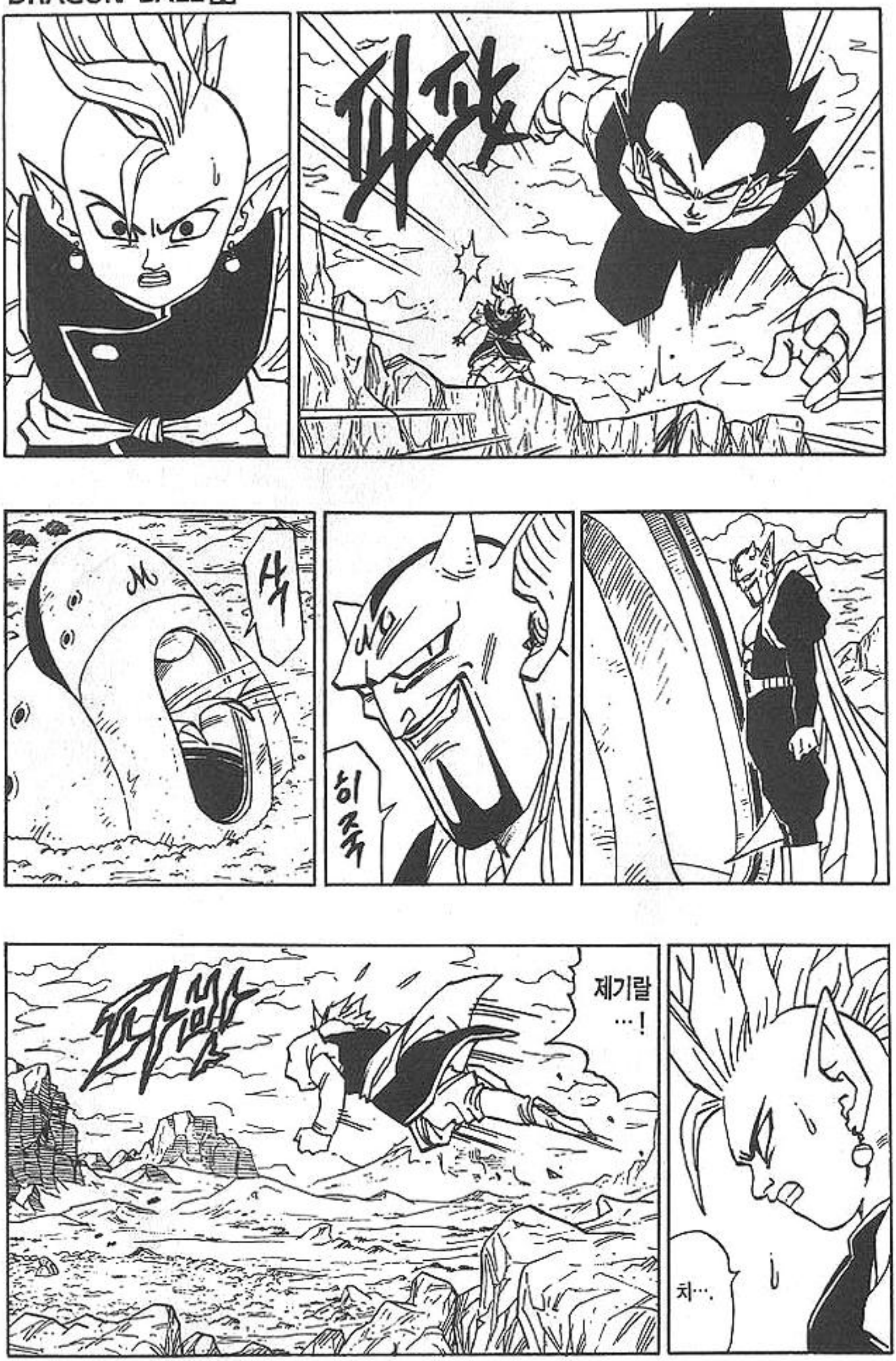
앗!!

퍼바밧

기다려요! 적의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주선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건 적이 노리는 겁니다!! 당신들에게만 아무 공격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

안 됐군. 우린 앉아서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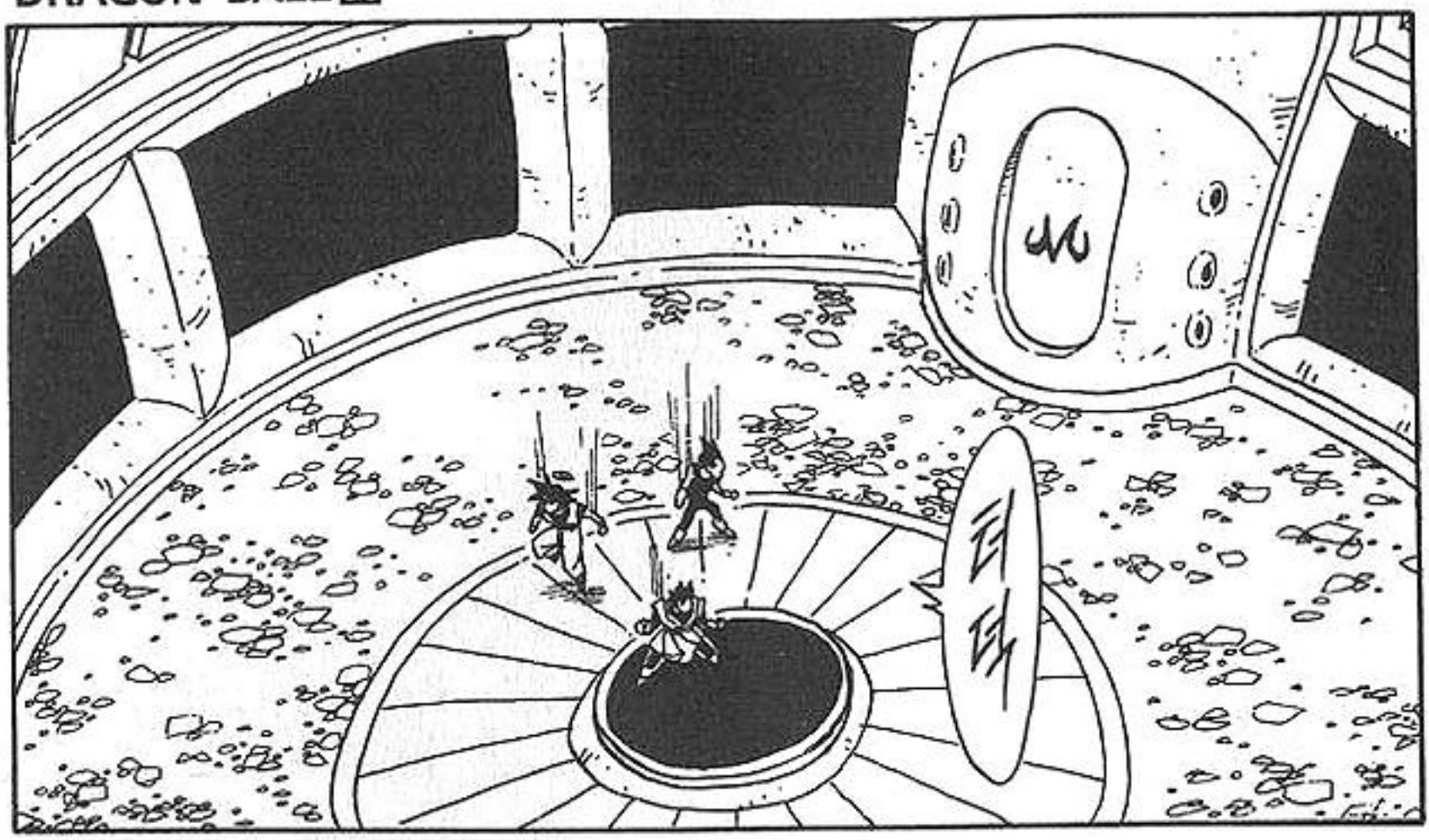

제기랄
…!
치….

좋아, 가자!

예!

오호호! 왔구나, 왔어.

정말 단순 무식한 바보들이구만.


저쪽에 문이 하나 있어.
상당히 깨끗한 방이네.
여긴 뭐야…?
부수고 들어 가보자!
뭐야, 계왕신님도 결국 따라왔잖아!
당신들처럼 막가파는 처음 봐요….
어!?

만약의 경우엔
이 우주선을
박살내 버리고
나가면 되지,
뭐~!

흥….

이 우주선은
한 번 안으로 들어오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바비디를 해치우지
못하는 한….

뭐라고…!?

안 돼요!
강한 충격을 받으면
마인 부우가 눈을
뜨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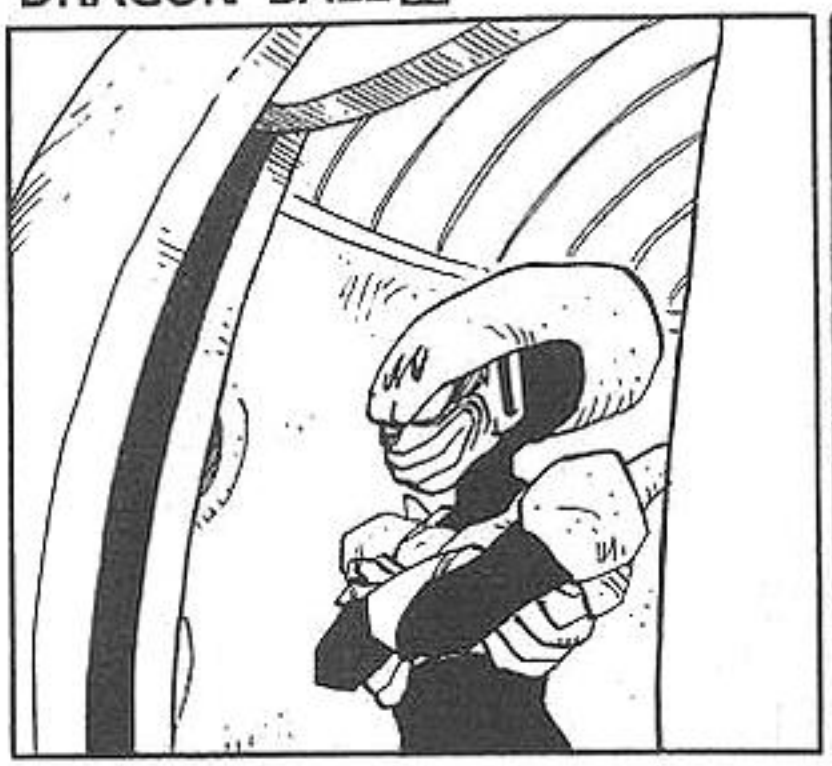
아직 에너지가 충분
하지 못하다곤 해도…,
그래도 우릴 죽이고
짧은 시간 안에 이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의
파괴력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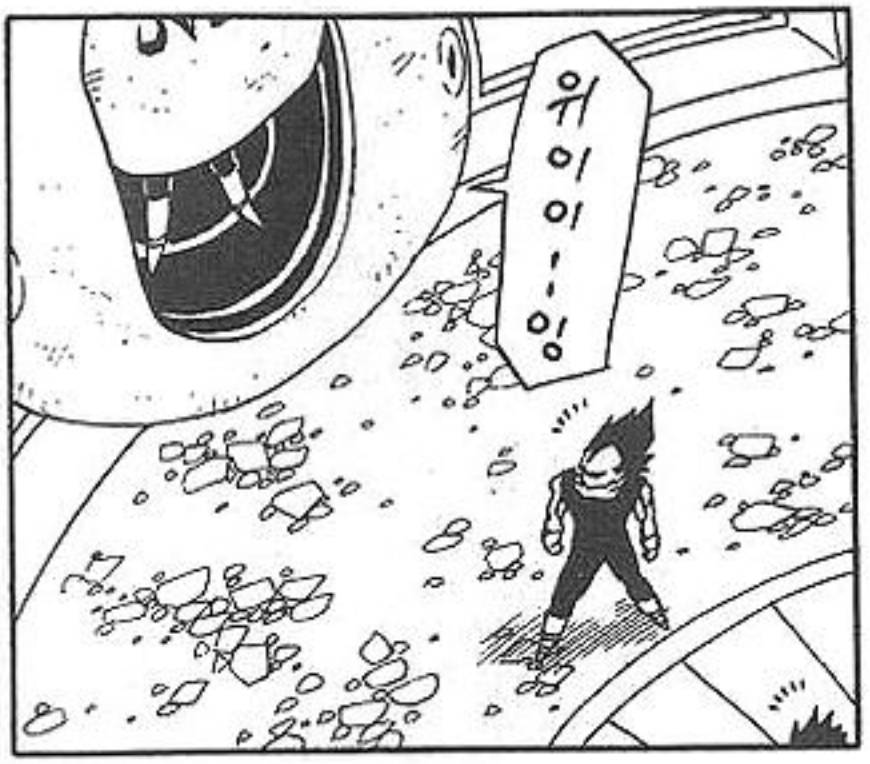
키히히히…!
계왕신 녀석도
왔네….

자, 뿌이뿌이!
녀석들한테
에너지를
뺏어라!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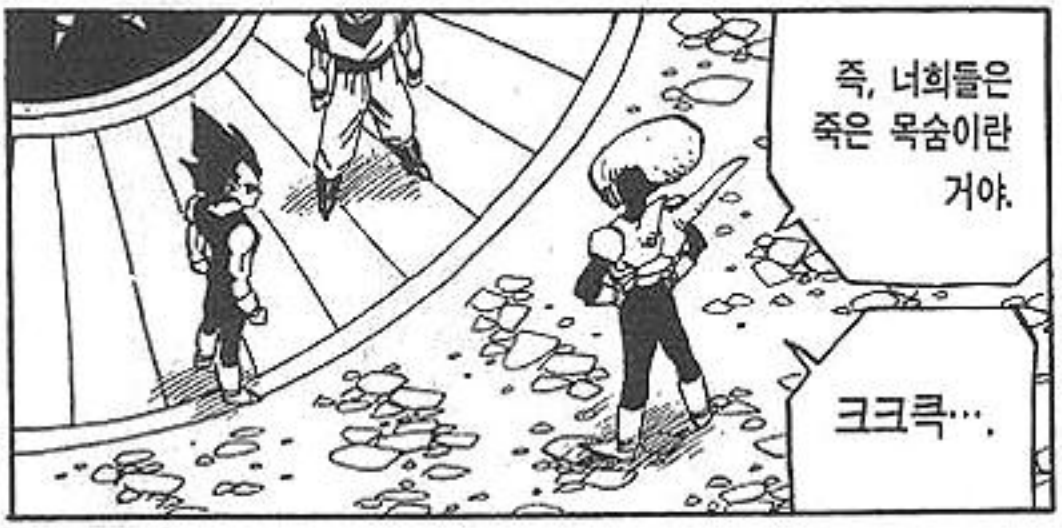
맡겨
주십시오!




위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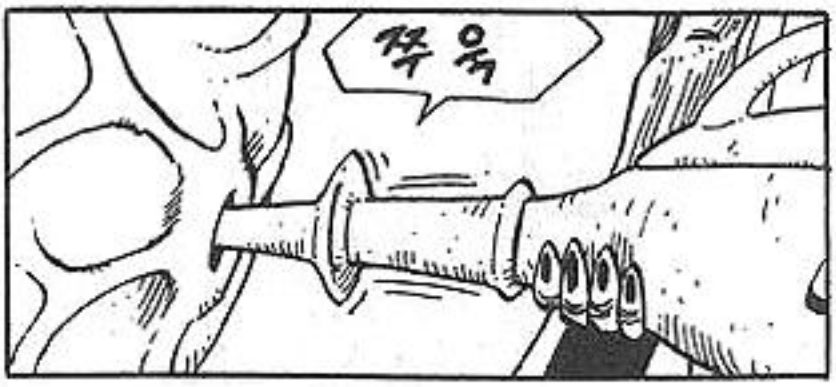

밑으로 내려갈 수 없게 돼있지….
안 됐지만, 날 이기지 못하면….


단….
바비디 님이 계신 곳은 여기서 가장 밑에 있는 층이다….


즉,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란 거야.
크크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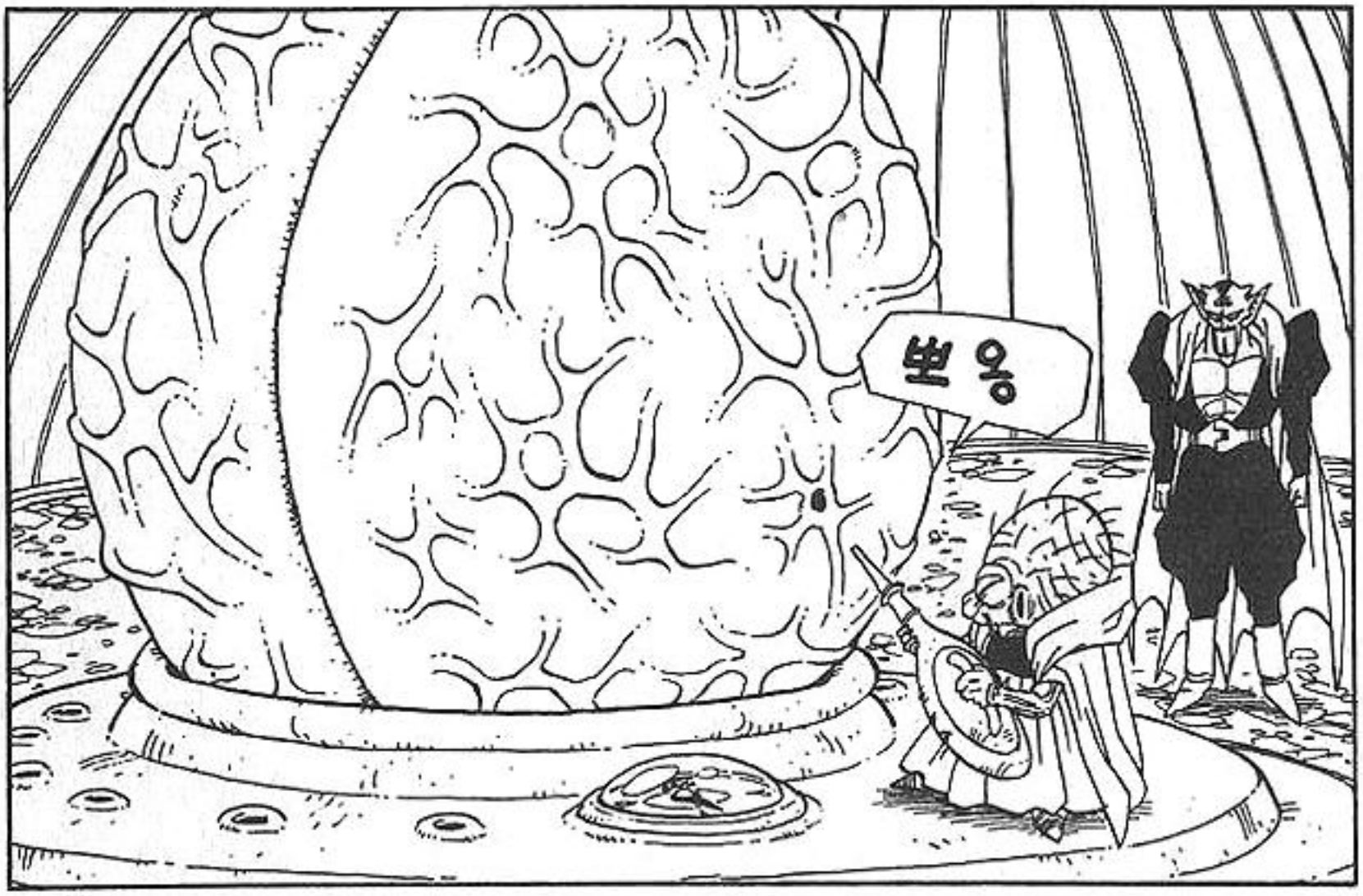

아마 그런 일은 없을걸!
놀구 있네!

다음은, 제449화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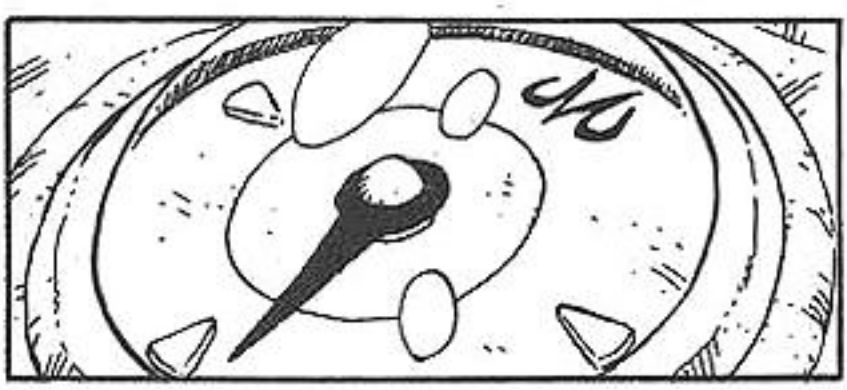

쭈욱




뚜뚜뚜뚜


뽀옹





뭐요!?

이, 이럴 수가!
단 한 번에
이 정도의
에너지가…!!

단숨에
반 가까이 에너지가
채워졌어…!

도대체 이루와
스포포비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 에너지를
모은 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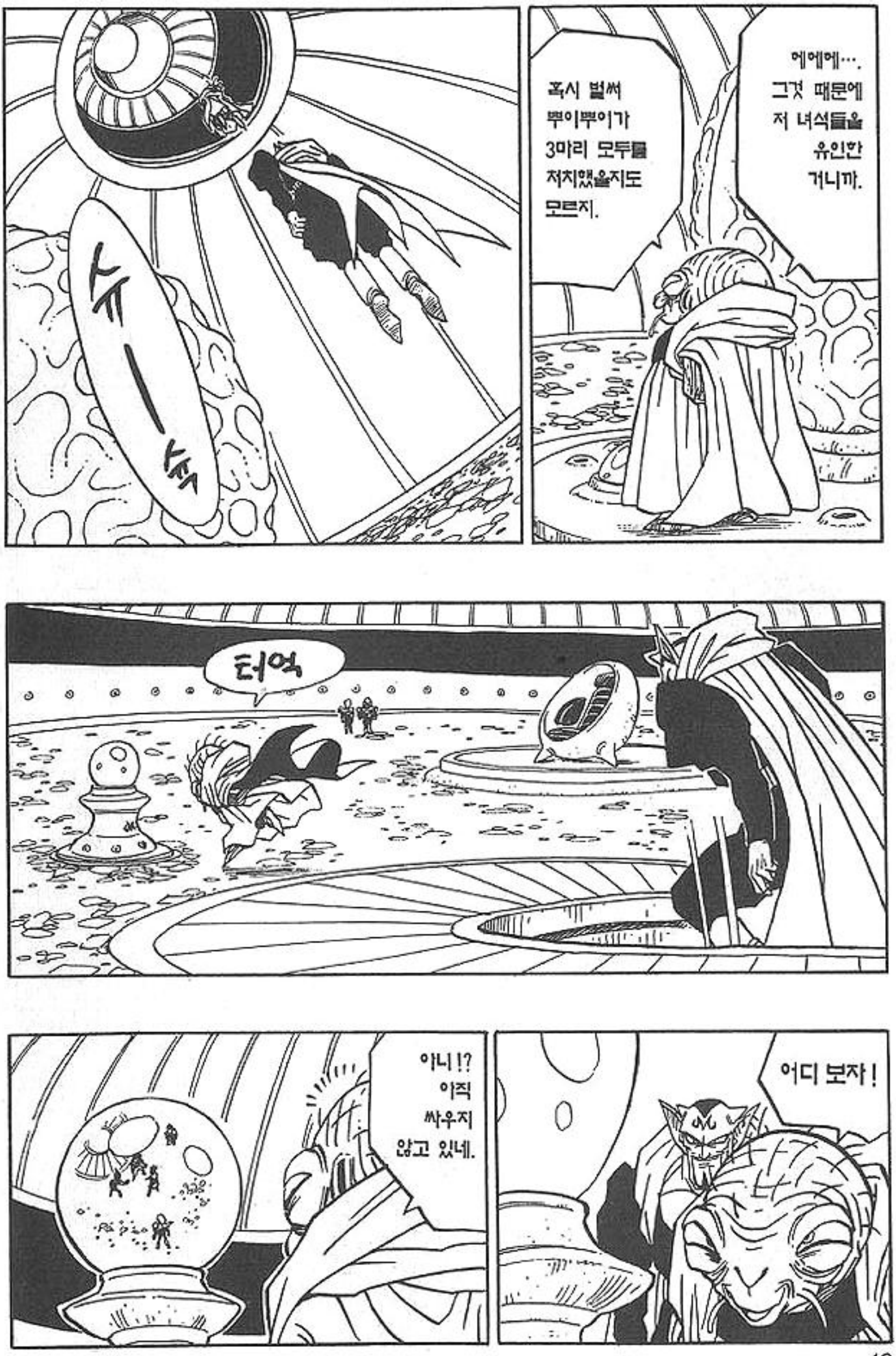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거대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녀석들이라면 괜히
죽여버렸네….

칫….

마인 부우의
부활도 잘 하면
오늘 안으로
실현될
거라구요.

무슨 말씀을!
걱정 마세요.
지금 스테이지에 있는
3마리의 에너지를 모으면
거의 가득찰 겁니다.



에에에…. 그것 때문에 저 녀석들을 유인한 거니까.
혹시 벌써 뿌이뿌이가 3마리 모두를 처치했을지도 모르지.
슈—슈
터억
어디 보자!
아니!? 아직 싸우지 않고 있네.

……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앗! 쳇….

……

좋았어! 내가 먼저다.

저… 저놈들, 뭐 하는 거야…?

후히히히히…! 바비디 님은 너희들이 강한 에너지를 가진 놈들이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멍청한 놈들뿐인 것 같군….

당근이지! 저런 녀석쯤은 나 혼자서도 충분해.

호, 혼자서 싸울 생각입니까?

적을 물로 봐선 안 돼요! 바비디는 주변에서 강한 전사들만을 모아 자기 부하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글쎄…. 됐으니까 걱정 말고 베지터한테 맡겨봐.

멍청한 건 바비디 녀석이다. 이제 곧 자세히 조사 안 해본 걸 후회하게 될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하필 이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말야.

가장 강해!? 크하하하! 이거 정말 본격적으로 정신나간 놈이네!

크후후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충격은 에너지로 변하여 이 방이 흡수하고….

마인 부우 님이 봉인된 구슬에 들어가도록 장치되어 있다….

그 얘길 들으니 안심인데….

충격만 안 받으면 에너지는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래…, 맞아.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씨익…!

에헤헤헤헤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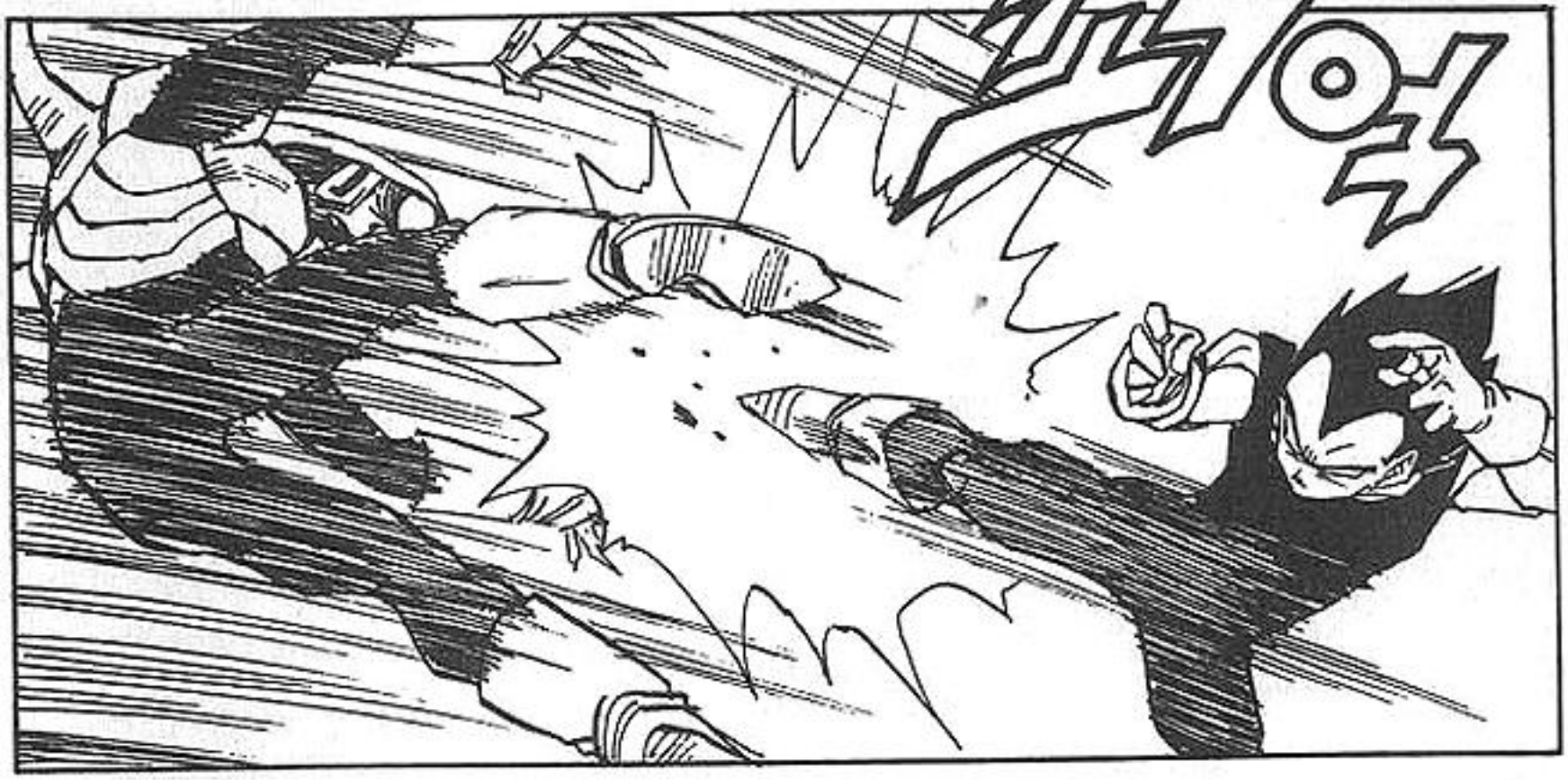
어서 덤벼!

쓸데없는 잡소리는 그만 하고, 빨리 네 녀석을 없애야겠다.

이얏!!




주먹


퍽


털썩
으헉!


퍽
퍽
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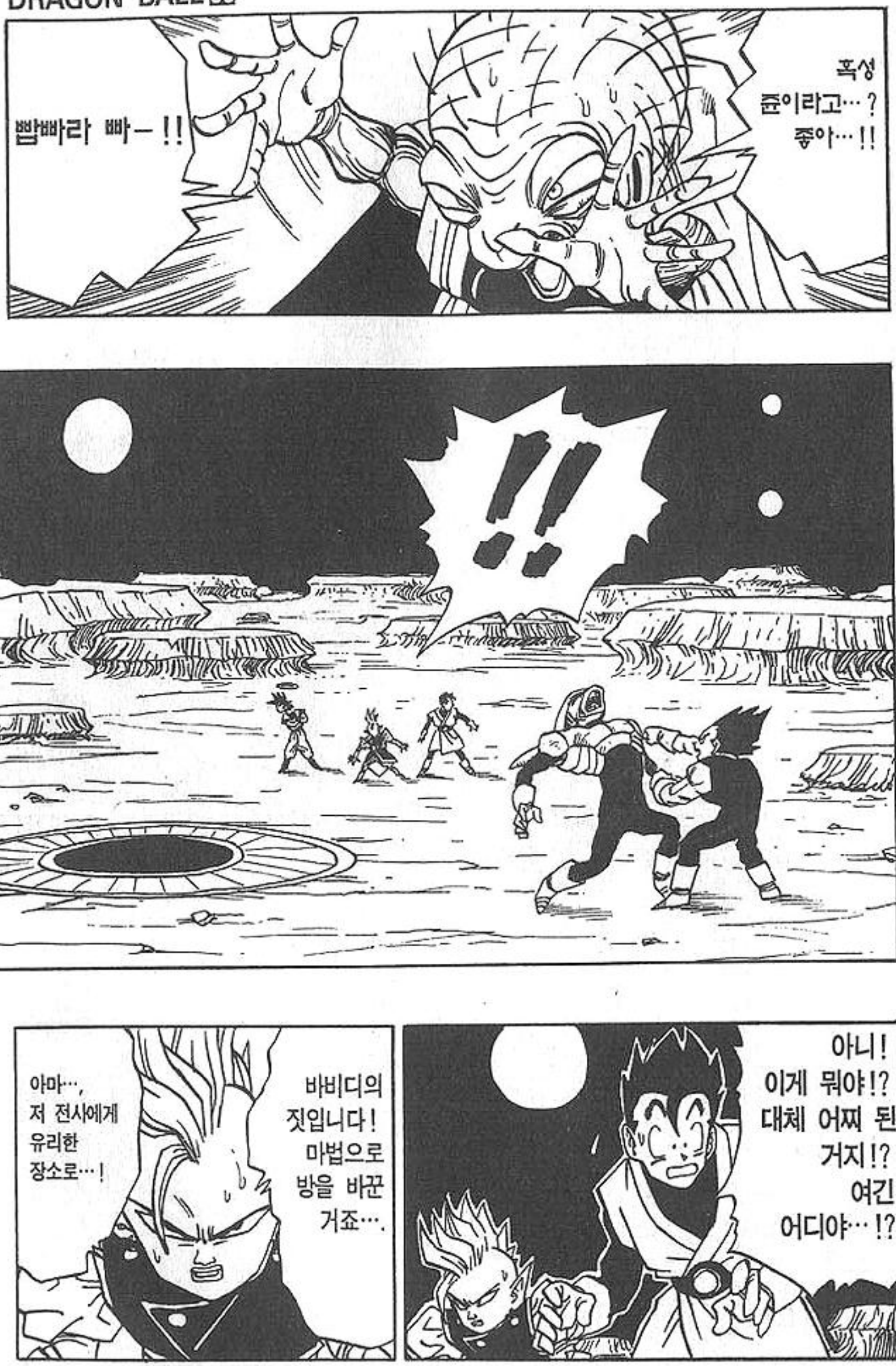
칫…!!

파파팟

휘릭

퍽


여기다, 멍청아!
!!
아니…!
아….
야! 쿠이쿠이가 싸움 제일 잘하는 장소가 어디지?
고중력 혹성인 쥰입니다!


혹성 쥰이라고…? 좋아…!!
빱빠라 빠-!!
!!
아니! 이게 뭐야!? 대체 어찌 된 거지!? 여긴 어디야…!?
바비디의 짓입니다! 마법으로 방을 바꾼 거죠….
아마…, 저 전사에게 유리한 장소로…!

여, 여기 중력은 지구의 10배야 …!!

난 이 별에서 자랐지!!

아하하! 이, 이제 끝났다!

사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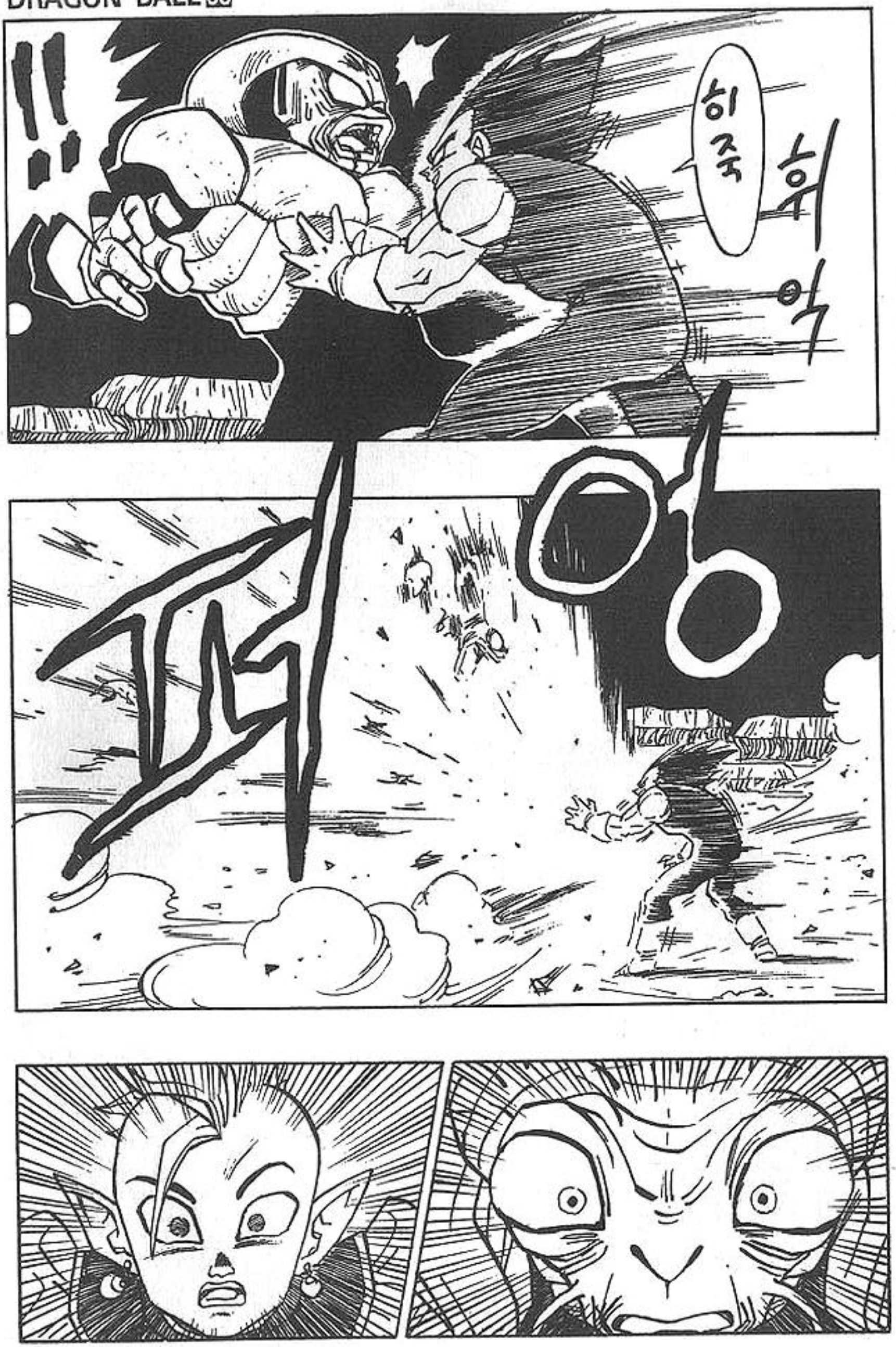
뻥인지 어떤지 보여주지.

거, 거짓말 마! 누가 너 뻥치는 거 모를까봐!?

!!

그게 뭐 어떻다는 거니…?

겨우 10배의 중력 따위는 내겐 간에 기별도 안 가….


!!
히죽
휘익

홍….

바비디 자식, 허약한 놈을 보내다니….

아니, 저것 봐! 밑으로 통하는 구멍이 열렸다!

위이이---잉

엘리베이터 처럼 돼있네!

이…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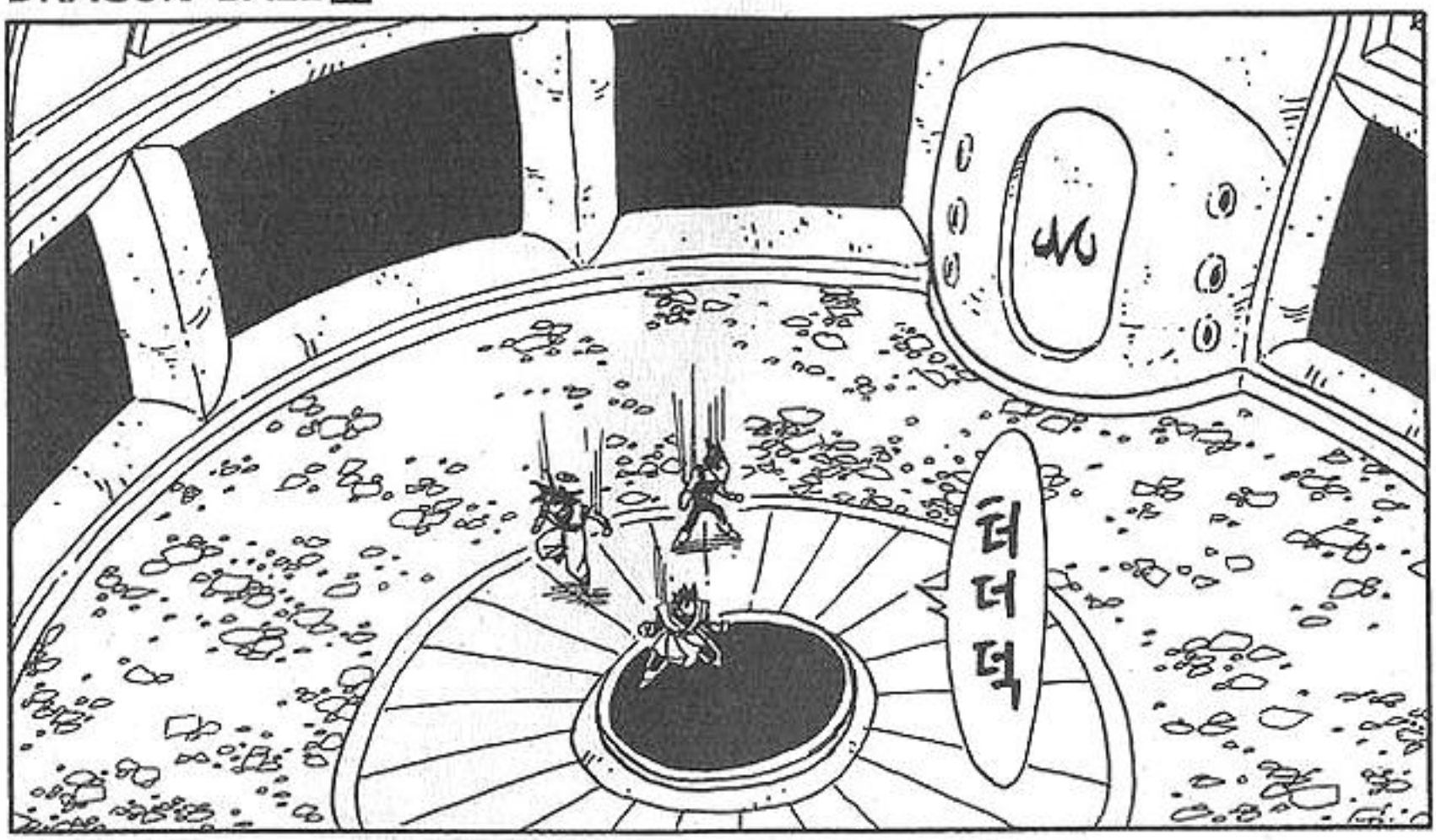
이렇게 엄청난 파워일 줄은….

계왕신님, 빨리 가자-!!

형편없는 게임이야.

이거. 어쩐지 전자오락 같은 느낌인걸.




더더덕


300년쯤 전에 조사할 때는 허접스런 쓰레기같은 놈들만 있었는데요….
어, 어떻게 지구에 저런 힘을 가진 놈이 있었지…!?


이거 뭐야! 또 방금 전이랑 똑같은 방이잖아.
아, 하지만 방금 전처럼 마법으로 방의 구조를 바꾸지 않을까?


만일의 경우엔 제가 직접 나설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정도는 걱정 마십시오. 아직 스테이지가 3개나 남아있고….



제450화

스테이지2(투)의 야콩



이것이 바비디 우주선의 비밀이다!!

출입구

땅속

조종실

바비디의
명상실

바비디의
방

데브라의
방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전사들의
방

전사
대기실

바비디의 사령실

선내에서 흡수된 선(善)의
에너지는 모두 부우의
구슬에 모이도록
되어 있다.

마인 부우가
봉인된 구슬

출입구

출입구

스테이지2의
전사는
누구입니까?

야콩을
보내겠다….

……

뿌이뿌이
같은 애가
상처 하나
못입히고
녀석들에게
당했잖아….

저 지구인
녀석들을
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스테이지2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야콩을
써버리는
겁니까!?

야콩!?

과연…. 하지만
야콩이 나서면 녀석들
모두를 금방 해치워버려
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스테이지 2는 야콩이다! 연락해라.

예!

지금은 죽기는 것보다 마인 부우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

하하하! 죄송합니다.

야, 아직 멀었냐? 빨리 나와라-!

이 따위 쓸모없는 바닥은 부숴버리고 단숨에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

예!?

데브라가 …!? 대체 무슨 얘기죠?

이 꼴이라면 마인 부우란 녀석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

흥….

데브라란 녀석처럼….

좀 전에 말했듯이 강한 충격을 주게 되면 풀 파워가 아니라도 마인 부우가 부활….

아, 안 돼요!

아까 밖에서의 공격이나 움직임을 봐선 녀석의 침만 조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키비토는 얼간이라서 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그 데브라란 놈은 당신들이 두려워 하는 만큼 대단한 녀석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야.

으….

그래…. 아까 데브라가 전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해도…, 아마 옛날 같으면 무서운 상대라고 생각했겠지만….

저…, 정말 입니까? 손오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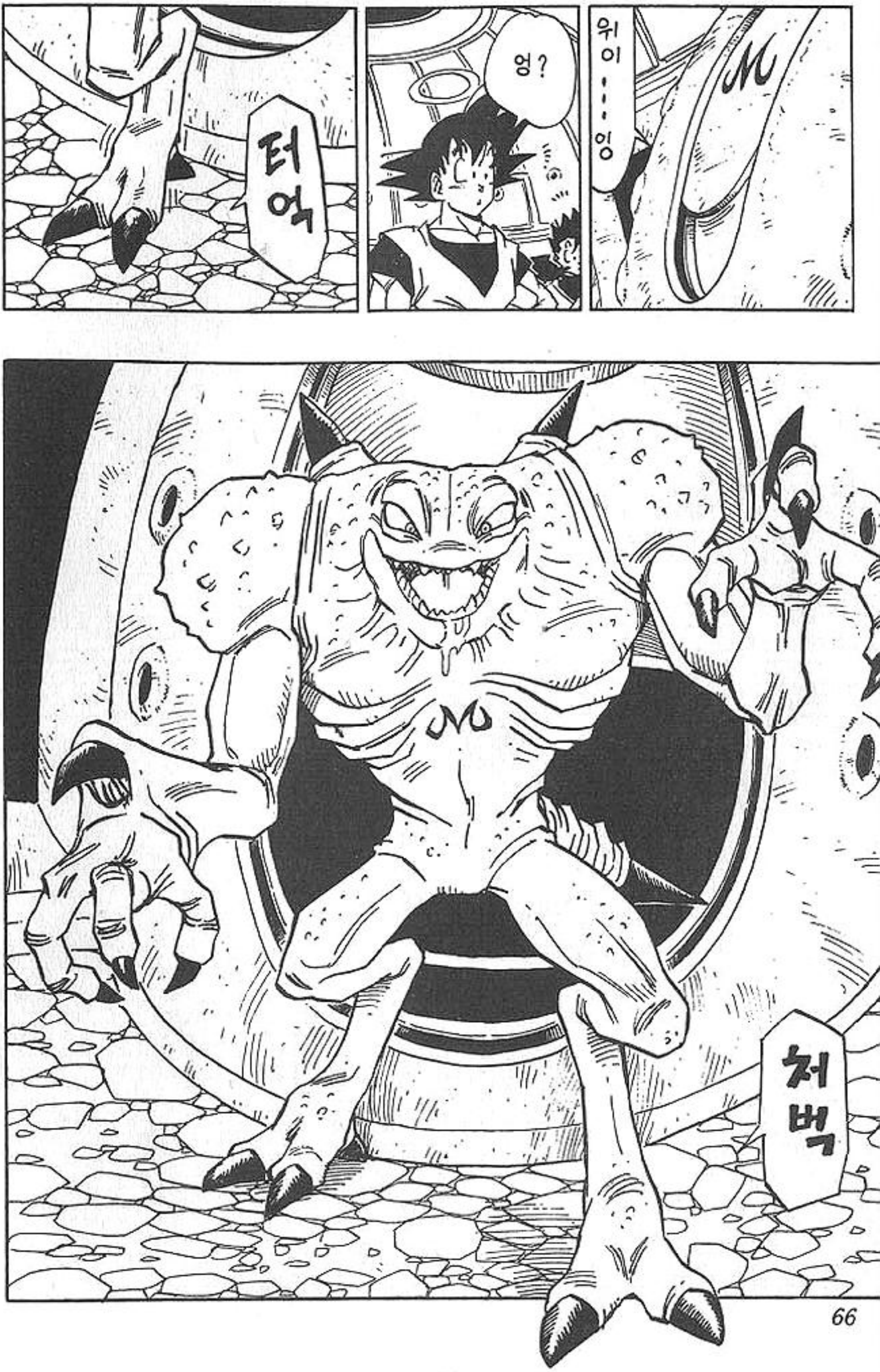
그러고 보니 초사이어인이 된 손오반의 동작을 중단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것도 아직 전력을 다 한 게 아니었단 말야…?

미…, 믿을 수 없다! 초사이어인이란 그 정도까지 강한 것인가…?

7년 전 셀이란 녀석이 있었지…. 아마 그 녀석 정도의 파워라고나 할까…!

이번엔 내 차례란 말야~!!

이 봐~! 빨리 시작 하자니까!!



위이…잉
엉?
터억
처벅

푸슈—

샤—읏

저벅

샤—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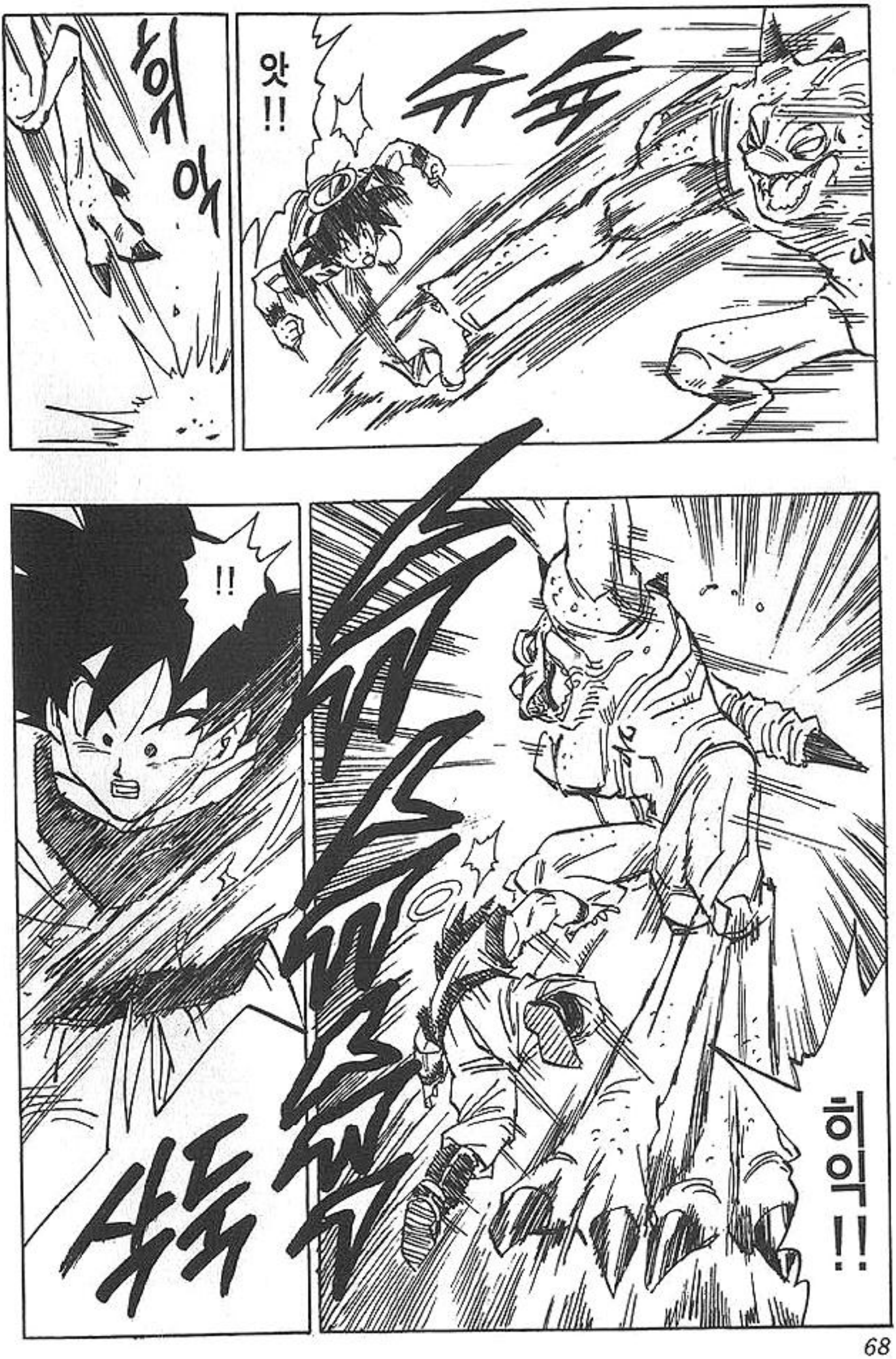
히야~!
이건 또
뭐야~!?

웬지
둔하게 생긴
놈이네….

내가
네 녀석
상대다!

크호호호…!
언놈부터
먹어줄까?

저… 저건!
혹시 야…
야콩….
마수
야콩이라니!



앗!!
!!
히익!!

크, 큰일날 뻔했네~!!

후유~!!

터덕

호오~! 저놈, 몸에 비해 무척 빠르다~!

모두 함께 덤빕시다!!

아. 아니. 전혀 염려 없겠어요.

아버지 혼자서도.

……

케헤헤헤…!!

저런 낫같이 생긴 손톱이 튀어 나오는구나…!

역시 너 다워~!

잘 한다, 야콩!

그렇다면 더욱 겁을 준 다음 한방에 놈들을 없애버려야지!

후후후…! 녀석들, 떨기는….

크흐!

승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지금부터 네가 가장 좋아하는 완전한 어둠의 세계인 암흑성에 데려가주겠다!

이제 틀림없이 마인 부우는 부활할 것이다!

계왕신 이외엔 모두 죽여버려도 좋다! 에너지나 철저히 뽑아내라!

난 꼭 본래의 최강 파워로 마인 부우를 부활시키고 싶어.

그러나 우주선 안에서 싸우다 만약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마인 부우가 아직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활하게 돼버린다.

암흑성이 아니라도 야콩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텐데요….

하하!

그래….

후후…! 과연.

그럼 가볼까!

뽑빠라 빠—!!

이…
이것 봐!

앗!!

정말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새까만
암흑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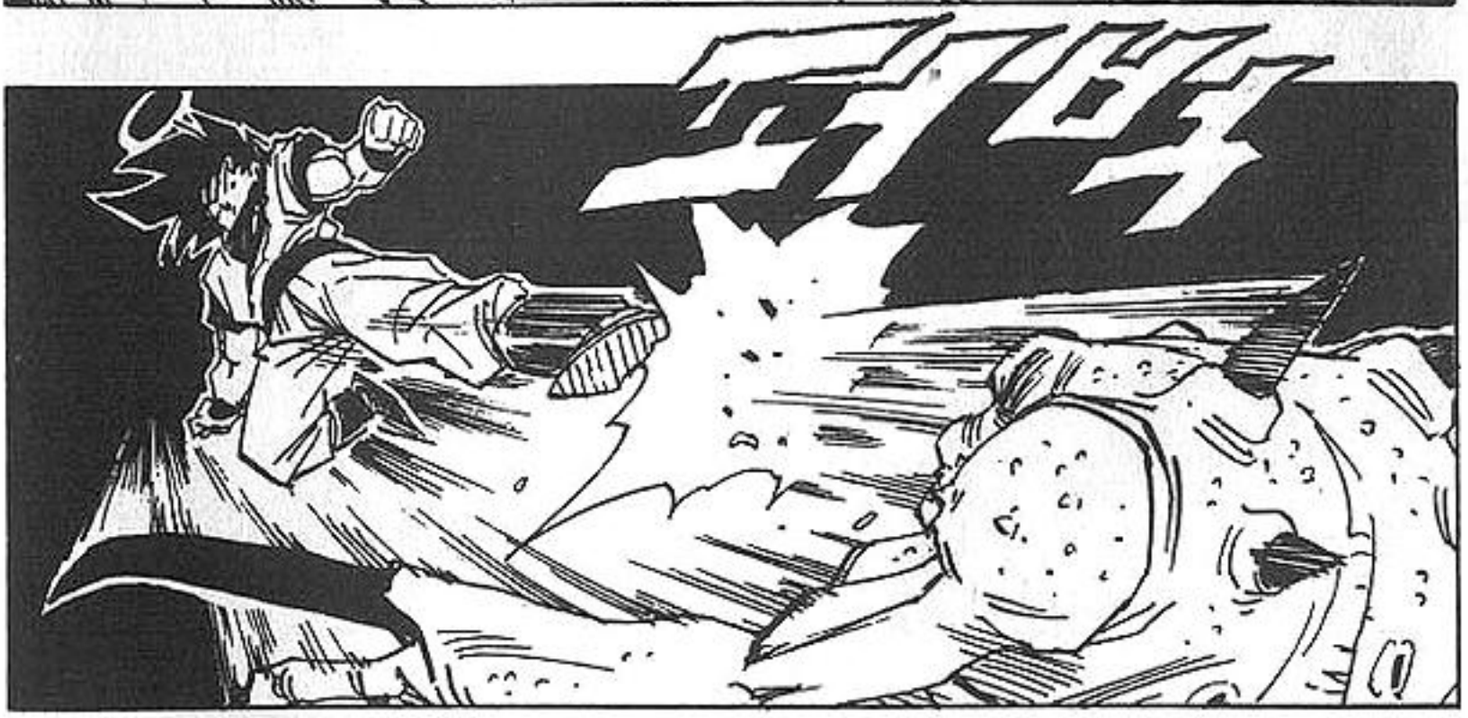
퍼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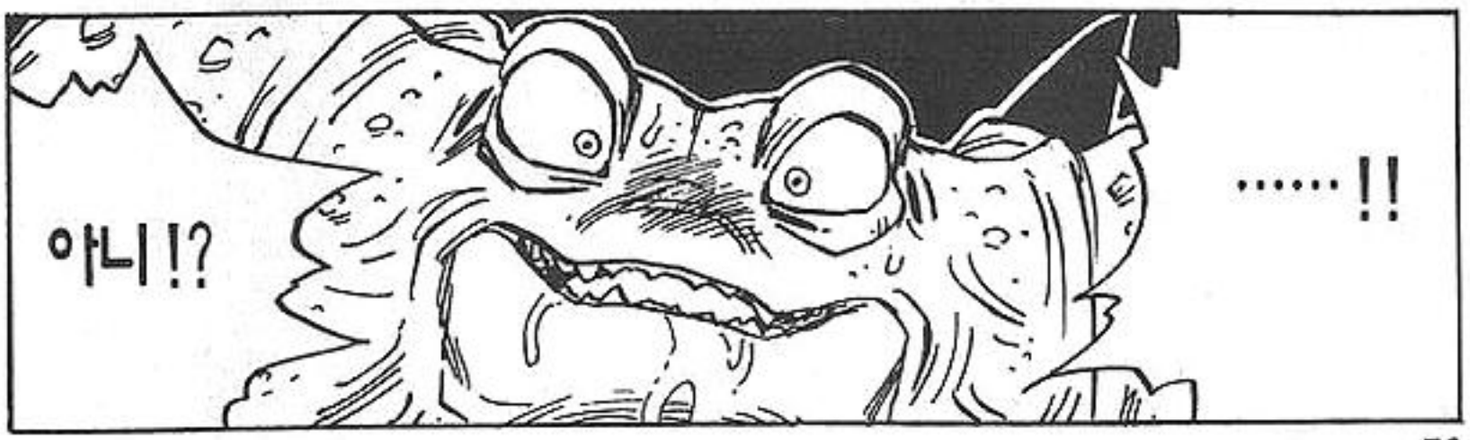
히히히히…!
난 너희들이
잘 보이지롱~!

먼저
한 마리!!

얏!!

이얍!





게다가 널 볼 수 있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다구. 예를 들면….

……!!

작은 공기의 흐름 같은 걸로….

우릴 너무 물로 보지 말게! 아무리 암흑이라도 네 움직임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있어.

!!

이것 봐—! 보인다, 보여!

저… 저게 대체 뭐지!?

다음은, 제451화 마수 야콩의 식사

……!!

저, 저건 뭐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구!?

조, 좀 전과 분위기가 바뀌었어!

예!

얌마! 에너지 측정기를 가지고 와! 가장 강력한 측정기를!!

걱정 마세요, 단순히 빛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소용없다는 걸.

어때, 이제 알겠니?

그다지 날 겁내지 않는 것 같네….

어쭈 구리?

과연…. 어둠이 소용없게 된 것은 분명 잘 안다….

키히히….

이상한데요…. 그런 인류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3000키리….

어… 어떻게 지구인이 3000키리의 에너지를…!!

이런! 3000키리…!

야쿵 녀석은
이길 수 없어….
야쿵의 에너지는
800키리밖에
안 돼….

측정기가
고장났나…?
하지만 만약 진짜로
3000키리라고
한다면….

음?

크~~앙

끄아아아악

어!?

어!?

!!

아니!?

아앗!!

꿀꺽

끄응

푸하


어라!?
저, 저럴 수가!? 다시 아까처럼 깜깜해졌다!!
아니야!
초사이어인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마, 맞아요! 마수 야콩은 빛의 에너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초사이어인이 된 오공의 에너지는 정말 최고의 먹이죠…!
쿠우욱…
그 맛 한 번 죽여주네…!
이렇게 맛있고 양이 많은 빛은 저음 먹어본다~!!
먹는다구…!?
뭐!?
아버지! 더 이상 초사이어인으로 변하면 안 돼!! 그 녀석은 빛의 에너지를 먹는 놈 같다구-!

지금 것은 최고의 빛이었어…!

후우….

크하하하…! 바로 그렇다. 가능하면 다시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마!

좋다!

허어~.

…….

괜찮아! 나 혼자 할 거야!

뭐!?

간다!

참견 마라!!

아버지, 나도 싸울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초사이어인이 아니라도 이길 수 있어!

저 녀석…, 무슨 속셈이지?

으하하하!
네가
멍청한 놈이라
즐거운데~!

그럼
한번 더
먹어볼까!

쟨
멍청이가
아니라구….

잠자코
보고만 있어.
무슨 꿍꿍이속이
있을 거야….

이, 이건
게임이
아니라구요!

저…, 정말
멍청하군요…!
왜, 왜 그렇게
자꾸 혼자서
상대한다고
고집부리는
거죠!!

흡수
되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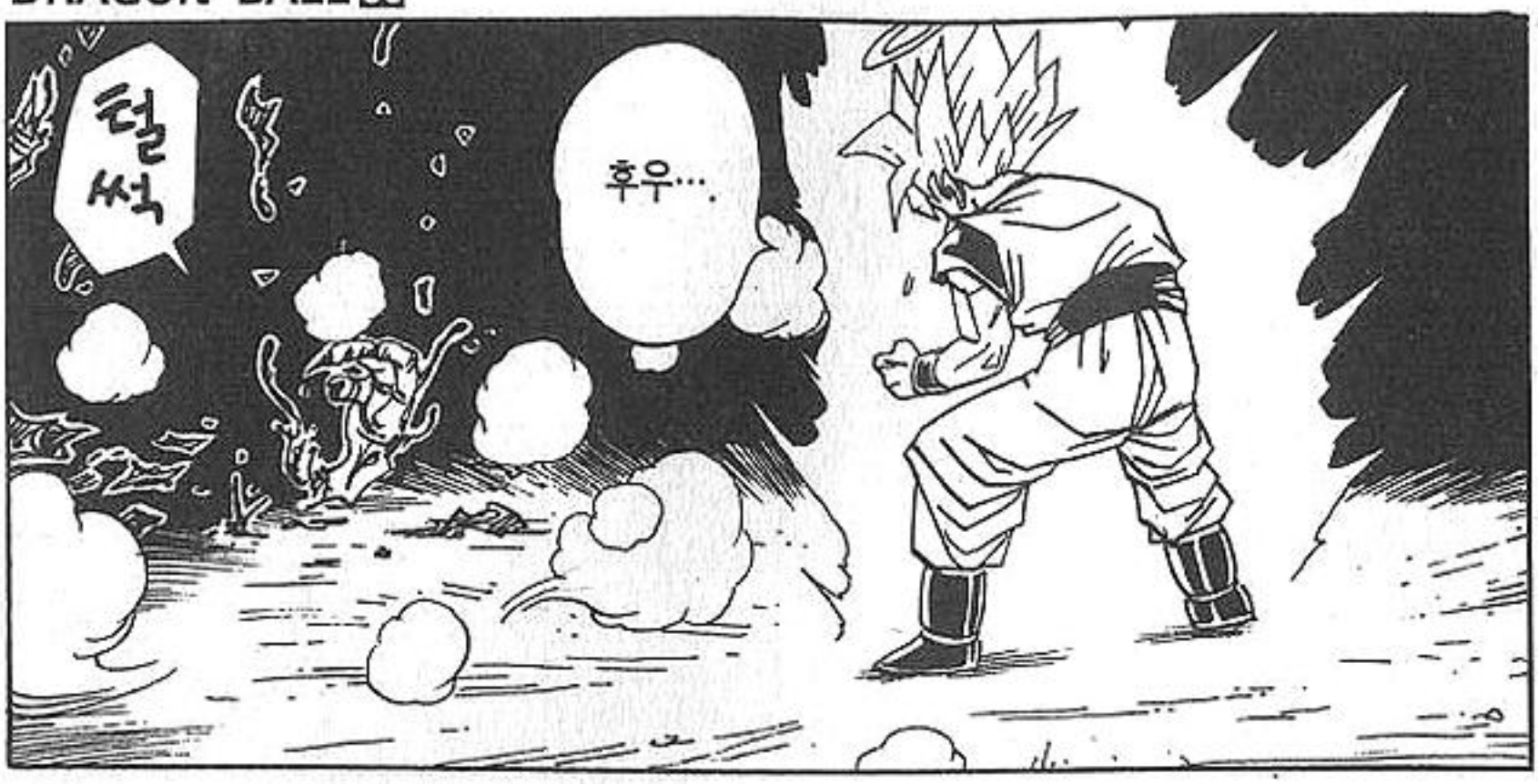
우와
~!!

절대
안 져~!!

아아아앗---


크윽…!
멍청한 야콩 녀석!
네가 저 녀석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이구,
아까워라!!
충격을 줘서
빼앗은 에너지가
아니면 마인 부우는
흡수할 수 없단 말야!!
크으으으으
으으으…
씨익…


KA-
TOK
KA-
TOK
KA-
TOK


털썩
후우….


아! 열렸다,
열렸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네.
우이이---잉


역시….
……


괴물을
쓰러뜨릴
때의
그 엄청난
기!!
멋졌어,
아버지!
별거
아냐!


역시 카카로트
녀석도 벽을
넘어선
것인가…?
초사이어인
이란
벽을….


……

도… 도대체 왜 폭발한 거지…!?

야… 야쿵이 폭발했다….

……

오공 녀석의 빛에너지를 너무 과식하는 바람에….

멍청한 녀석…. 아무래도 적들의 흉계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아니야…. 지… 지금은 이상했어….

야… 야쿵은 최후의 순간에 갑작스럽게 부풀어 올랐는걸….

여…, 역시…. 간단한 상대가 아니었어…. 저놈들은 역시….

바비디 님의 불안을 깨끗이 해결해 드리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산은 있는 거지…?

데… 데브라…, 네가 당하면 모든 게 끝장이다….

스테이지3은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마인 부우의 구슬을 녀석들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 보이죠.

저랑 파워로 상대해 이길 수 있는 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산요…? 후후후…! 전 마계의 왕 데브라 입니다….

다음은, 제452화 데브라 등장!!


오반! 다음엔 네 차례인데, 수행은 열심히 했지?
응?
안 됐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에 너무 젖어서 수행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현재 상태에선 우리들 파워가 더 세….
하긴! 이 녀석은 열받아서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헤헤….
이… 이 셋은 너무 여유만만하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아까 손오공이 잠깐 보여준 것처럼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는 거구나….
이… 이럴 수가…. 믿기 어려운 사실이야…. 나, 나 같은 계왕신이 하계의 인간 때문에 흔들리다니….
위이---잉


!!
데, 데브라…!!
쳑…
야콩을 해치우고 스테이지3까지 오다니, 인간 치고는 대단한 놈들이군.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걸 환영한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늬들을 상대하게 됐거든….

씰데없는 잡소리 그만 하고, 빨리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흥….

바비디도 상당히 쫄아버린 모양이지….

흥…. 최고의 실력자라는 네놈이 벌써 등장하다니….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적당히 좀 하시지….

뭐시라 … !?

널 해치우는 건 내가 할 일이야!

그건 안 돼, 안 돼!

……

와글 와글 …

와글 와글 …

하지만 남아있는 선수는 겨우 5명인데….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안 돌아오니 실격입니다.

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선수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입니다. 지금 계속 대책을 의논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시끌 시끌….

와글 와글….

저기 먼 곳에 거대한 기가 모여있는데….

역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고맙습니다, 미스터 사탄…. 영광입니다….

쳇…,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보니 남아있는 녀석들은 진짜 용기있는 애들이구나.

흥. 사라진 놈들은 나 미스터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그렇지!

아!

나 미스터 사탄만 남아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안심해라, 관객들아!

당신들은 나의 실력을 보러 온 거잖아-!?

후후훗….

와

와

맞아! 미스터 사탄-!

그래, 그 말이 정답이네! 화려한 기술을 보여다오-!

빙

빙

오, 미스터 사탄.

뭐죠?

아참, 이것 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배틀로알이라면….

하… 하지만….

겨우 5명이 하나씩 시합을 한다면 재미가 없잖아. 배틀로알을 하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배틀로얄이야! 도망친 놈들은 빨리 실격시켜 버리고 용기있게 남아있는 5명 전부가 링위로 올라가 싸우는 거야!

좋아, 결정됐다! 발표해!

아, 아니요! 그건…!

저, 정말 엣진 생각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돌아가겠다!

뭐야!? 나 미스터 사탄의 아이디어에 뭐 불만이라도 있나?

앗 앗 앗

머리 하난 죽이는데-!

멋지다! 역시 미스터 사탄이야!

관객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방금 미스터 사탄의 제안에 의해 남아있는 5명이서 배틀로알을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명 전원이 링에서 싸워, 최후에 남는 선수가 우승자가 됩니다!!

뭐? 용기…?

와~! 배틀로알이라니, 역시 미스터 사탄다운 생각이십니다! 용기있는 말씀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걸 두려워한다면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없으니까-!

하하….

배틀로얄이 시작되면 우선 우승후보인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 테니까요!

예, 그렇죠!

야탄갔다!!!

이…이거 정말….

먼저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미스터 사탄입니다!!

와

와

와

그럼 계속해서 배틀로얄에 출전할 5명의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에-!!

퍼억

아!

사탄!!

사탄!!

까악-!!

쥬엘 옵빠♡

다음은 이번 대회 단 한 명의 여자 선수, 이름이 이상한 18호 선수 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회 1회전에서 탈락했던 마이티 마스크 선수!

역시 지난 대회 2회전에서 탈락했던 킬러 선수!

마지막으로, 수많은 여성팬을 가졌으며 지난 대회 결승에서 아깝게 미스터 사탄에게 패했던 쥬엘 선수입니다!

우선 힘을 합쳐 미스터 사탄 님을 장외패 시켜버리자!

이… 이 봐….

이…
이상하네,
저 녀석
목소리가….

……

조심할
상대는
18호
뿐이야.

맞아!

시끄러!
저런 녀석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구.

뭐…
뭐야!?

!!

귀찮은
파리
놈아.

저리
꺼져.

안녕, 멋진
아가씨~!

시합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싸움을 하다니,
말도 안 돼.

와와

빡빡

자! 그럼 이제
시간제한이 없는
결승전,
5인의 배틀로얄이
곧 시작됩니다!!

사탄!!

사탄!!

와

쥬엘
옵빠!

시합
개시-!!

자!
빠, 빨리
덤벼!!

더…,
덤빌 테면
덤벼라….
혼구녕을
내주마!

뻐억

에잇!!

퍼버퍽

꽈당

꽈당

엄마야~!
쥬엘
오빠가~!!

우와 ㅠㅠ아!

어!?

어!?

쓰레기 같이 생긴
두 놈만 남았다!
나, 난 우승이야…!!

이, 이거 잘 됐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만,
귀찮은 빈대 두 놈이
없어졌어!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쥬엘 선수와
킬러 선수가
탈락!!

아니!
이게
웬일이죠!?

방심하지 마, 오천…. 크리링 아저씨의 아줌마는 옛날에 우리 아빠보다 강했대….

으, 응. 나도 알아…!

묘하게 롱 허리인 저놈은 보통 놈이 아냐….

저런 숏팔로 굉장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다니….

좋아! 두 놈 다 덤벼라! 한꺼번에 박살내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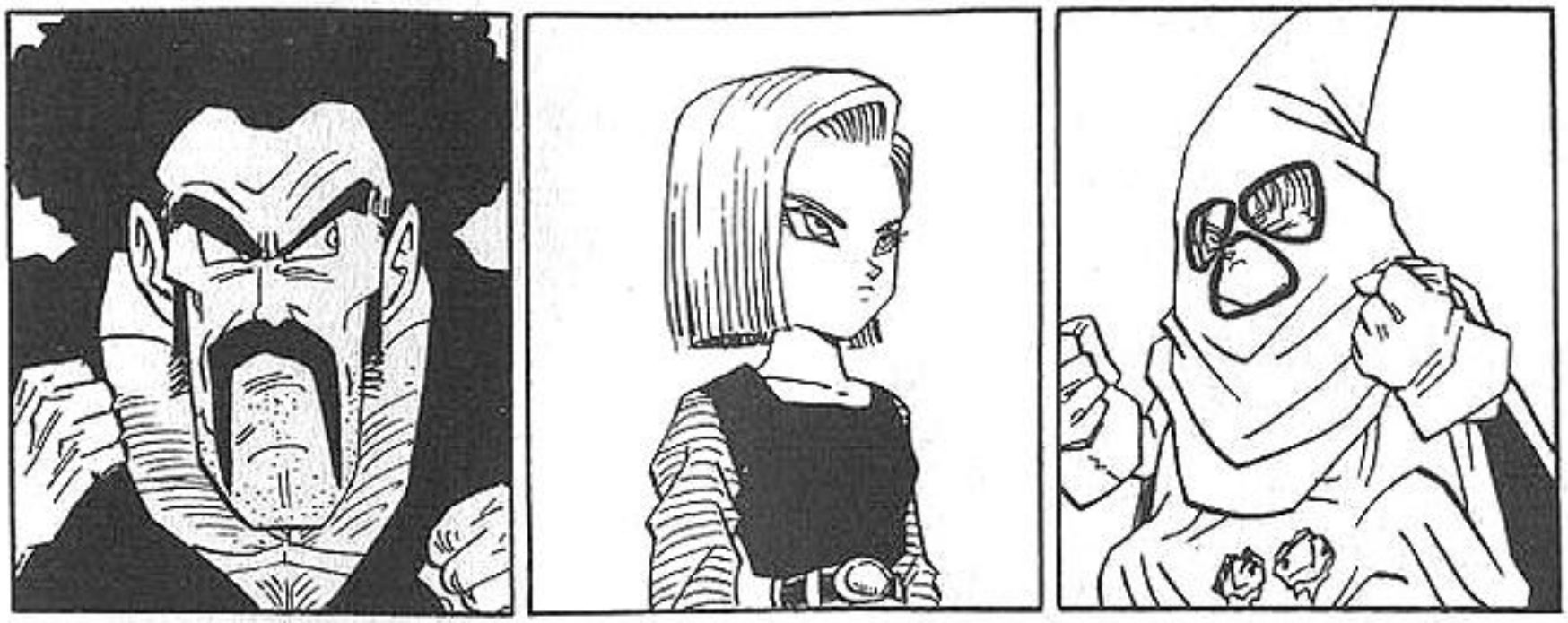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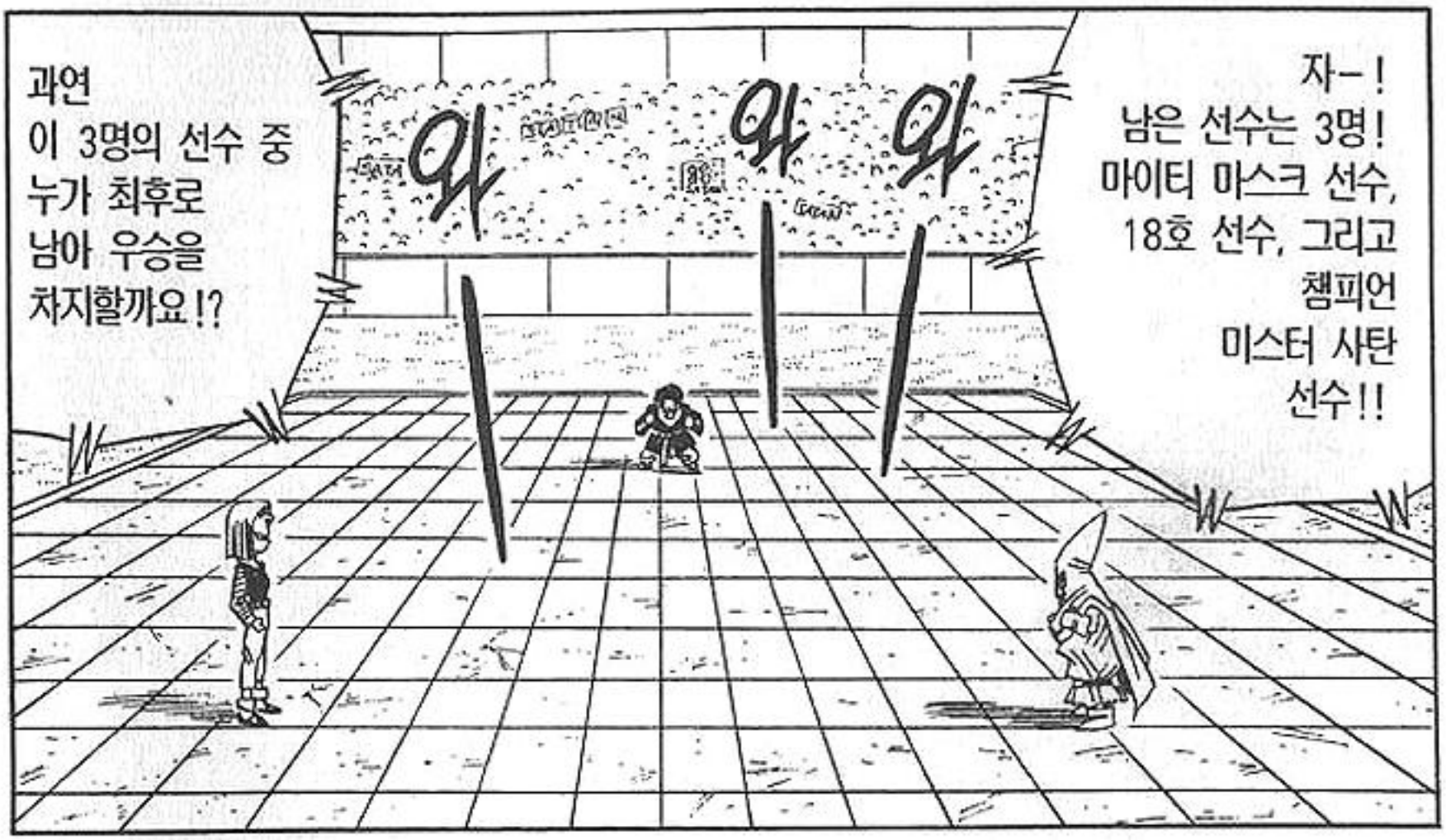
하하….

……

저런 건 무시하자….

다음은, 제453화 결승전의 결과




과연
이 3명의 선수 중
누가 최후로
남아 우승을
차지할까요!?
와
와
와
자-!
남은 선수는 3명!
마이티 마스크 선수,
18호 선수, 그리고
챔피언
미스터 사탄
선수!!


그래…. 우선
복면 쓴 놈을
필요 이상의
화려한 기술로
멋부리면서
해치우고….
내 파워에 겁을 먹은
귀여운 레이디를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장외패시켜 버릴까….
후후후…!
귀여운 레이디도
관객들도 넋을 잃고
볼 거야!!


남은 건
어떻게
폼나는 싸움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 뿐!
쿠후후….
내 우승은
이제
틀림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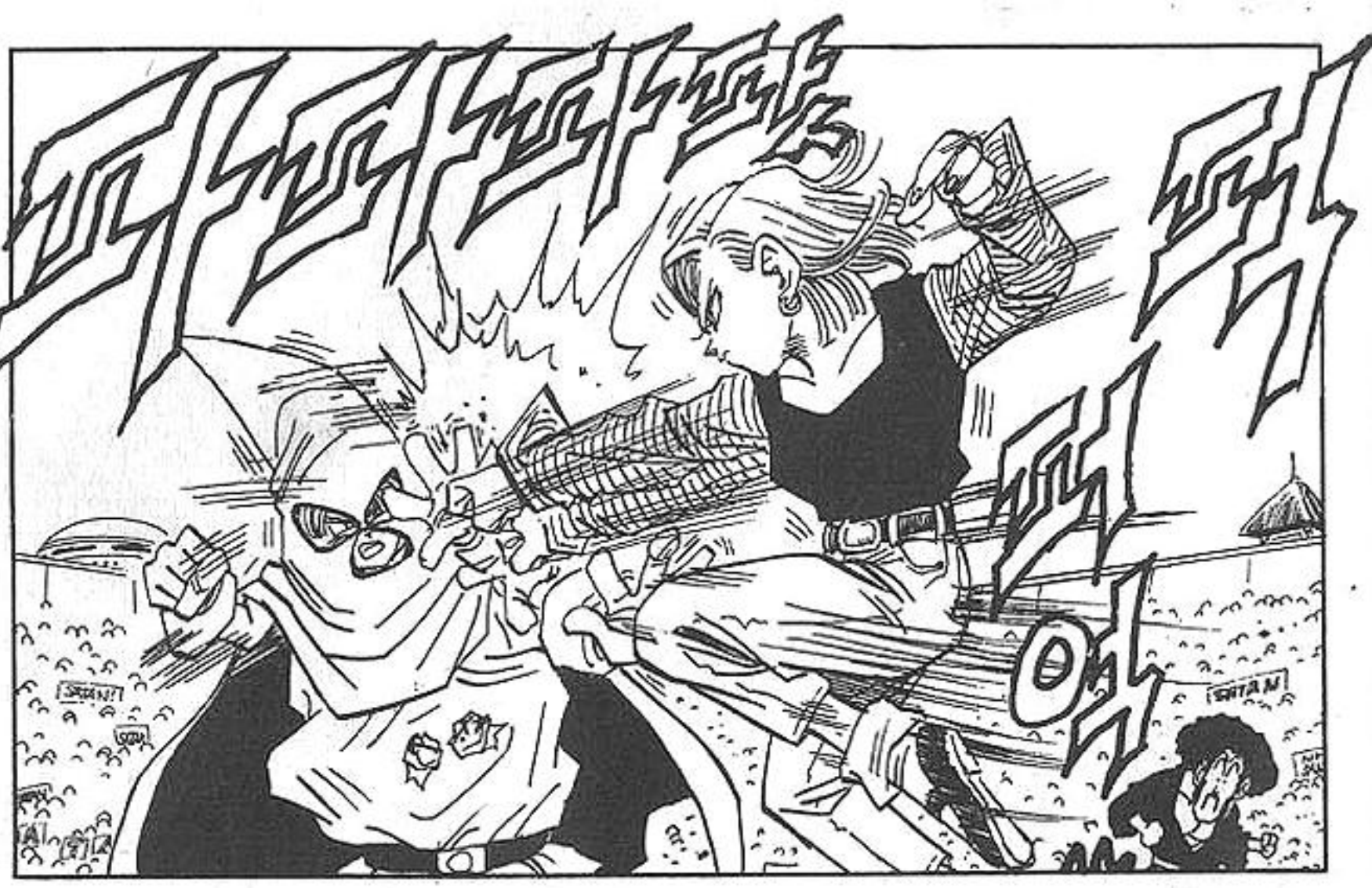

아니-!!
미스터 사탄,
벌써
승리의 V자를
그립니다!!
먹혔어!!
이미
끝난
시합이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
승부의 세계는 원래
비정한 거니까!!
좋아!
우선
네 녀석부터
이겨주마!!
멍청한
놈이네….
저런 건
무시하자.


좋아! 가자, 오천!
꾸욱
응!
간다!!
롤링 어택!!
피아
사탄 펀치!!








으으으


이 멍청아! 그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야!
나도 알아!

공중에서
대단한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다닷

아니-!?
공중전입니다!
저 두 사람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데,
마이티 마스크 선수는
언제 저런 기술을
연습했을까요!?

휘이이이잉

움직임이
힘들어…!

비,
빌어
먹을!!

어!?

헉 악

이,
이젠
죽었다… !!

으앗!!

퍽

오천!
너도 발차기 좀
사용해!

그치만
난 잘 안
보이는걸.

아니!!

……

앗!!

오, 오천!
빨리
날아!

쿠쿠쿠쿠

쿠쿠쿠쿠

쿠쿠쿠쿠

정말
이상한 놈이네….
몸에 비해
손발이 너무 숏이야.
그런데도
상당히
강하다니….

……

좋다!
하자!

응!

어차피
이런 옷차림으론
불리하니까
기합포로
끝장을
내버리자!

뭐?
하지만
편찮을까…?

18호
아줌마
정도
라면….

걱정 마.
적당히
하면
죽지는
않을 거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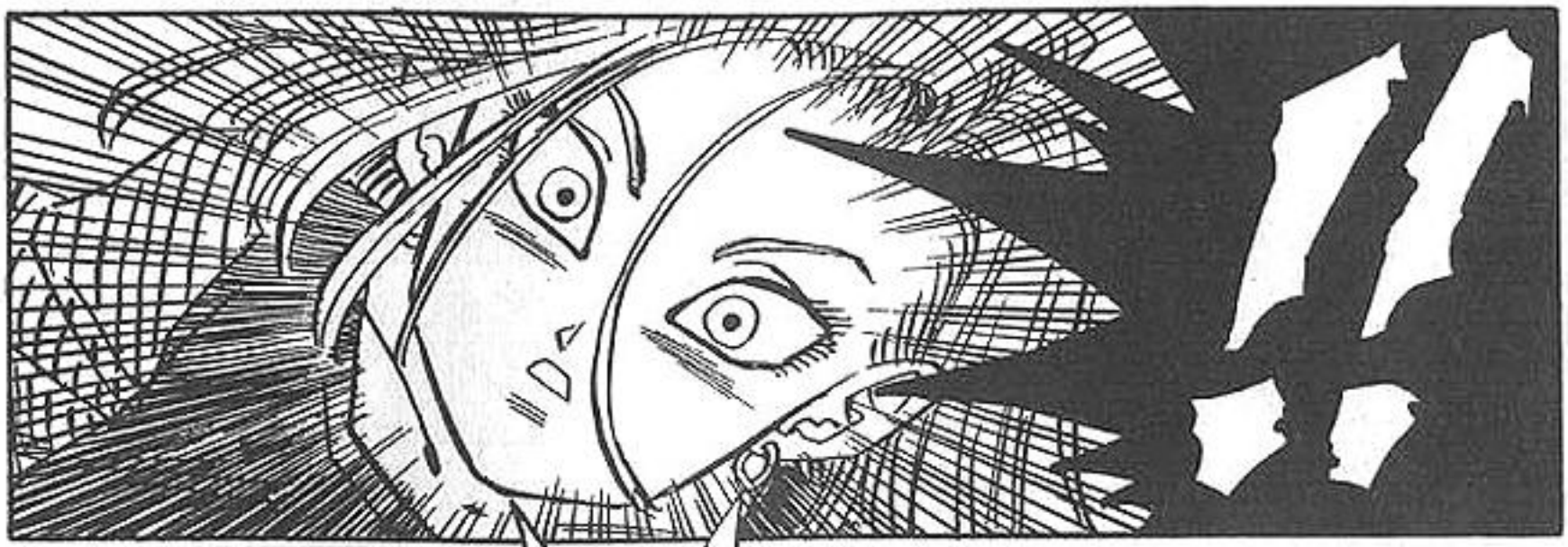
이제야 겨우 정체를 알았다, 귀여운 꼬맹이들….

역시…! 초사이어인 이군….

파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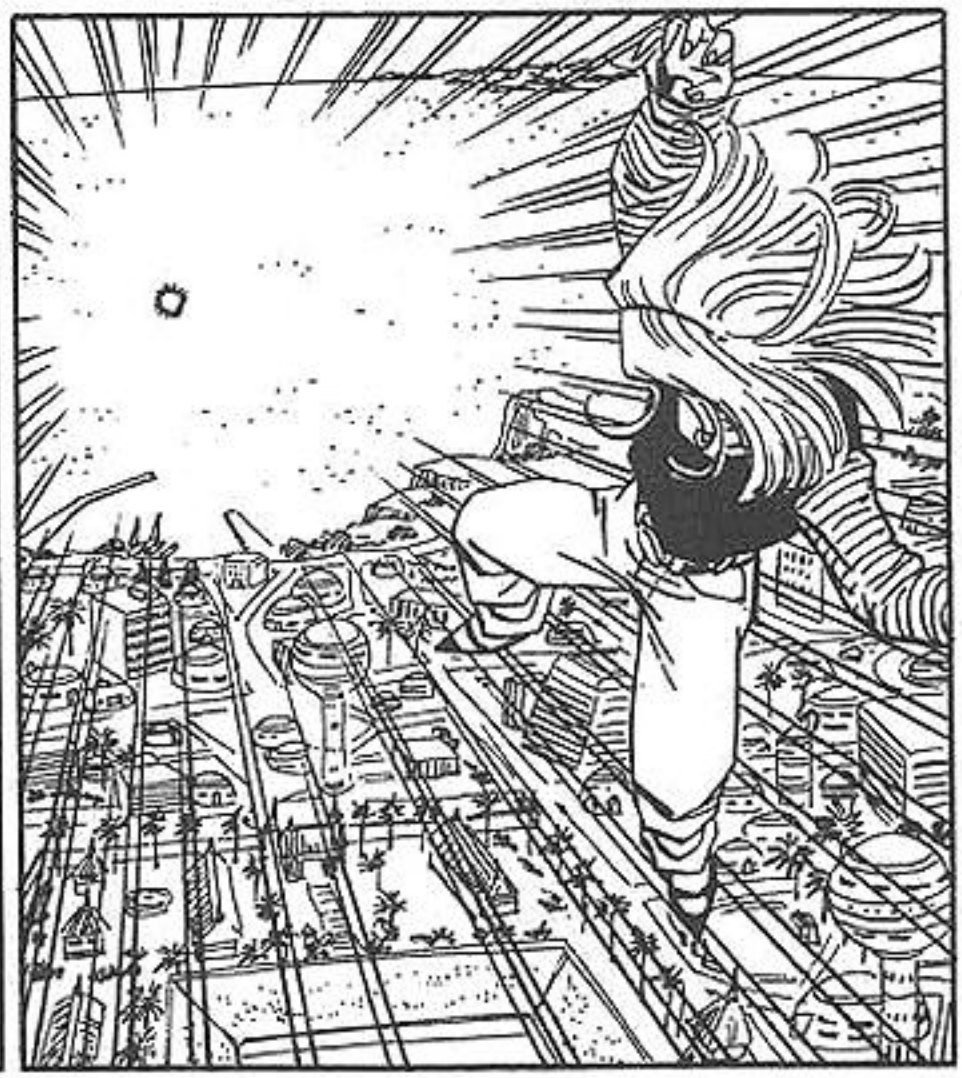
나도 알아!

너무 세면 큰일나!




크!!





에네르기탄




이거…,
장난이 아닌걸….
엄청난 스피드와
파괴력을 가진
에네르기탄을….
저…
저 꼬마들….
혹시 대단한
실력을
가졌을지도….


첫!
빗나갔네
….
빨랑
계속
사용하자!


…….
…….


이거 위험한데!
빨리 승부를 내야겠어!
승리는 내 거다!
트랭크스! 오천!
앗!!
이런!!
들켰어!!
악!!
으앗!!


좌착
아니-! 마, 마이티 마스크 선수가….
찌…, 찢어졌다-!!
아니!? 아… 아닙니다.
얌마! 그쪽으로 피하면 어떡해!
두… 두 명이! 갑자기 두 명이…!
어머머~! 애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후후후! 역시 쟤네들 이었네.
도, 도망쳐!!
두 사람이 합쳐 시합하면 안 됩니다!! 실격-!!
휴우….
이제 미스터 사탄과 18호 선수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긴 쪽이 우승 입니다!
난….
이제 죽었네….



제454화 우승자 결정!!!


좀 전에 엄청난 격투 장면을 보여준 18호 선수에 대한 응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상금 천 만 제니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우승자는 미스터 사탄인가, 18호 선수인가?
사탄-!! 사탄-!!
18호! 18호!
18호! 18호!
사탄-!! 사탄-!!
SATAN
저… 저런 괴물을 어떻게 이겨…!!

웃을 때가 아닙니다, 무천도사 님!

와하하하! 한 턱 내야겠어!!

좋겠다~! 네 엄마가 천 만 제니를 벌었네.

오공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라?

도대체 왜 들킨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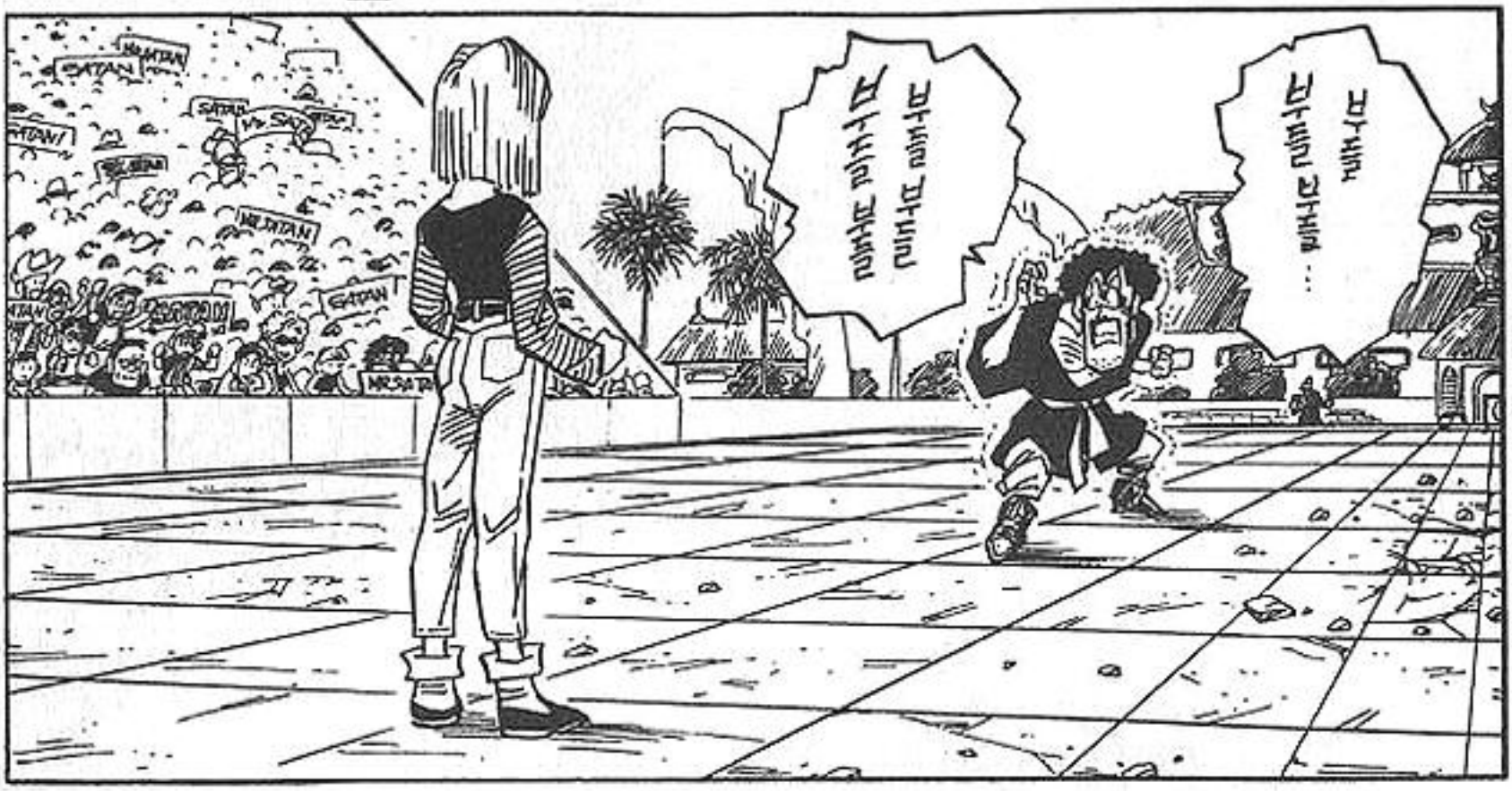
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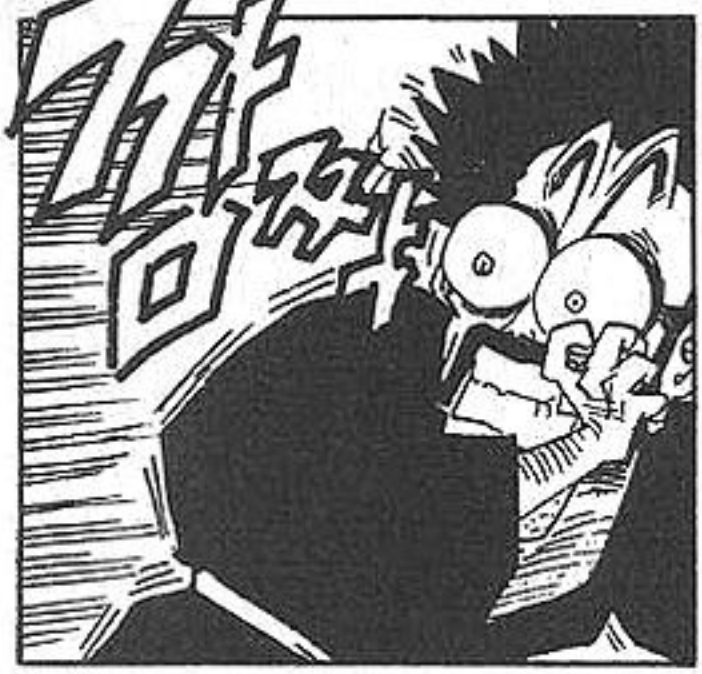
비델 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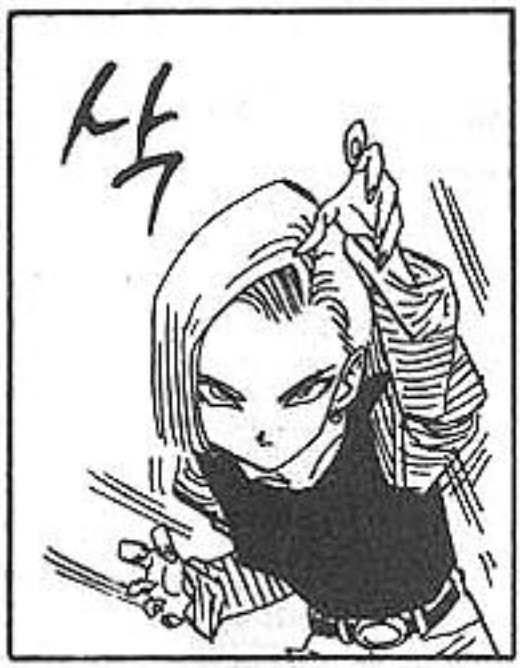
비델 이다!

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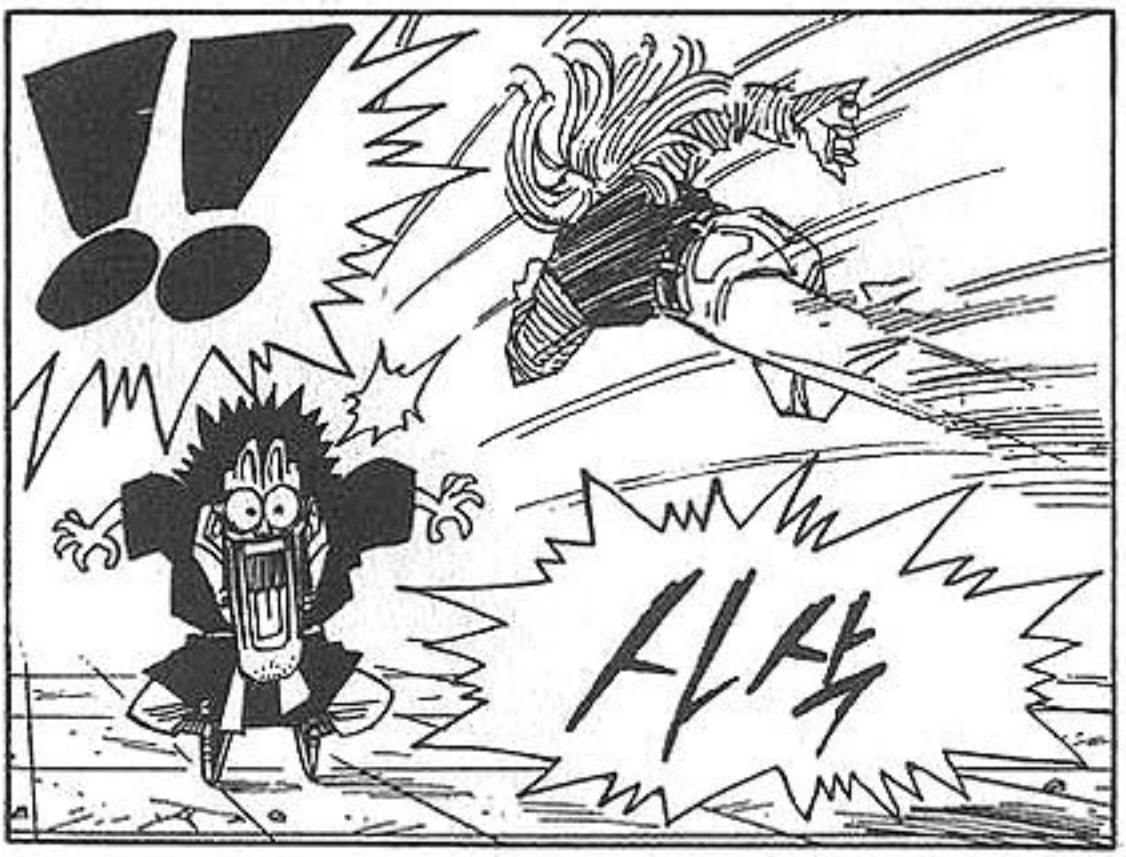
아!


HUMAN
SATAN
SATAN Vs SATAN
HUMAN
SATAN
HUMAN
SATAN
MR.SATAN
바보같은 놈들 …
바보들만 모였군




샥




!!
FLASH




꽉악
꺄아 아악-!!
부… 부탁입니다!!
파닥파닥
제,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입 닥쳐! 소리 내지 말라구.
조용히 안 하면 진짜 죽일 테다!
아니! 18호 선수가 헤드록을 걸었습니다!
알겠지? 목소리 낮춰서 대답해 봐….
우승하고 싶니?
아, 아뇨! 저, 전 싫어요…!
아무래도 좋으니 제발 살려주시기만….
네가 우승해도 난 상관 없어….
예!?
2천만 제니만 주면 져주겠다….
괜찮은 거래지…? 그치만 넌 그만큼 명예를 지킬 수 있으니까.

우승 상금이 천 만 제니잖아! 나머지 천 만 제니만 네가 부담하면 된다구.

2… 2천 만 제니요…!?

싫다면 이대로 뼈를 아작내 버릴 거야!

어떻게 된 거죠? 미스터 사탄이 전혀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거 무적의 미스터 사탄도 상대를 잘못 만난 걸까요?

고마워!

됐다.

무, 물론 드려야죠!!

아, 알았어요!!

와앗-! 미스터 사탄이 18호를 던져 버렸습니다!

아니!?

와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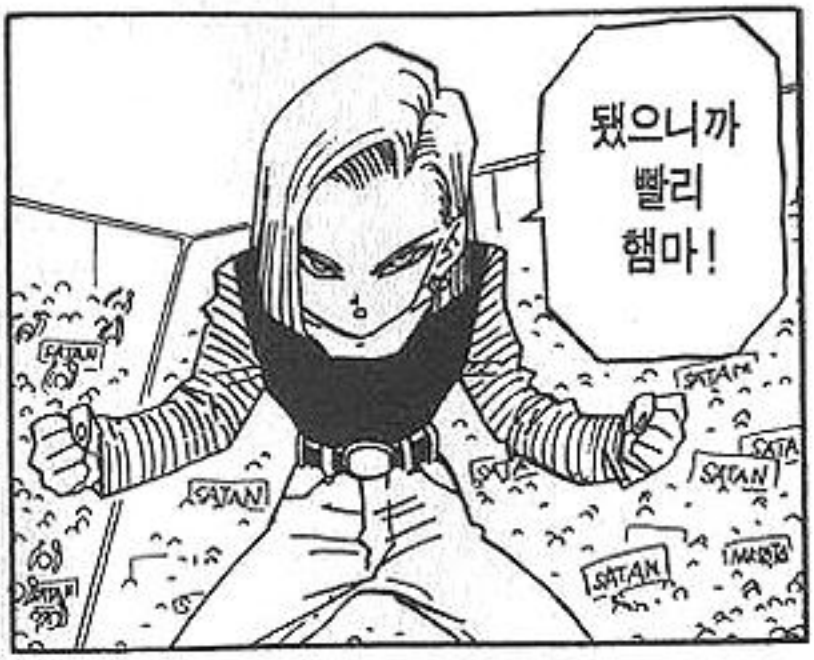
!!

와아아아!!

우와-!! 역시 미스터 사탄답군요!!


이런 제길!
……
후…
후후후 …!!
샤샤샤
슉! 슈슉…!!
이요오오오…
우하하하! 이제 네 기술은 다 파악했다!! 안 됐군! 솔직히 넌 내 상대가 못돼!!
우오아 …!!
저거 진짠가!?
꽤 괜찮은 솜씬데, 내 상대는 못돼!
잘 싸우긴 했지만 역시 세계 챔피언은 나라구!
간다! 넌 이걸로 끝장이야!!


옙!!
예….


됐으니까
빨리
햄마!
SATAN


이야아압
!!


사탄
미라클
스페셜
울트라
슈퍼 메가톤
펀치-!


퍼억

……

……

저,
정통으로
들어갔어!!

와앗
!!

이…,
일단은….

예…,
그런디요….

겨우 이게
네
필살기냐…?

꽈
당

우왓!!

부앙

아….

그러니까…, 저기….
언뜻 보기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펀치라도, 수초 후에는 폭발적인 충격에 휩싸여버리는 거야!! 이것이 사탄 미러클…, 그러니까 뷰티플 슈퍼 천하무적 펀치다!

봐…, 봤냐!?

미스터 사탄 우승-!!

내가 최고다-!!


과연 지구의 수호신답다-!!
우와-! 역시 대단한 사탄이야!!
경이적인 힘을 보여준 18호 선수였지만, 미스터 사탄 앞에서는 쪽도 못쓰고 무너졌습니다! 미스터 사탄, 챔피언 자리를 방어!!


사탄!!
알았어요….
예….
예….
사탄!!
사탄!!


돈은 내일 네 집으로 받으러 가겠다.
한 푼이라도 틀리면 죽을 줄 알아.
와
와
와


그래서 모두 그곳에….
이렇게 된 거야….
FIGHT




……
마도사…,
마인….


주…,
죽이는데
…!
드…,
들었니,
오천…?


응!
아하하하
하하하…!


멈지다—
!!
그치?
정말
대단해!!
뭐야!?
EIGHT

자, 잠깐! 너희들, 혹시 거기 가려고….

그래, 맞아!! 아빠들의 기가 느껴져!!

저쪽이다!!

서둘러!

빨리 안 가면 아빠들이 적을 모두 해치울 거야!!

싫다, 싫어!! 나도 볼래!

마인 부우란 놈을 보고 싶어!

GO!!!!


파파팟팟
이야호——!!
이럴 수가…!!
……
FIGHT


천하제일은
누구냐!?

제455화

발견된 사악한 마음




이요옷—!
퍼더덕


고오옹
윽!!
푸슈슉
휘리릭
아니!?
붕
아

진짜는
여기
있다!!

!!


쩡벙
이런 제길…!!
촤아악
찌직
팟

마술을 쓰네~!

데브라 녀석, 생각보다 훨씬 강한데.

칫….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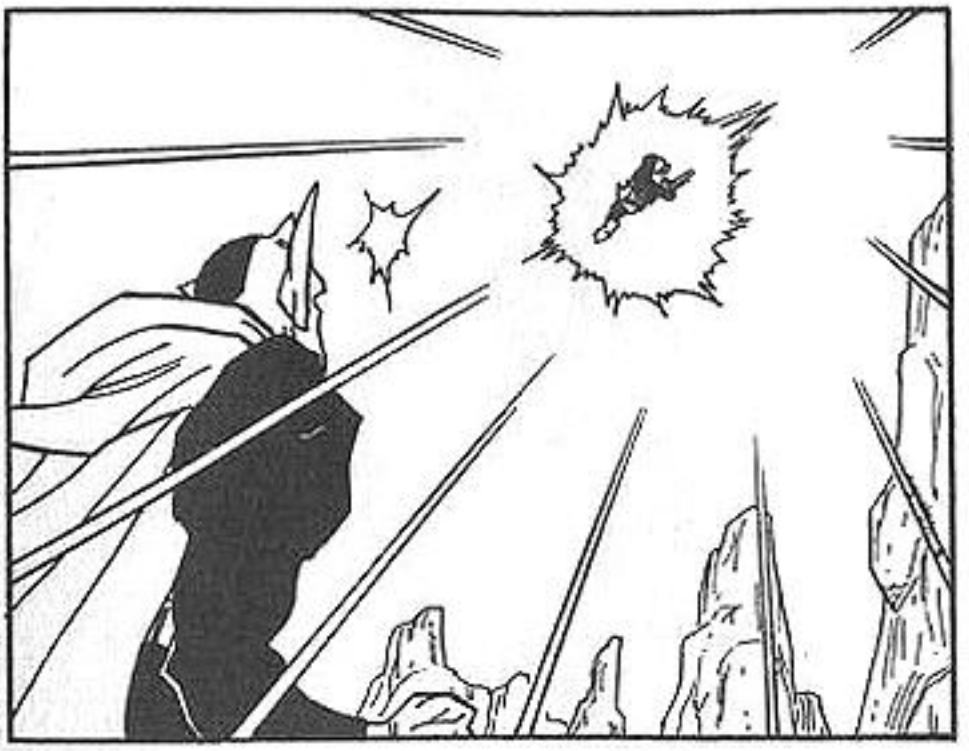
저 녀석, 정말 게으름 피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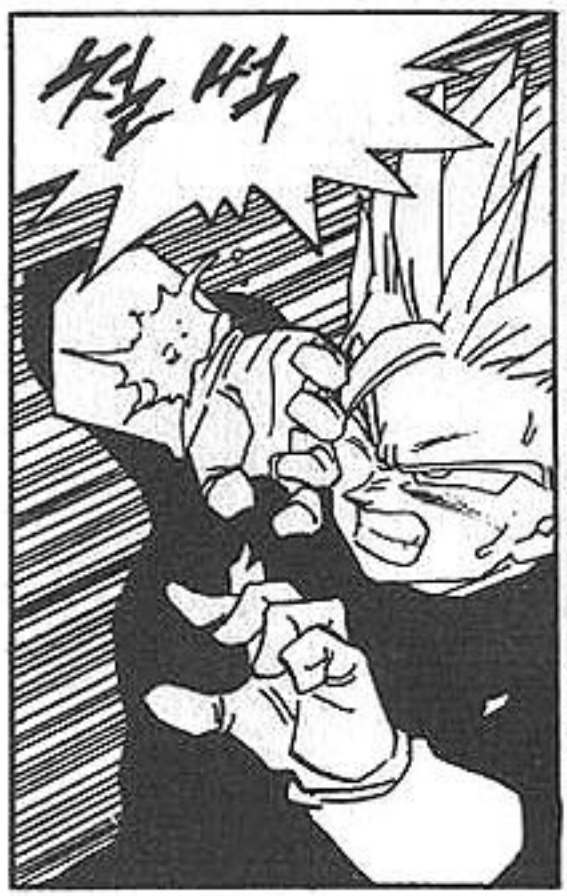
꼬마였을 때가 훨씬 강했던 것 같군….

흥…. 그렇다고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아냐. 붙쌍한 오반 녀석….

하앗—!


돼애앳




쓸 버




위험해!
맞으면
돌이
된다구…!!


빠
자


샤샤샥


아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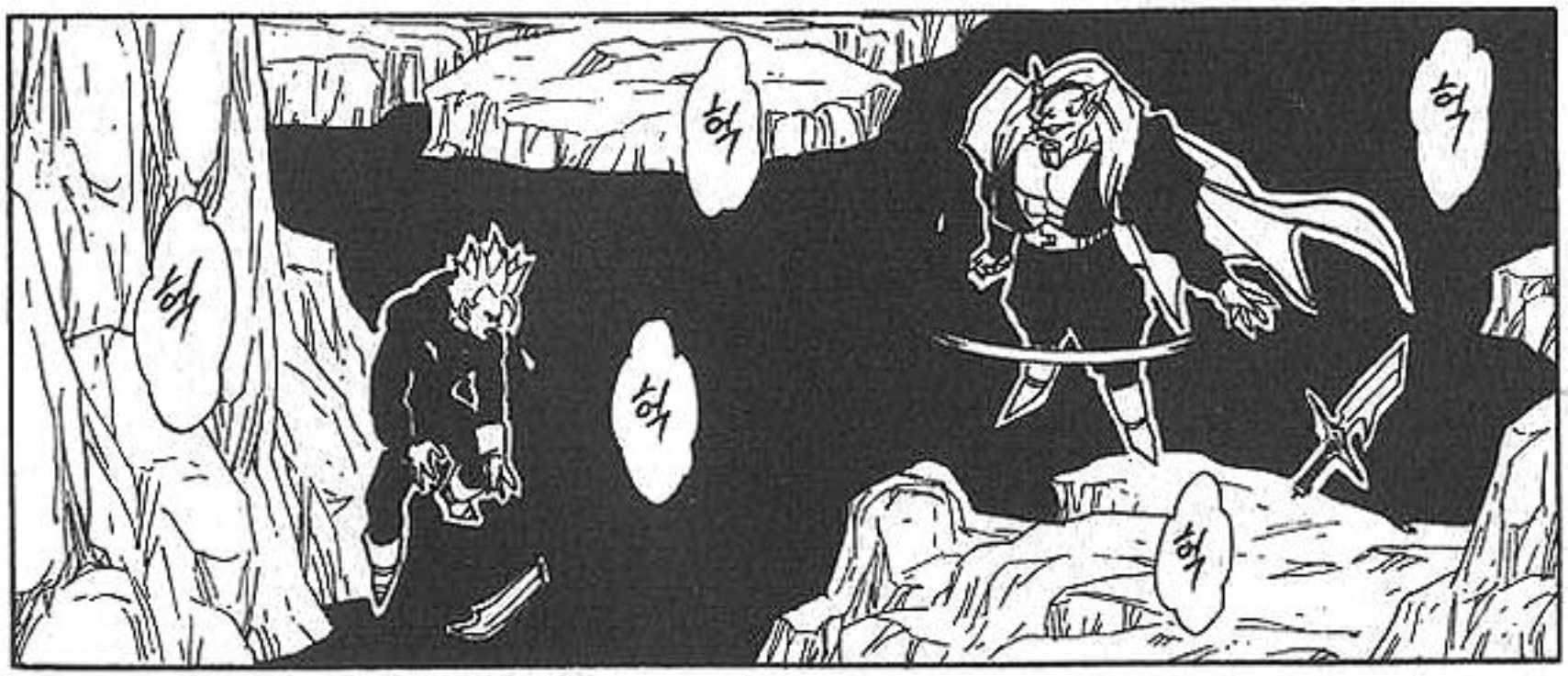

부웅
!!
!!


……!!


퍽
악




하…
하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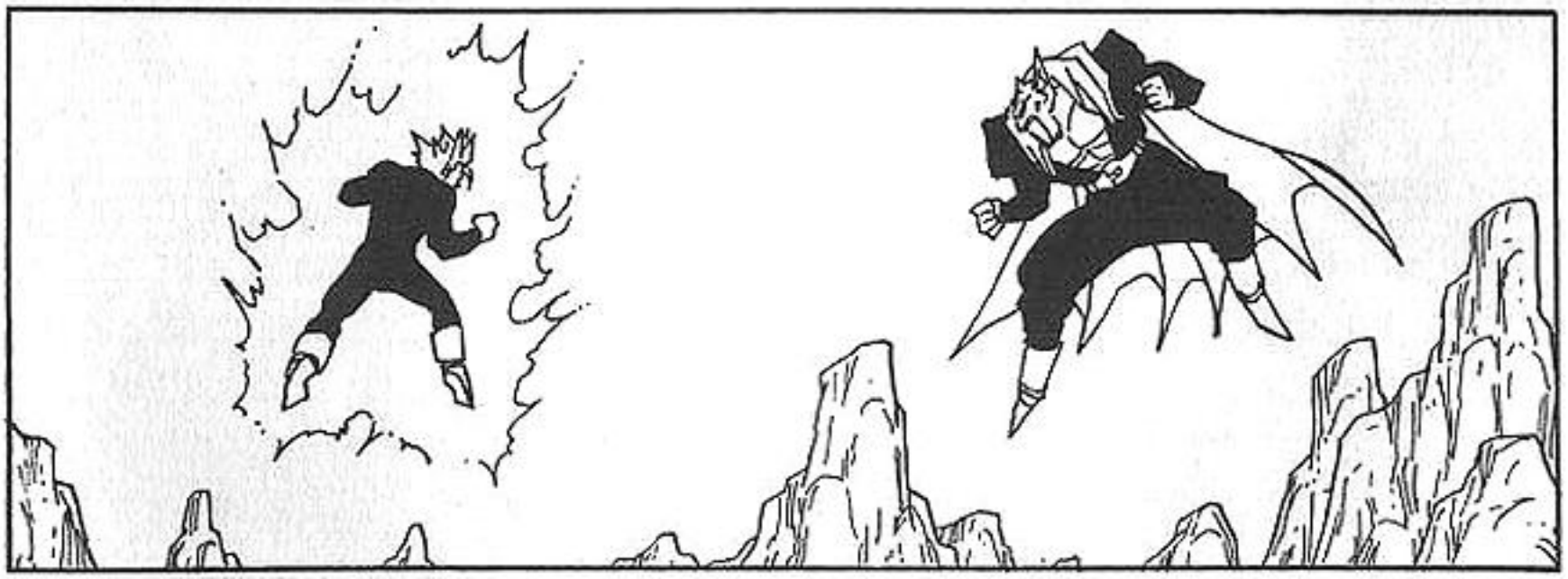

헉
헉
헉
헉

더욱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제길…!

뭐 하는 거냐, 데브라 자식…!

마… 마인 부우만 부활하면….
저런 놈들 쯤은….



이 따위 장난은 아무래도 좋아!!

그건 안 돼, 베지터! 아직 완전히 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싸우게 둬!

할 수 없군…. 내가 끝내버리겠어!

제길! 왜 저리 뜸들이는 거야….




그걸 위해서
엉터리 같은
무술대회에도
참가한 거고!!
난 이런
시시한 놀이는
빨리 때려 치우고
너와 승부를
내고 싶단
말야!!


아주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바비디 님,
나와 녀석들을
우주선으로
다시 끌어
들이세요.


…!?


싸아…


뭐!?
이제
부우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정말이냐, 데브라…?
빠빠라 빠—!!
쾅
앗…!!
두웅
뭐지!?
터덕
샥…
이, 이 봐!!
얌마! 도망치는 거냐?

뭐…
뭐야…!?

마침 안성맞춤의 전사가 나타나서 나, 데브라가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

%o

도망?
후후후.
천만에….

무슨 일이냐, 데브라?

아주 좋은 발견이란 게?

그 정도의 사악함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녀석들 중 한 마리가 아주 강력한 사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 친구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면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마인 부우는 부활한다!

다음은, 제456화 숙명의 대결 손오공 대 베지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싸울 필요가 없는
좋은 전사를
발견했다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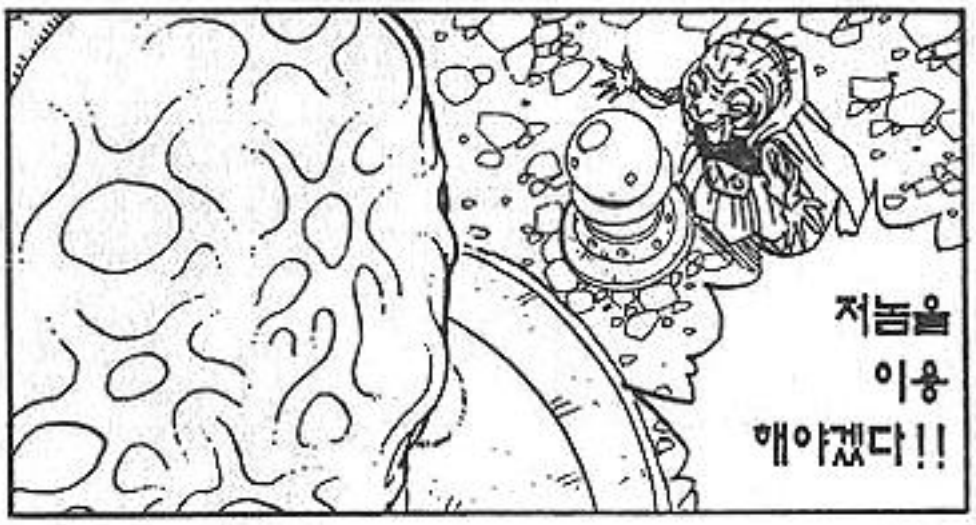
무, 무슨
소리야,
저 자식!?

앗!!

발견
했다고!?

발견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




저놈을
이용
해야겠다!!


크하하하!
정말이네!
다른
놈들과는
틀려!!
이놈은 사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정의를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아하하!!




!!
우우우
우욱…!!
!!
여, 역시
그랬군!
크아아악…!!
……!!


크으… 크으윽 …!!
베, 베지터!!
나쁜 마음을 바비디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아지경을 만들어요! 아무 것도 생각해선 안 됩니다!!
시… 시끄러!!
내… 내 일에 참견 말라구…!!
좋다, 좋아! 넌 이미 내 거야! 우히히히…! 더불어 네 한계를 넘어선 감춰진 파워까지 끌어내주마!!
으아아아아…!!
베, 베지터 아저씨! 저, 저 따위 녀석한테 조종 당하면 안 돼…!!

베지터 … !!

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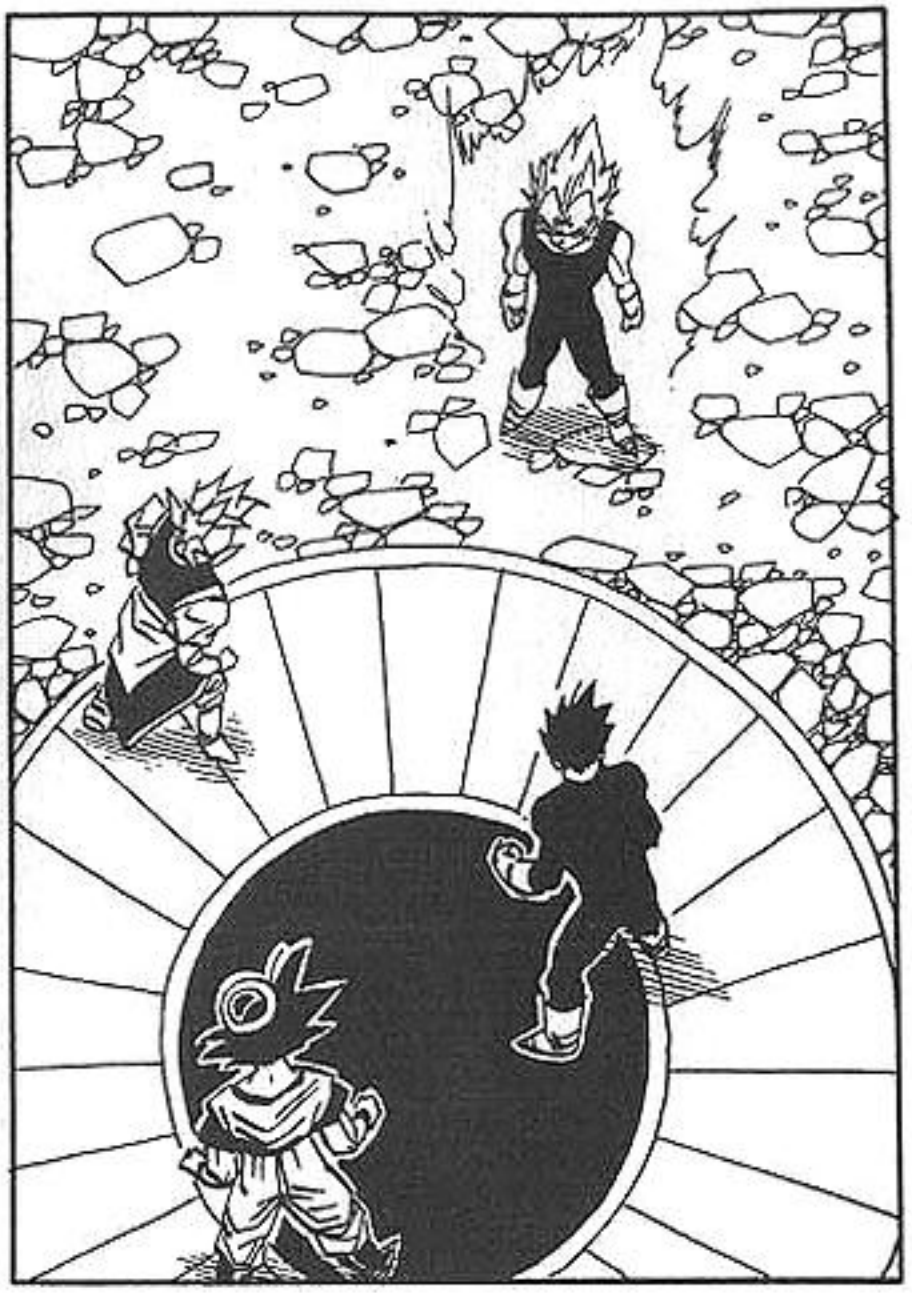
으윽… !!

하아아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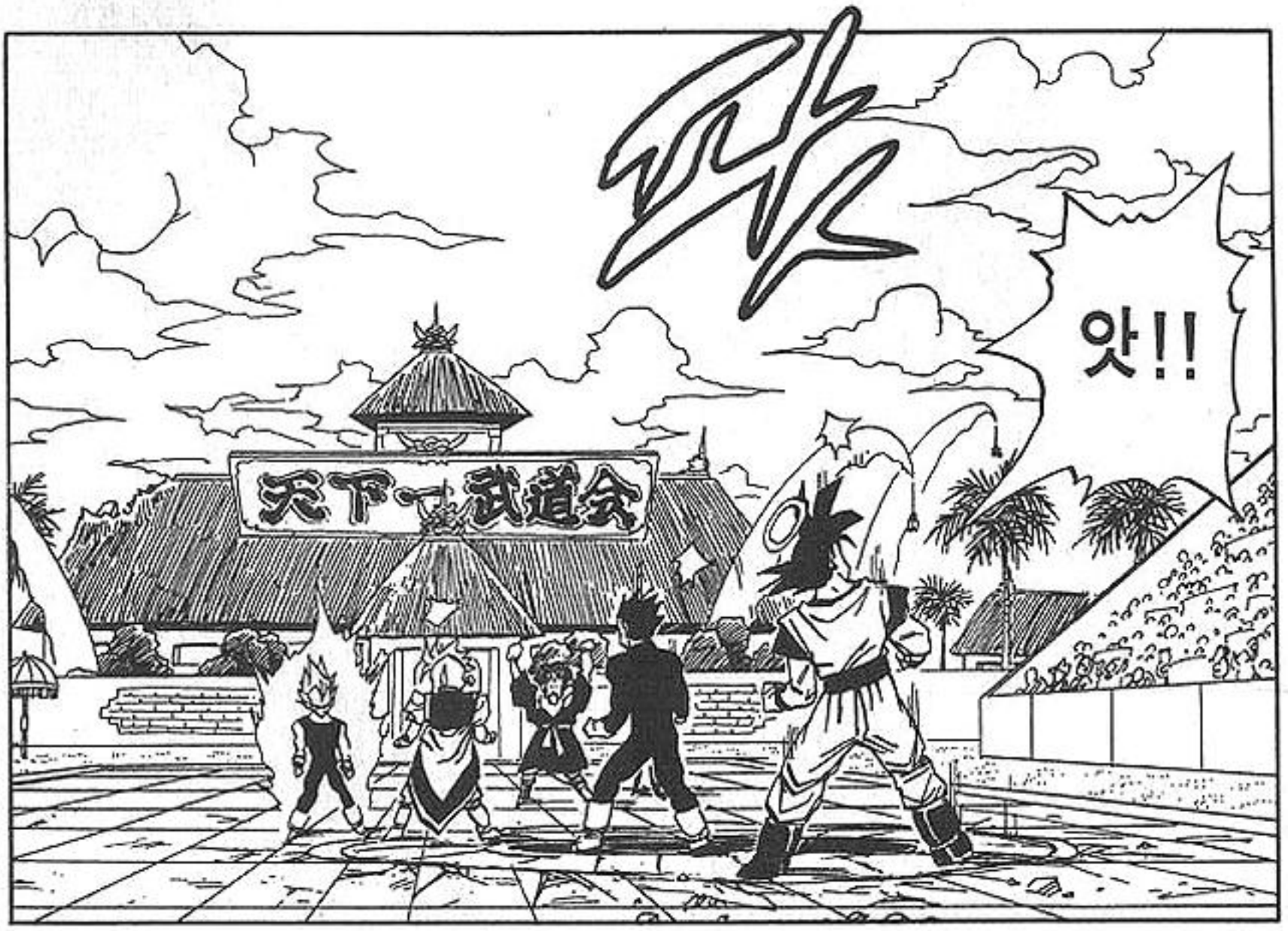
크…, 큰일났다 … !!

!!


크히히!!
잘한다,
잡매.
그럼 이제
좋은 장소에서
싸움을
붙여볼까!




빠빠라빠—!!


天下一武道会
앗!!

여… 여기는 무술대회 경기장… !!

아니~ !! 여러분, 늦었어요! 벌써 시합은 끝나고….

가…, 갑자기 나타났어… !!

쟤… 쟤들은 어떻게 된 거야 … !?

쟤 이름이 뭐였드라… ? 그래, 베지터 !! 저놈들한테 에너지를 뺏어라 ! 죽여도 좋으니까 네 마음껏 싸우란 말이야 !!

입 닥쳐!
내 목적은
카카로트
뿐이다.

딴 놈들은
상관없어.

아직 나에게
완전히 조종당하지
않다니…,
대… 대단한
놈인데….

이런 놈은
저승봤다….
하긴,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저 봐요!
역시 오공들
입니다!!

도,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이… 이…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그… 그때…,
그때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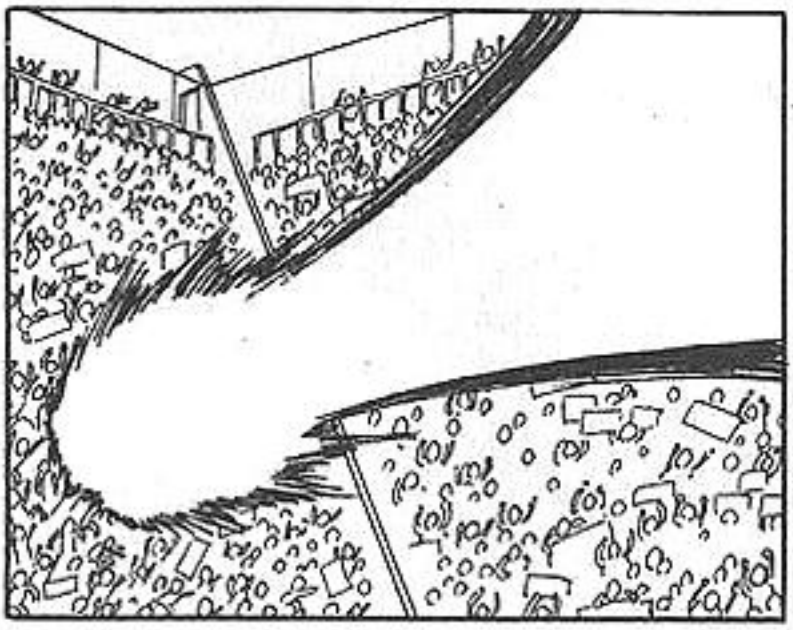
이… 이럴 수가!!
사…, 살아있었단
말인가~!!

이,
이봐!!

흐...


안—돼!!


윽!!




!!













다음은, 제457화 베지터의 자존심

잘못하면 죽어-!!

와앗!!

빠, 빨리 도망쳐!!

까악-!!

피해!!

베지터!!

대, 대체 무슨 일이야!?

으…

으아아…!!

우하하하!!

잘한다! 200명 이상은 죽었어.

더 이상의 시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자! 나와 결판을 내자, 카카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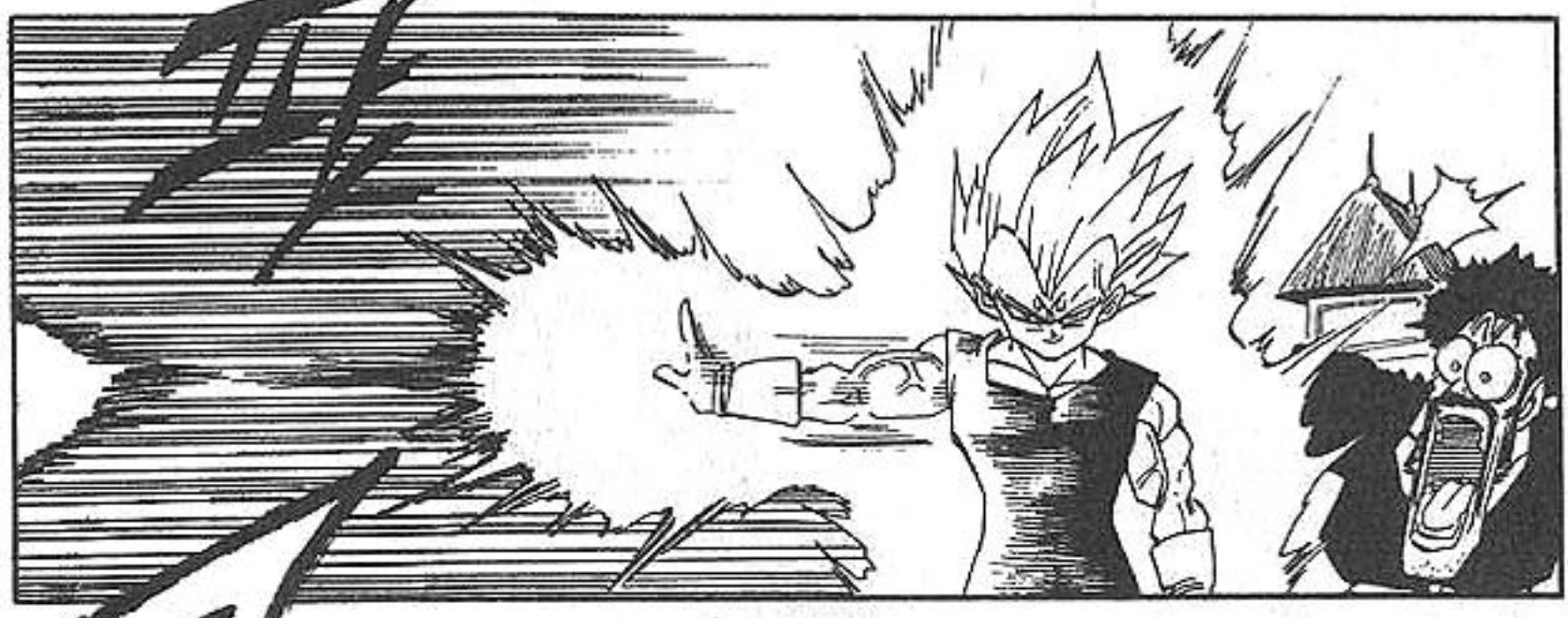
베… 베지터 아저씨!!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베지터…. 너, 이 자식….

설마 일부러 바비디의 마술에 걸려서….










으악!!


사,
살려줘!!
크악!
악!!






아,
안 돼요!!
손오공!!
여기서 싸우게 되면
바비디의 계획대로…,
에너지를 흡수한
마인 부우가
분명 부활하게
되어버립니다!!

내 말이 틀리냐?

베지터…, 넌 내가 진짜 열받도록 일부러 바비디의 마술에 걸려 자제력을 잃고 저런 짓을 한 거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와 난 싸우지 못할 거야…. 오늘만 지나면 넌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는데, 뜻밖의 훼방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아니….

나에겐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마인 부우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바보 같은 짓…!?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 이럴 수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놈은…,
이놈은
내 파워를
능가했다…!

같은
사이어인이면서
나를 초월
했단 말야!!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하던
왕자인 나를
초월했다구!

저…
저 자식이
내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어…!!

요…,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

난
베지터와
싸우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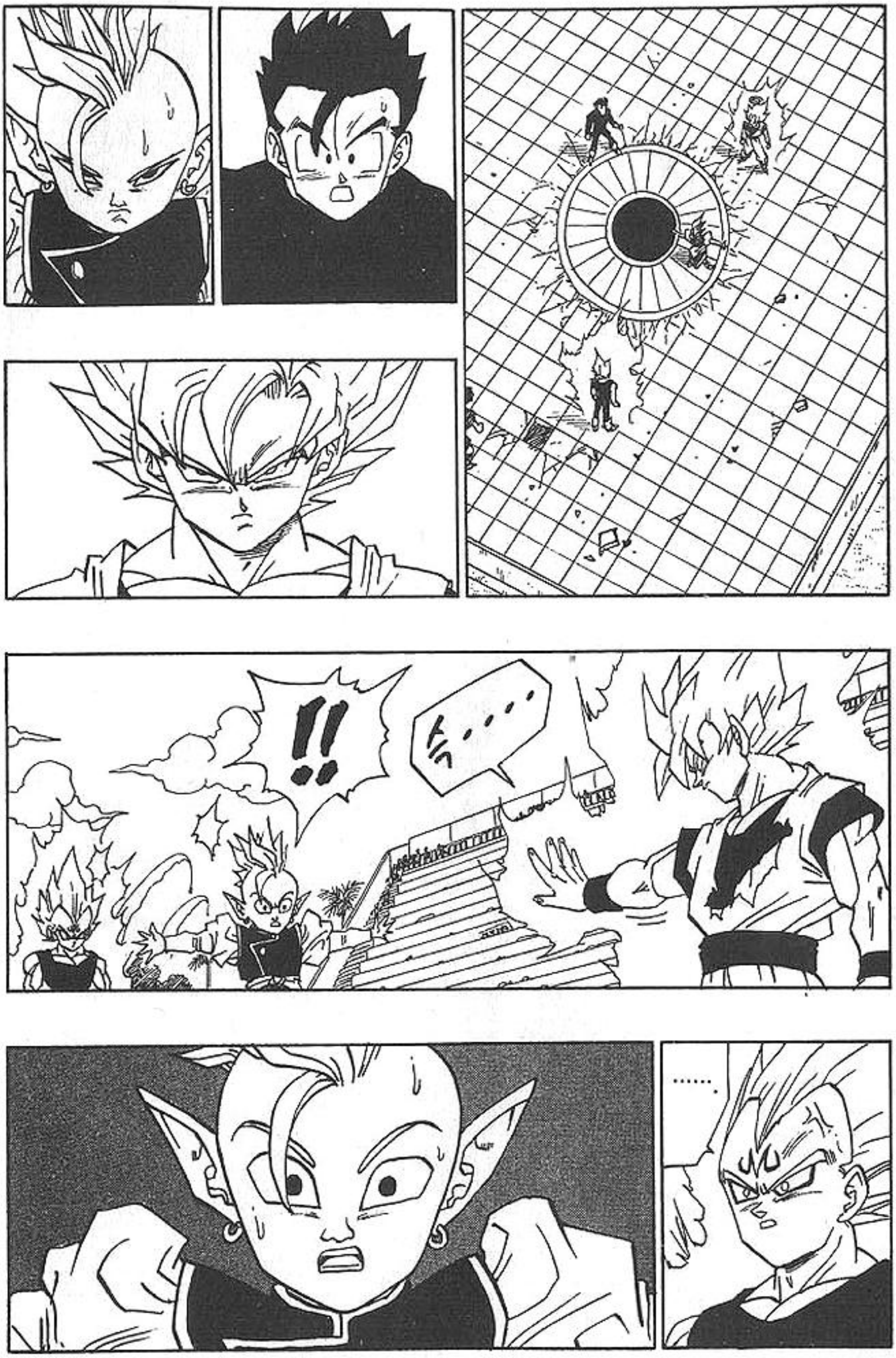
바비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장소를
바꿔라—!!

!!

……!!

잠깐만—!!

기어코
대결하겠다면
날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하시오!






아버지…!
아….


……
미안해, 계왕신님.


아…, 알겠어요…!
맘대로 하시오….


계왕신 녀석아, 끝 좋다-!!
우히히히! 내부 분열이 시작됐어!


빠빠라 빠-!
원하는 대로 장소를 바꿔주마!


파
이제부터 혼구녕을 내주려고 했는데!
이런 제길-!!
쳇~!
어라…!?
앗…
사… 사라졌어 …!
난 손오반과 함께 이 입구를 파괴하고 바비디, 데브라와 싸우고 오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놓고 대결하시오.

어차피 될 거라면
당신들의 충격
에너지를 흡수해서
풀 파워가 된
마인 부우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싸움의 충격을
받은 마인 부우가
부활해도 어쩔 수
없겠지요.

베지터, 녀석을
막아라!
방해자는
모두
죽여버려~!

뭐라고~!?
히히히!
난 허수아빈 줄
아시나…!

……

운이 좋으면
부활을 저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군요.

크으…!
크허헉!!

끼으…
으으윽…!!

자, 어서!
내 말 들어!!

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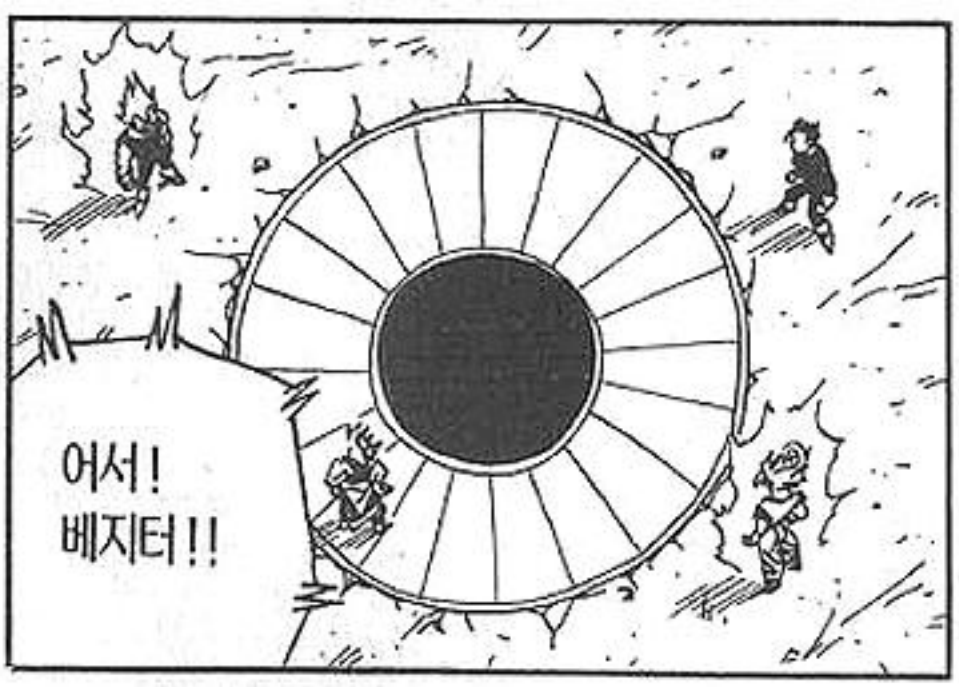
계왕신님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나의 승부와
상관없는 일이야…!

사…
사양한다…!!



제458화 두 초사이어인의 사투









왕자란 말야…!

나…, 난 자랑스런 사이어인의….

우…, 웃기지 마셔…! 말했잖아…. 난 카카로트와 싸우고 싶을 뿐이다….

헉

헉

……

너 같은 놈의 부하 따위는 절대 안 돼…!!

몸과 마음은 지배 당해도, 긍지만은 마음대로 안 될걸!!

이… 이런 일은 처음이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녀석이군….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놈의 역할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눈 앞에서 계왕신이 죽는 걸 보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제가 있는 한 계왕신이 침입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베지터.

그 정도로 나와 결판을 내고 싶었니…?

아… 이럴 수가. 바비디에게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니….

위이이이--잉

과연 그렇군….

알았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문을 열고 계왕신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리하게 문을 열려다가 마인 부우가 완벽한 힘을 가지기 전에 깨어나기라도 한다면 별로 좋은 일도 아니고….

그, 그럼 아버지!

다녀 올게….

앗! 저놈, 자기 스스로 문을 열어젖혔네!

우주선이 파괴당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응!

열심히 싸워라!

아! 잠깐, 오반아! 선두가 두 알 남았어. 방금 전 상당한 체력 소모를 했으니 한 알 먹고 가거라.

아, 고마워….

분노하라, 오반…! 분노하여 셀과 싸울 때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폭발시키는 거야.

그러면 넌 세상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누구에게도 절대로….

윽…

사삭
자, 다녀 올게!
사삭
……
하지만 아버지…. 모처럼 얻은 귀중한 하루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려서 씁쓸한데….
응….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군요…. 갑시다, 마인 부우의 구슬이 있는 곳까지.
아…! 이 밑의 바닥도 열려 있네요!
M
타앗

잘들
오셨군.

저게
마인 부우의
구슬인가요…?

예….

잘 왔다,
계왕신….

아버지의
원수….

너를
없애려고
왔다,
바비디!

그리고…,
마인 부우의
부활을 저지
하기 위해….


크큭…!
미안하지만, 마음대로 안 될 거다! 나에겐 마왕 데브라까지 있는걸.


바비디는 내가 맡겠어요!


손오반, 서둘러요!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마인 부우에게 손오공의 충격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예…!


휘이이잉

그거 좋지…! 어디, 저승에서 수행한 결과를 좀 볼까?

최고의 힘으로 빨리 끝내버리자.

너에게 충격을 받아 마인 부우의 에너지로 만들어주기는 싫다…!

역시!!

옛날의 오반을 능가하는 파워군!

!

하앗!!

간다!!

죽여주마! 카카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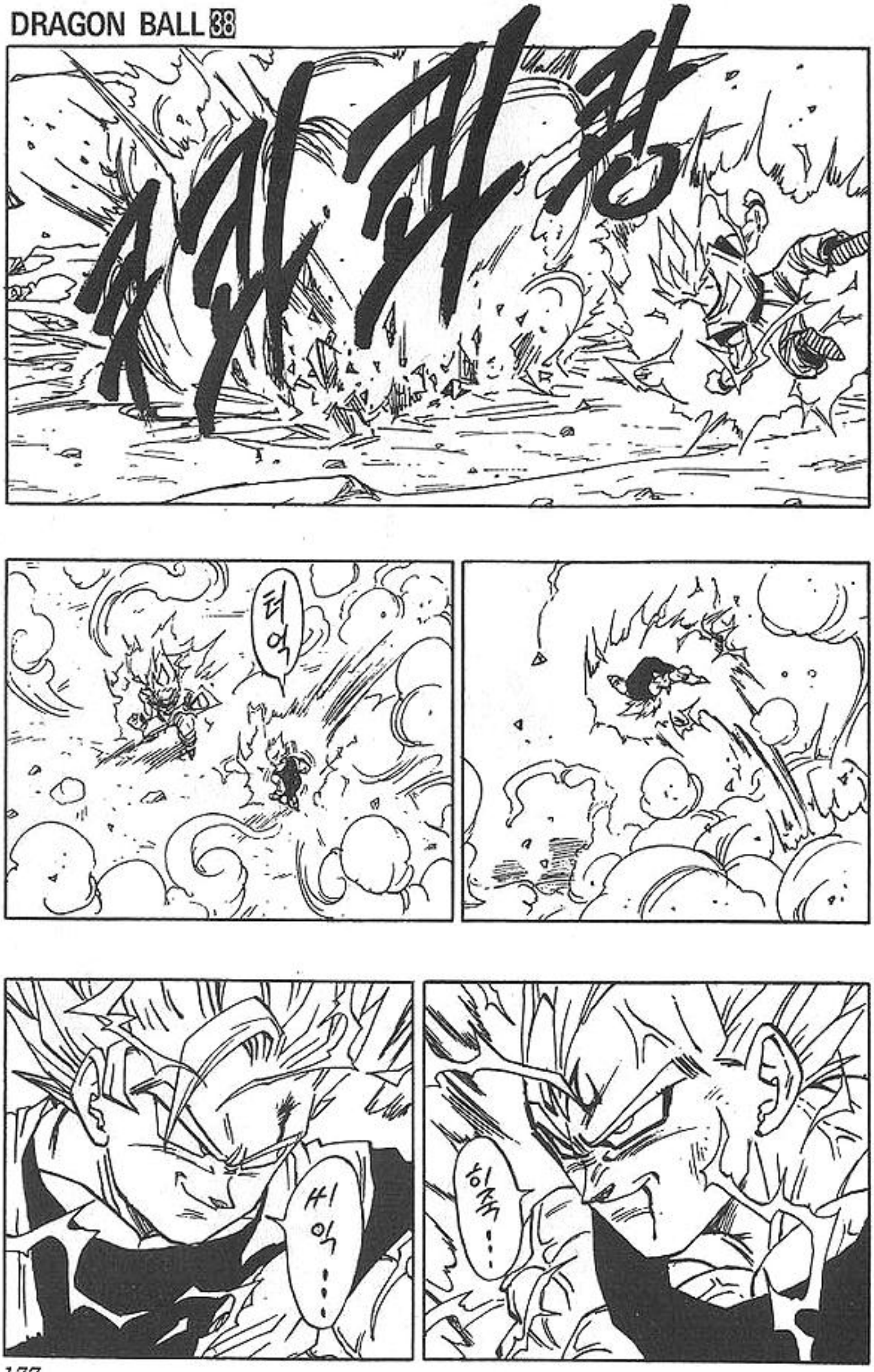
이거,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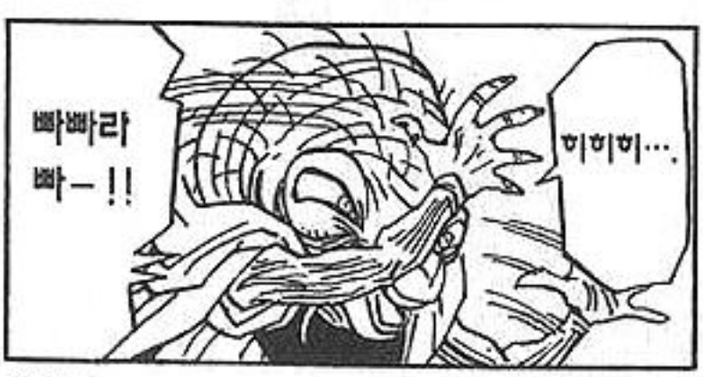
윽…!!
이얍—!!


쨔쨔쨔
터억
히죽…
씨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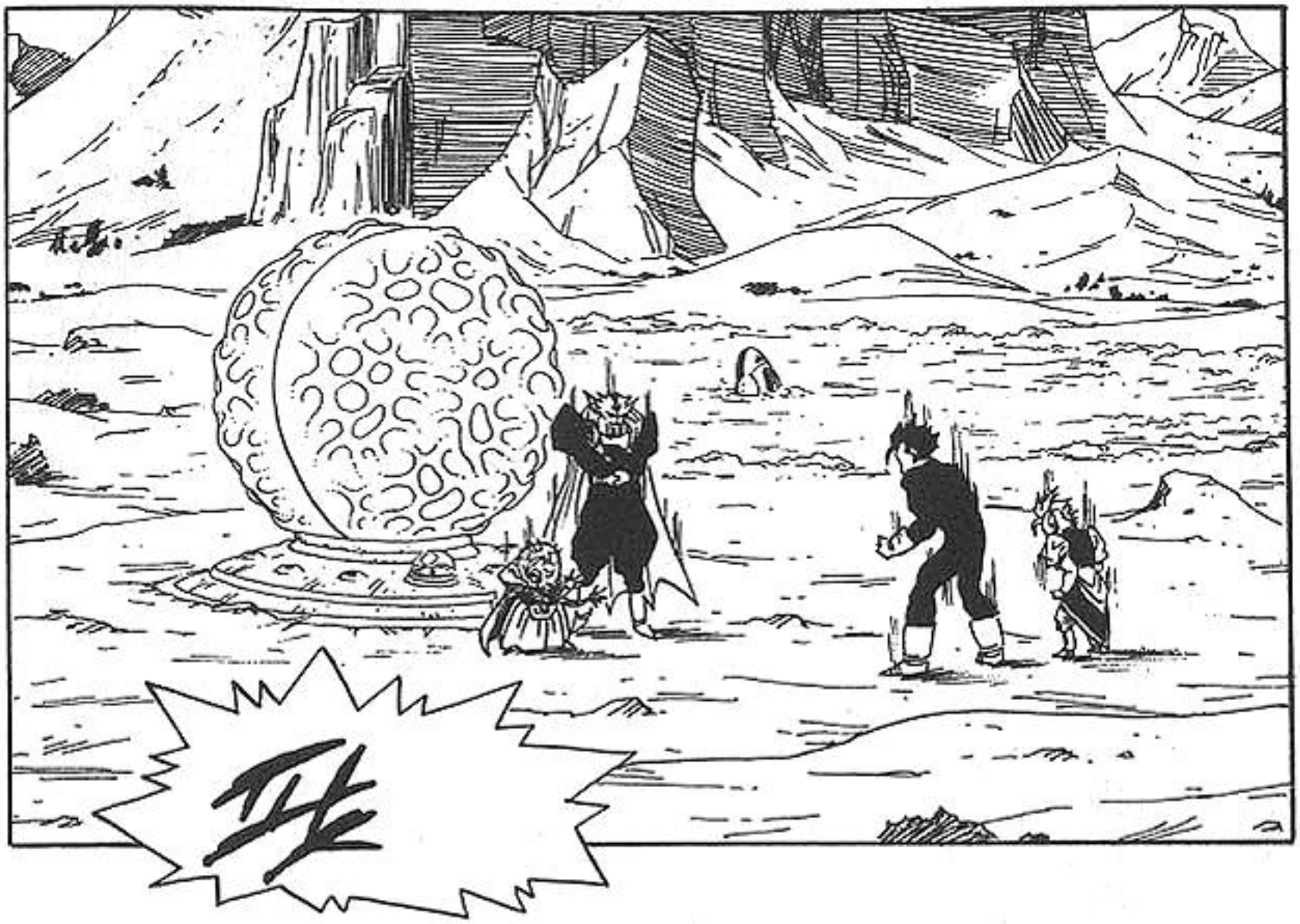


제459화 카운트다운


그때 너무 기운이 세서 이 우주선에 손상을 주면 곤란하니까 밖으로 나가자.
마인 부우는 풀 파워가 돼서 곧 이 구슬로부터 나올 것이다….


빠빠라 빠-!!
히히히….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놈들을 없애고 마인 부우의 부활을 저지하겠다!
좋다….


퍽


저런 쓰레기 같은 녀석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당근이죠. 좀 전에 약간 싸워봤기 때문에….


데브라! 예의상 물어보는 건데, 저 지구인에게 이길 자신은 있니?


분노하라, 오반…! 분노하여 셀과 싸울 때의 기억을 살려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폭발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넌 세상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누구 에게도 절대로….
……

그… 그때, 그 시절처럼….

그래…! 마음껏 분노하는 거야, 분노를….

아빠보다 마력도 훨씬 세고, 나에겐 데브라까지 있으니까….

키키킥…! 어떠냐, 계왕신…? 난 아빠처럼 너 따위에겐 지지 않아.

앗!?

삐…삐삐삐… 삐——…삘

서…, 설마….

이럴 수가… !!

이… 이렇게 딸리….

삐삐 ! ! 잇 엇

아… !

무… 무슨 일이죠 !?

삐삐 ! ! 앗 앗

푸… 푸… 푸….

푸… 푸… 플… !



풀 파워가
됐다-!!
마인 부우가
풀 파워가
됐어-!!





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손오공의
충격 에너지가…!?

뭐,
뭐야…!?

마…, 맞다…!!
아버지와 베지터 아저씨는
초사이어인을 훨씬 초월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강력한 두 사람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도 엄청나다…!!

이런
빌어먹을…!!
이, 이런 최악의
결과가 생길
줄은…!

모…
모두 나의
잘못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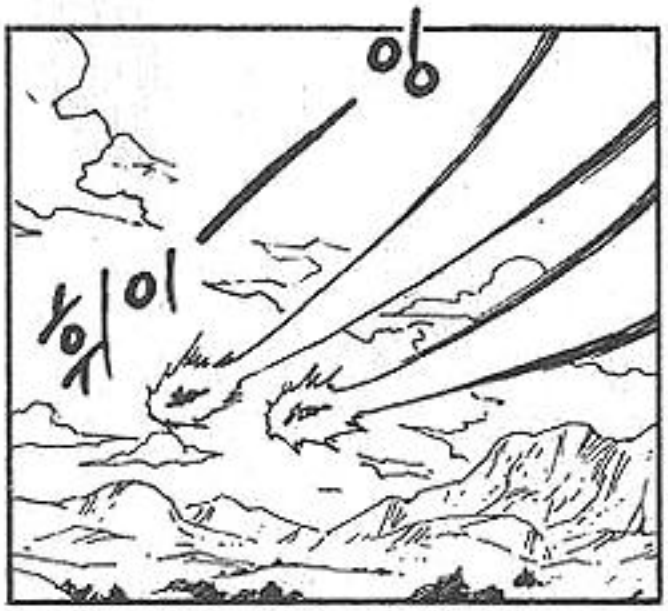

HOP
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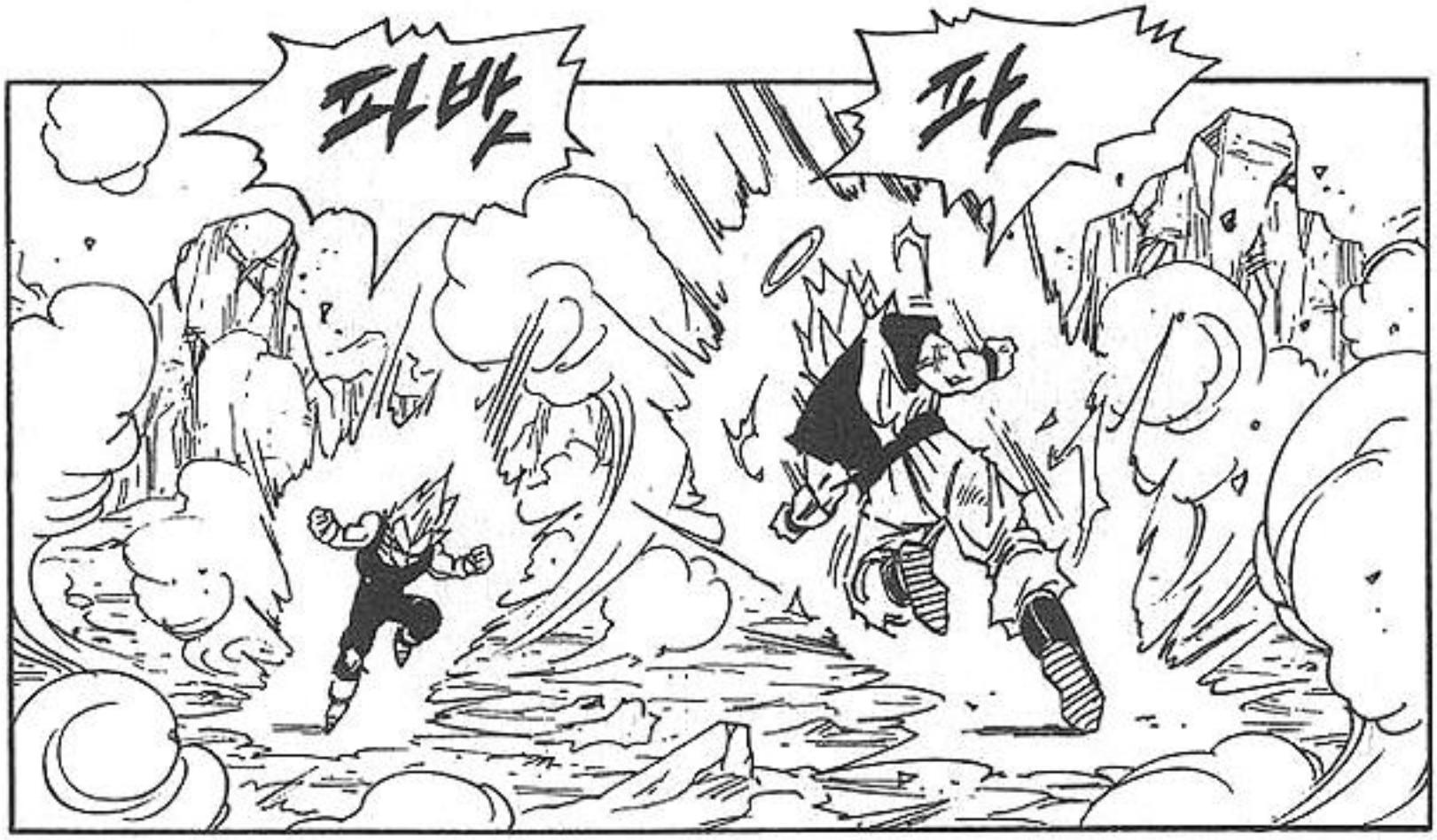



꽈과----광
쿠구구구구구궁---


누굴까?
아버진가…?
오… 오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가
느껴진다….
모…
모르겠어.


잉이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움 장소가 자주
바뀌는 거지?
너무 정신 없잖아.


파밧
파앗


헉
헉


헉
헉


넌
나 이상으로
수행을
했구나…!
미…, 믿을 수
없어…. 난 저승에서
상당한 수행을
한 몸인데…,
나랑 대등한 실력을
지녔다니….


진짜
쇼크 먹었어….
그… 그래서
난 속으로
결심했지….
아니야….
분명 너 이상의 특별 수행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천재야….
언제까지나 그 차이는 변함이 없었다.
난 그걸 알았어…, 네가 바비디가 보낸
괴물들과 싸우고 있을 때….

무술대회에 나타난
바비디의 부하가 된
두 녀석을 본 다른
사람들은 놈들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얘길 했지….
난 그걸 듣고 생각했다….
나도 바비디에게
마음의 지배를 당한다면
너와의 실력차가 없어질
거란 생각을….

그래….

바비디
에게!!

그…
그랬
구나!

그 예상이
적중했어…!

……

단지 강해지고
싶어서 자존심 강한
네가 저런 놈한테
지배를 당했단
거냐…?

……

맘에
안 드는
수단
이었지만.


난 말야….
나…, 난….


나… 나 같은 녀석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건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살기 좋은 지구도 맘에 들어버렸어….
맘에 안 들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의 영향을 받아 착해져만 가는 내 자신이….


옛날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잔인하고 냉혹했던 사이어인으로 돌아가서, 아무 거리낌없이 너와 철저하게 싸우고 싶었다!!


그… 그래서 바비디에게 지배를 당해 원래의 악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던 거야…!
……


지금은 기분 짱이다….
덕분에….


정말
그래?
……


!!